현대불교

제 804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10월 6일 수요일 (음력 8월 29일 · 불기 2554년 · 주간)





사찰 물물교환장터 축제로 개화

대구 동화사서 전통 승시(僧市) 국내 최초 재현



팔공산 승시 첫날인 10월 1일, 스님들이 붓과 숟가락 등을 물물교환하며 옛 승시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승시(僧市)'가 동화사 인근에서 재현됐다. 승시는 고려시대 이후 전국의 특산물을 모아 사찰에서 필요한 물건으로 바꿔가는 물물교환 장소로 이용돼왔다. 조선시대 팔공산 부인사 승시만 명맥을 유지하다 현대에 이르러 자취를 감췄다.

동화사와 대구광역시, BBS대구불교방송은 숨겨진 전통문화를 발굴, 복원하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고려초조대장경 제작 1000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 전통적 모습의 승시를 재현하는 '팔공산 승시(僧市)'를 10월 1~3일 동화사 집단시설지구 야외자동차 극장에서 개최했다.

국내 최초로 재현된 '승시'는 전국 사찰에서 전승,보존되고 있는 문화유산을 교류하고 체험하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다. 행사는 '승시마당'과 '전통문화 체험마당' '다도와 사찰음식 마당' '전시마당' '전통공연 마당' '전래놀이 마당'의 6가지 공간에서 나눠 진행됐다. 산중 전통장터의 모습을 살린 '승시마당'에서는 국내 최고 도예가 반열에 오른 칠곡 토향암 설봉 스님의 도자기 제작시연, 해남 대흥사의 녹차 제다시연, 의성 고운사의 청국장 담그기 등 스님들이 수행 속에서 직접 물품을 만들고 공양하는 모습의 독특한 프로그램 20여 가지가 선보였다. 또 전통문화 체험마당에서는 '통칙스님의 목판화'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 체험' 등이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체험의 기회를 선사했다.

다도와 사찰음식마당에서는 '홍승 스님 사찰음식의 모든 것' '청송대전사의 국화차와 찻자리' 등이 선보이고 전시마당에서는 초조대장경 1000년관, 영상관이 마련돼, 12지신등, 호랑이등을 비롯한 대형 전통등 25점이 승시기간 행사장의 밤 풍경을 화려하게 장엄했다.

1일 오후 6시 동화사 집단시설지구 야외자동차극장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대구불교방송 사장 허운 스님, 김범일 대구시장, 유승민 국회의원, 이재만 동구청장 등이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개막행사에 이어서는 태고종 봉원사 무형문화재 50호 스님들의 영산재(회심곡)와 공산농악, 사찰학춤, 날뫼북춤, 선무도 등의 화려한 공연무대가 펼쳐졌다.

'팔공산 승시'는 올해 첫 행사에 이어 내년에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간(2011.8.27~9.4)에도 열린다. 수많은 문화유산과 스토리를 간직한 팔공산으로 대표되는 문화도시 대구를 전 세계에 알리고, 고려초조대장경 천년행사와 연계한 명실상부한 대구의 대표 문화축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 · 사진=손법천 대구지사장

채용공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세상을 보는 窓

현대불교가 내일을 이끌 인재를 찾습니다.

●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모집 부문	모집 인원	전형 절차			응시 자격
		1차	2차	3차	①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② 모집부문 : 취재 · 편집기자 ③ 근무지역 : 서울 , 부산 경력기자는 서류전형 후 면접
수습기자 경력기자	0명 0명	서류 전형	필기 시험	면접	

● 원서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 기간 : 2010년 10월 15일(금) 오후 5시까지
2. 접수 방법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또는 현불닷컴(hyunbul.com)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사진 첨부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아래 이메일로 발송하면 됩니다.

cgseo@buddhapia.com / bin93@korea.com

3. 제출서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 성적 증명서를 시험 당일에 제출(최종합격자가 아닌 경우 제출서류 반환함)

4. 1차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 문의 : 관리부(전화 : 02-2004-8204~5)



14 15 선지식을 찾아서 수진 스님

옛 스승들의 말씀에 '있는 법 없애지 말고 없는 법 만들지 말라'는 명구가 있습니다. 이는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만들어서 혼잡스럽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일은…

3 유신론 10.만해와 오늘

9 현장 일본 인도학불교학회

11 선원총림 선종사원의 가람

12 기획 템플스테이 실무자 연수



새 연재 _ 조기룡의 사찰경영학 ····· 3면

사찰을 경영한다고 하면 거부감을 가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경영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사찰경영학 지상강좌 매주 연재.

조계종 '출가' 사이트 오픈

출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하고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사이버 공간(monk.buddhism.or.kr)이 열렸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9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종단 최초로 개설된 출가사이트의 시연회를 개최했다.

출가사이트는 한국 및 인류사회를 선도할 불교지도자를 배출시키겠다는 조계종의 도제양성 목표에 따라 품성 · 자질이 뛰어난 인재를 출가의 길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가사이트는 △출가의 길 △출가영상 △출가Q&A △열린마당 등 4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출가의 길'에는 도법 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공동대표)의 '자유로운 날개짓', 정목 스님(선다암, 불교방송 진행자)의 '출가를 꿈꾸는 그대에게', 법정 스님의 수필집에서 가려 뽑은 '법정 스님의 편지', 다양한 출가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출가자의 삶'으로 구성됐다.

교육원은 출가사이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전담자를 배치하고 상담기능을 상설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자료의 업로드 등을 통해 출가와 관련한 네트워크 중심의 사이버도량을 만들 계획이다.

조동섭 기자

박준수의 그림 법구경



밝은 지혜로
어리석음을 관조하면
마치 산위에서 평지를
내려다보는 것과 같다.

사는 곳이 어지럽더라도
몸이 올바르면 그것을
가리켜 홀로 깨달은
사람이라 한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의 힘은
사자보다 뛰어나니
나쁜 행실을 버리고
큰 지혜를 얻는다.

아! 나로부터 벗어나는 행복 자유 평화 상생

단기출가, 삼매체험집중 4박5일 단식·참선

몸에 배어버린 관행, 체질전환 단기출가로 해결해보십시오

·인 생 대 전 환·

아기손 붙잡아 일으키듯, 다가가는 간화선체험

국민단식의 상상초월효과 • 다이어트 1일최고 3kg 요요현상제로

물만 마시고도 고혈압 당뇨병 성인병 난치병을 퇴치 · 예방할 수 있습니다
면역성 노화방지 해독 아토피 피부 미용 여드름 생리연장 금연 금주

10월 8일~12일, 11월 12~14일,매월 단기출가 30일 50일 100일
청소년 대학생 일반

일찍부터 참선에 뜻을 두고 시도했으나 어려움에 부딪혀 좌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참선을 하지 않고는 불교를 한다고 할 수 없다 ! ' 라는 말을 들어왔으나
'어렵다 ! 근기가 낮다 !' 라 하여 엄두도 못내 셨다면 이제 시작해 보십시오.
제4회 참선대중화 선회에 초대합니다.
시원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활인선원 원명선원 ☎1644-5266 네이버카페 활인선원 ▼



대한민국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사찰경제 바꾼다!!!

부처님이 봉안된 법륜대 만년등으로 활기...

법륜대 특징

1. 수미단에 천불보탑 만년 등으로 시주자 명단을 새길 수 있습니다.
2. 전생 빚 해탈을 위한 황금빛 금강경을 복장하는 법륜대입니다.
3. 가족의 소망을 적어넣고 직접 돌리는 신비한 법륜대입니다.

** 좌우 상감청자 코끼리에 새길 설판자 명단을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 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한국불교 세계화의 초석을 놓다

평화 · 종교갈등 해소위해 UN, 유네스코와 협력사업 추진

9월 14~23일 미국을 방문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방미 성과에 대해 조계종이 "주제를 갖은 첫 해외순방으로 한국불교 세계화의 초석을 놓고 왔다"고 자평했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은 9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국불교세계화를 위한 조계종 미국방문 결과'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조계종 공동방미대표단장 원담 스님(조계종 기획실장)은 기자회견에서 "세계평화와 종교갈등 해소를 위해 UN, 유네스코와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현지의 종교인들도 만났다. 해외특별교구 설립 등 국제포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외 지역별 대표사무소 설립을 위한 현지 의견수렴도 이번 방미 성과 중 하나이다"라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방미 기간 중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면담해 사회적 공동선 실현을 위한 한국불교 역할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이리나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빈곤국 아동교육과 국제구호 활동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공동방미대표단장 혜경 스님(조계종 사회부장)은 "OECD가 인정한 한국관광자원 중 1위인 템플스테이와 함께 사찰음식을 통한 국제 문화교류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도 이번 방미 성과로 빠질 수 없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왼쪽)이 9월 17일 뉴욕 UN본부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스님은 "20일 뉴욕에서 개최한 '사찰음식의 날'을 통해 한국 사찰음식이 미국인 식생활의 단점을 보완할 훌륭한 대안이라는 현지인의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2011년에는 프랑스에서 사찰음식 시연회를 개최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사찰음식의 날'에는 현지 정관계 주요인사, 언론인, 대학교수 등 오피니언 리더 300여 명이 참석해 한국 사찰음식을 체험했다.

또, 조계종 방미단은 미국 현지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설명회를 열고, 템플스테이 국제 홍보와 해외사업 계획 등을 진행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미국 방문 기간 중 각 종교지도자를 만나 종교간 관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콜롬비아대 등 현지 대학을 찾아서는 한국불교학의 세계화를 점검하고 재가자라도 승가장학기금에서 출연해 지원하는 장학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특히 스님은 LA, 뉴욕 등 현지 불자들과 법회 및 간담회를 열고 현지 의견 수렴하고 종책방향을 설명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

원담 스님은 "해외에서 활동 중인 스님들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포교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교포 포교에 머물고 있는 해외의 한국 불교가 현지인 포교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해외사찰 표준정관을 마련하고, 사찰의 종단등록 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또, 신도등록과 신도증 발급을 위한 국가별 대표사무소를 운영하고, 교포 2~3세의 포교 방안도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조계종은 이번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방미를 계기로 2013년 세계종교지도자 한국포럼을 준비 중이다. 또, 유네스코와 체결한 MOU의 후속작업으로 저개발국 어린이 교육지원사업 등 공동사업을 가시적으로 추진하는 등 해외 포교와 관련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를 수립키로 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이번 방미 성과를 정리한 자료집 발간을 준비 중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28일 조계종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부적절한 인물 종회 진출 경계

조계종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10월 28일로 다가왔다.

이미 각 교구본사별로 방장스님 등의 정리나 계파별 안배가 끝나 무투표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런 가운데 금권선거와 부적절한 인물의 종회 진출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한 스님은 (계파간 안배가 아닌) 종책 중심의 중앙종회의원선거를 주장하며 출사표를 던져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 오후1~4시 교구본사별 선거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경)는 "10월 28일 오후 1~4시까지 당해 교구본사에서 제15대 직선직 중앙종회의원을 선출 투표를 실시한다"고 9월 22일자로 공고했다.

#"선거과정서 금품·음해 엄단"

조계종 호법부(부장 상운)는 10월 1일자 담화문을 통해 "종단의 각급 선거에서 '금품'과 '음해'라는 부적절한 연상이 떠오르지 않도록 최대한 엄격하게 종법을 집행하겠다. 공정한 선거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부적절한 인사 선거 나오지 말아야"

불교단체와 일부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이 28일 선거를 앞두고 청렴한 인사로 중앙종회 인적자원을 쇄신하자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대표 퇴휴)와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의장 진오), 불교환경연대 등 불교단체와 진화 · 주경 · 자현 · 우석 · 일문 · 무자 · 정산 · 정범 스님 등 중앙종회의원스님들은 9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종단 자정 기능 강화와 올바른 선거문화 확립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불교단체 및 의원스님들은 성명서에서 총무원 측에 금권선거 근절과 부적격자에 대한 엄정한 자격심사를 촉구했다.

이날 불교단체 및 의원스님들이 부적격자로 지명한 스님은 수계를 받은 근거가 없다고 알려진 중앙종회의원 T스님과, 개인명의로 된 사찰 소유의 토지를 종단 승인 없이 불법 매각해 사회법에 제소된 중앙종회의원 C스님,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 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교구본사 주지 S스님이다.

스님들은 "이들 3인의 스님은 사유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일각의 비판에도 아랑곳 없이 종단 소임을 유지하거나, 또 다시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의도까지 보이는 등 수행자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망각하고 있다"며 "이들의 조속한 사퇴와 종단 차원의 진상조사 및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스님들은 호법부장 상운 스님을 찾아 성명서를 전달했다.

#"계파 아닌 종책 중심 선거문화 돼야"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인 법응 스님은 9월 29일 조계사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스님은 "종단권력이 일부 특정세력에 장악된 형태에서 조속히 벗어나 종책선거, 공명선거, 토론문화에 의한 선거가 정책돼야 한다. 이러한 뜻을 보다 효과적으로 종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법응 스님은 12가지 선거공약 등이 수록된 17쪽 분량의 종책자료집을 전국 교구본사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불교계 북한 돕기 나서기로

종단협, 수해 피해 지원 사업 결의

27개 불교 종단이 심한 수해를 입은 북한 동포를 돕기로 마음을 모았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는 9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010년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북한 수해 피해 지원 사업'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불교계의 북한 돕기는 10월 15일까지 각 종단들이 배정된 금액 · 물품을 종단협 사무국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성금은 5000만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지원물품은 정부 및 조선불교도연맹과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종단협 사무국은 모연된 모금액과 물품을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에 지정기탁해 10월말 인천항을 통해 북한 남포항으로 보낸다.

종단협은 북한 구호물품으로 2006년과 2007년 각각 1억 1000여 만원의 물품과 성금을 전달한 바 있다.

종단협을 상징하는 휘장(CI)도 확정했다. 종단협 휘장은 오창린 교수(동국대 미술학과)가 개발했다. 태극문양과 연꽃을 소재로 한 디자인에 파스텔 톤의 한국적 색채가 가미됐다.

또, 태고종 법현 스님 후임으로 능해 스님을, 원융종 성관 스님 후임으로 체의 스님을 신임 상임이사로 변경하는 임원 변경의 건 등을 통과시켰다. 조동섭 기자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 논의

조계종과 민주노동당이 신의주 지역 수해 등으로 식량난이 극심해진 북한에 인도주의적 차원의 쌀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9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예방을 받았다.

강 의원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추석이 되어 수확의 즐거움으로 한창일 농촌이지만 쌀 수매가 등으로 농민의 시름은 그칠 줄 모른다"면서 "남한의 남는 쌀 문제와 북한의 부족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대북 쌀 지원을 20~40만톤 규모로 확대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지자체 불자회 적극 지원하겠다"

자승 스님, 경기도의회 불자회서 밝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지방자치단체 불자회를 적극 지원 ·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9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경기도의회 불자회(회장 김종용; 의왕 · 민주당)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총무원장스님은 "의원들 스스로 불자회를 구성한 것에 반갑고 고맙다. 지역별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 경기도의 용주사(주지 정호)와 봉선사(주지 인묵) 등 2개 교구본사와 연계해 불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종단도 지역사찰과 신도조직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여야를 떠나 지역 불자 등 지역민들의 민생 현안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도 당부했다.

김종용 경기도의회 불자회장은 "경기도 불자회가 창립하게 돼 인사드리러 왔다"면서 "10월 말 예정된 창립법회에 총무원장스님을 비롯한 큰스님들의 참석을 바란다. 또, 아직 불자회 이름을 짓지 못했는데 총무원장스님이 불자회 이름을 명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총무원장스님은 "불자회 이름은 종무원들에게 공모해 좋은 이름으로 짓겠다"고 화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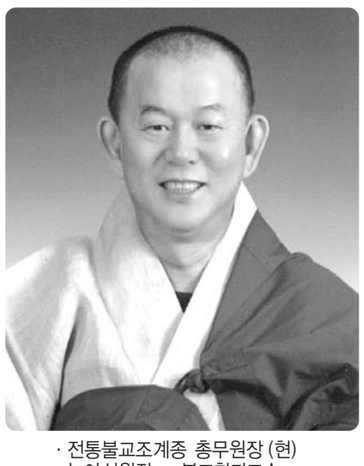

경기도 불자회 소속 의원들이 9월 27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해 환담을 나누고 있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김종용 회장(의왕, 민주당)과 김시갑 부회장(의정부, 한나라당), 천영미 간사장(안산 비례, 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 민주당), 장호철 의원(평택 비례, 한나라당), 김기선 의원(용인, 한나라당), 윤영창 의원(포천, 한나라당), 고윤수 의원(평택, 민주당), 손호성 의원(안산, 민주당), 홍정석 의원(양평 비례, 민주당), 이강림 의원(포천, 한나라당) 등이 참석했다.

조동섭 기자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집중 5일완성
저자 : 법화 종헌 (정흥교) 큰스님 직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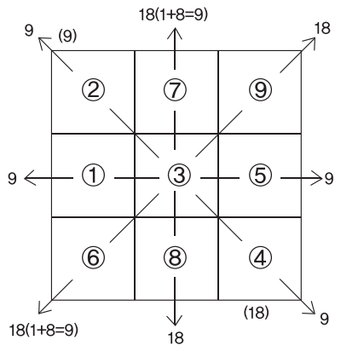


·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현)
· 녹야선원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궁법 저자

강 의
목요일 : 저녁 7시 – 9시
금 · 토요일 : 오후 1시 – 5시
상담 : 010-7415-0803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사찰 ·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특전 : 특별장학금 (50%)
특허출원번호 : 40-2010-0009061
홈페이지 참조 – www.psa.or.kr [구단구궁법] 41-2010-0004261



[구단구궁 원리도]

*** 강의 일정표 ***
◈ 제1일 – 구단 구궁의 제법칙
◈ 제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3일 – 부교재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제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구단구궁을 수료하신분들께 감사드리오며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일정표에 맞추어서 재수강 하시기 바랍니다.

학 과	기간 / 요일 / 시간	강 의 과 목	비 고
불 교 학 과	[기간 – 2년] 금요일 : 저녁 7시 – 9시	· 유식사상 · 화엄학 · 대승기신론 · 답사학	대학원과정 (학사이상)
불교교리학과	[기간 – 1년] 화요일 : 오전 10시 – 12시 저녁 7시 – 9시	· 사찰예절 · 근본교리 · 부처님생애 · 반야심경 · 포교방법론 · 초발심자경 · 천수경 · 금강경	포교사 법 사
장례지도학과	[기간 – 6개월] 월요일 : 오전 10시 – 12시 저녁 7시 – 9시	· 관혼상제 · 장례식장경영론 · 장묘제도(법규) · 공중보건학 · 상담학 · 장례학 개론 · 불교상장례이해 · 실습	장례지도사 1,2급 불교장례지도사
다도예절학과	[기간 – 1년] 월요일 : 저녁 7시 – 9시	· 제다학(1,2,3,4) · 다구학 · 사찰다도법 · 차와선 · 차 문화사 · 차성분학	다도예절포교사
불교의식학과	[기간 – 6개월] 목요일 : 오전 14시 – 17시	· 기초 – 중급 – 고급 – 속성(실전) · 범음, 범패, 작법(바라 나비춤) · 종사이운 종사영만 점안의식 시달림 예수제	
풍 수 학 과	[기간 – 1년] 수요일 : 오전 10시 – 12시 저녁 7시 – 9시	· 생활풍수 · 음택/양택 · 풍수학 개론 · 패철 · 방위학 · 부동산풍수 · 풍수인테리어 · 지리오결	풍 수 지 리 사
명 리 학 과	[기간 – 6개월] 화, 목요일 오전 10시 – 12시 / 저녁 7시 – 9시	· 생활역학 · 작명 · 사주명리학 · 관상학 · 궁합 · 택일 · 실전명리	명리심리상담사
이수명리학과	[기간 – 8주] 일요일 : 오후 14시 – 19시	· 이수명리학 · 명리36금수 · 적천수 · 12운수 · 간파명문 · 오자술	이수명리학회 회원증
타 로 학 과	[기간 – 4주] 금요일 : 저녁 7시 – 9시	· 메이저아르카나–22장 · 마이너아르카나–56장 · 실전타로학	타로카드 마스터사(1급)
구단구궁학과	[기간 – 3일] 목 : 저녁 7시–9시 / 금,토 : 오후 13시–17시	· 구단구궁학교재 · 비법교재	한국구단구궁학회회원증

15년전통 부산불교전법대학 · 대학원 – 구단구궁연구회 051)467-4665 / 010-7725-1024

‘조선불교유신론’ 100년-10. 만해와 오늘의 불교

‘유신론’ 필요 없는 절집을 세울 때다


성남에 위치한 만해기념관에 진열된 만해 스님의 저서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신자유주의 편입된 상황은 위기이자 도전이다
대중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못하는 게 문제

만해 스님(1879~1944)이 치밀하고 명쾌한 논리로 당시 불교계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한 명저인 <조선불교유신론>을 펴낸 지 어언 100년이 됐다. 100년이란 짧지 않은 세월 동안 한국불교는 영욕이 교차했다. 조계사 마당에 섰다. 육중한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아래 서울한강선원 천막이 펼쳐져 있는데 양자의 거리는 꽤 멀어 보인다. 지금 한국불교는 위기와 도전의 극점에 있다. 정권으로부터 적지 않은 수모와 압박을 받았고 봉은사와 4대강문제로 갈라져 있으며, 상좌불교가 대중 사이에 파고들며 대승의 전통에 틈을 내고, 대중을 이끌고 구제할 스님조차 상당수가 권력과 시장과 욕망에 물들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불교유신론>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만해 스님은 불법에 귀의한 승려이자 근대적 개혁을 실천한 계몽적 지식인이다. 그러기에 <조선불교유신론>은 불교적 세계관과 비불교적 세계관, 중세적인 가치와 근대적인 가치가 착종돼 있다. 비구로서 스님은 중도의 사유를 행하고 언어와 의식을 넘어서는 진여를 추구했다. 이럴 경우 일제의 만행이나 당시 불교계의 부조리에 대해 비판할 수 없었다. 이에 스님은 진여문(眞如門)에서는 불법과 일심(一心)을 따르지만, 생멸문에서는 한국불교의 현실을 비판하고 개혁하는 근대적 지식인의 입장을 취했다. 선(禪)이 언어도단(言語道斷)을 선언하면서도 언어로 된 화두를 방편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거시적 차원에서는 불교적 세계관을 지향하면서도 불교 개혁의 방편으로 이분법의 사유, 진리의 확정성과 합리성, 인간중심주의 등 근대적 사유와 실천을 혼융한 것이 <조선불교유신론>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여기서 주장한 개혁책 가운데 상당한 부분은 지금도 현재성을 갖는다.

만해 스님은 선실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고 선객이 호구지책이라고 비판했다. 지금은 그런 선실도, 스님도 없기에 얼핏 보면 이 지적은 현재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해 스님이 지금 살아있다면 절의 시장화를 신랄하게 비판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절집은 교환가치를 추구하는 곳으로 변질돼 신자유주의 이래 시장에 편입됐다. 절집 일들이 자본의 확대재생산 원리에 따라 돌아가고, 신도는 물론 상당수 스님 또한 화폐증식의 욕망에 사로잡혔다. 이 상황은 불교에 위기이자 도전이다. 한국불교가 나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타자를 섬기어 욕망을 자발적으로 절제하는 삶을 선도한다면, 인류가 맞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평을 여는 종교로 부상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절집도 시장에 포섭될 것이다.

만해 스님은 승려 교육에서 “지혜, 사상의 자유, 진리의 세 요소가 중요하며 스님들은 그 중에서도 사상의 자유와 비판정신이 가장 결핍돼 있으니 보통학, 사범학, 외국유학 등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자”고 주장했다. 이 점은 현재 동국대와 중앙승가대와 여러 강원이 있어 만해 스님이 상상도 못할 수준으로 개선됐다. 하지만 스님들 상당수는 한문공부를 하다가 간화선 수행으로 비약을 한다. 이 때문에 스님들 중에는 교리에 약하고 현대 사회와 대중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대중들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빚어지는 화폐증식의 욕망에 물들고 소외를 겪으며 모두가 고독하고 불안한 가운데 자살에까지 이르는데 스님들이 고식적인 고(苦)의 지멸만 되풀이한다면, 대중들은 차츰 절집을 떠날 수밖에 없다. 스님들의 교과과정에 현대사회와 대중을 이해할 수 있는 서양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대폭 포함시켜야 하며, 교(敎)를 사다리 삼아 선으로 갈 수 있도록 경전을 심층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하리라.

만해 스님은 “조선불교가 유린된 원인은 세력이 부진한 탓이며, 세력의 부진은 가르침이 포교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불교방송국 등 많은 불교 언론이 존재하고 불교 책자도 쏟아져 나온다. 여건은 충분하다. 필자가 보기에 지금 문제는 한국불교가 대중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못한다는 데 있다. 저 높은 곳에서는 불교교리와 간화선 수행을 정통으로 말해주면서, 낮은 곳에서는 위빠사나 수행도 포용하고 대중의 근기에 맞추어 불교교리와 의례를 현대화, 대중화해야 하며, 자비행과 보살행을 관념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하리라.

무엇보다 문제는 스님과 종단이다. 스님들이 너무 쉽게 계율을 어긴다. 육식과 술을 하지 않는 스님들을 보기가 외려 어렵다. 출가를 했다지만 핸드폰과 인터넷으로 세속과 너무 깊이 연결돼 있다. 종단은 점점 더 관료화하고 있어 불자들과 거리가 멀다. 스님만 나무랄 수 없다. 인터넷 접속만 하면 단 몇 초 만에 요지경 세상에 푹 빠질 수 있다. 인터넷은 공동으로만 사용하게 하는 등 이제 달라진 맥락에 맞게 계율도 현대화하고 재가불자도 구성원으로 포용해야 하며 종단도 개혁해야 하리라.

<조선불교유신론>이 100년 뒤 오늘까지 지표임은 그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아무도 <조선불교유신론>을 말하지 않도록 절집을 새로 지을 때다.

이도흠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조기룡의 사찰경영학 ①

사찰은 중생 위한 수행·포교의 장

경영한다는 것은 어느 조직을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의식적으로 계획 · 유도하고 지휘하는 것을 말한다. 비영리단체로서 사찰경영은 무엇을 위한 경영이어야 하는가? 불도를 닦고 교법을 전하기 위한 목적에 부응하는 경영이 되어야 한다. 혹자는 경영이라고 하면 영리추구를 위한 활동이라고만 생각한다. 그래서 사찰을 경영한다고 하면 사찰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여 거부감을 가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경영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데서 기인하는 반감이라고 할 수 있다. 경영(經營)의 원래 의미는 사업이나 기업 등의 조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하는 활동이다.

경영한다는 것은 어느 조직을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의식적으로 계획 · 유도하고 지휘하는 것을 말한다. 앞의 쓰인 조직은 가계, 기업, 기관 또는 사찰, 교회 등 다른 어떤 조직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찰 · 교회 · 학교 · 병원 · 고아원 등과 같은 비영리적 경제단위나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적 경제단위를 경영한다는 것은 각기 이들 경영체의 설립목적에 부응하도록 계획하고 낭비 없이 밀고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영리단체의 경영은 영리추구이지만 비영리단체의 경영은 영리추구가 아닌 것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기업의 역할과 비중이 점차 커지게 되어 오늘날에는 주로 기업 경영을 의미하게 되면서 혹자와 같은 오해가 형성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비영리단체로서 사찰경영은 무엇을 위한 경영이어야 하는가? 이를 위해서는 사찰(寺刹)에 대한 정의를 우선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사찰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곳을 목적에 맞게 경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찰의 사전적 의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불도(佛道)를 닦는 수행 도량이자 불법(佛法)을 널리 펴서 중생을 제도하는 포교의 장이다. 가람(伽藍)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범어의 상가라마를 한자로 음역한 것이다. 이는 중원(衆院) 또는 정사(精舍)라는 뜻으로 비구 · 비구니 · 우바새 · 우바이 등의 사부대중(四部大衆)이 모여 사는 집이라는 뜻이다. 이를 정리하면, 사찰은 사부대중의 수행과 포교를 위한 장소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찰의 경영은 불도를 닦고(수행) 교법을 전하기 위한(포교) 목적에 부응하는 경영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사찰경영은 누구를 위한 경영이어야 하는가? 앞에서 사찰경영의 목적이 수행과 포교를 위한 것이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수행과 포교를 위한 사찰경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찰경영의 측면에서 다시 설명하자면 수행과 포교를 위한 사찰경영의 수익자는 누구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사찰경영이 수행과 포교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면, 사찰경영의 수익자는 수행과 포교를 하는 자와 받는 자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다면 수행과 포교를 하는 자와 받는 자는 누구인가?

불교를 가리켜 수행의 종교라고 한다. 절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종교와는 달리 불교는 수행에 의한 깨달음을 얻을 것을 요체로 한다. 그리고 불교는 각자 자신의 능력과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택해 정진하여 바른 깨달음을 얻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수행법은 다양하나 모든 수행법은 한결 같이 바른 깨달음 즉, 성불(成佛)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다. 성불은 자신을 윤회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해탈에 이르게 한 상태, 즉 붓다(Buddha, 깨달은 자)가 됨을 의미한다.

포교란 통화가 널리 유통하여 만인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널리 불법(佛法)을 유통시켜 세상사람 모두를 윤택하게 하는 것

그런데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 개개인이 본래 구족한 본성(本性)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그 본성은 곧 부처님의 본성으로 경전에서는 이를 불성(佛性)이라고 한다. 대승경전인 <열반경>에서는 모든 중생들이 불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를 일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이라 한다. 일체 중생에 불성이 있기에 모두가 성불에 이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중생이 무명에 가려서 이를 보지 못하기에 수행으로 무명을 걷어내어 성불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생(衆生)의 범위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란 의미로 쓰일 때에는 생명이 있는 것(有情物) 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것(無情物)까지도 불성이 있다는 것이 된다. 하지만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할 때에는 곤충이나 미물(微物)들까지 불성이 있다는 것이 되지만, 본고에서는 현실적인 이해와 논의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중생을 인간에 한정시켜 이해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불성관과 수행관에 의했을 때, 수행을 하는 자와 수행을 받는 자는 누가 될 수 있는가? 그런데 수행이란 본디 자발적 · 능동적인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하는 자’는 있어도 ‘받는 자’란 수행의 본 의미에 부합하기 어렵다. 그러면 수행을 하는 자는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누가 수행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위에서 불성은 일체 중생에 깃들여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수행에 의하여 깨달을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에 일체 중생은 누구라도 수행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포교(布敎)란 통화가 널리 유통하여 만인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널리 불법(佛法)을 유통시켜 세상사람 모두를 이롭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것이다. 즉 불법을 사회에 널리 펼쳐서 중생이 불법에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불법을 따르고 지켜서 모두가 이롭고 윤택한 불국정토를 일구는 것이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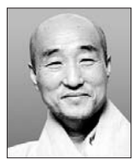
파라미타 전국청소년 등작품 공모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 도후 스님은 10월 29일까지 G20정상회의 기념 전국 청소년 등작품 공모를 실시한다. (02)723-6165



승가원 자비나눔 바자회

승가원 이사장 태원 스님은 10월 15일 서울 안암동 승가원 앞마당에서 승가원 행복타운 건립기금 마련 자비나눔 바자회를 개최한다. (02)1688-0750



불암사와 함께하는 산사음악회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10월 9일 남양주 불암사 대웅전 특설문대에서 2010 생명나눔의날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02)734-8050



법주사 보살계 수계대법회

보은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은 10월 12일 법주사 금강계단에서 보살계 수계산림 대법회를 봉행한다. (043)543-4755



인드라망 청년학교 이론 교육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서울 인드라망교육도량에서 10월 4~22일 5회에 걸쳐 청년학교 이론 교육을 실시한다. (02)2654-1866



2010 청량사 산사음악회

봉화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은 10월 2일 청량사 일대에서 2010 청량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02)723-9836



청정승가대중결사 10월 아카데미

청정승가대중결사 의장 진오 스님은 10월 11일 서울 템플스테이센터에서 '불교명상음악과 나의 삶'을 주제로 10월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02)732-1209



삼보조계종 해상용왕대재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10월 11~14일까지 제4회 문무대왕해상용왕대재를 봉행한다. (055)338-0050



국행수륙무차평등대재 학술대회

서울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은 10월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행수륙무차평등대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02)359-8410



동국장학회 2학기 장학금 전달

이연택 동국장학회 이사장(동국대총동창회장)은 9월 27일 동국대 재학생 11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 11월 15일 개원하는 국제선센터 주지 현조 스님

"한국불교 세계화에 이바지"



"한국불교 세계화의 중심으로, 서울 서남권 포교와 교육 · 문화 · 수행의 정법을 펼치는 도량이 되겠습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국제선센터 전경. 내 · 외국인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11월 15일 문을 연다.

한국불교 세계화의 중심에 설 조계종 국제선센터가 11월 15일 개원법회를 개최한다. 개원에 앞선 9월 28일 주지 현조 스님(사진)은 서울 견지동 모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제선센터 운영계획 등을 밝혔다.

현조 스님은 "종단 초유의 사업인 국제선센터에 거는 불자들의 기대가 큰 것을 알고 있다. 국제선센터는 간화선 종주국인 한국불교의 위상과 역할을 드높이고 세계화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만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국제선센터가 위치한 양천구 목동은 대형교회가 여럿인 반면, 사찰은 손에 꼽을 만큼 적다. 불교의 불모지인 서울 서남부지역의 거점 사찰로 수행 중심의 포교와 교육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국제선센터는 언제, 어느 때 방문해도 내외국인이 함께 참선할 수 있는 선방을 운영한다"면서 "한국불교 선문화 및 참선의 생활화, 대중화, 세계화를 견인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제선센터의 법회는 내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법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을 위해 동시통역 시스템을 갖췄다. 매주 일요일 오후 4시에는 외국인 전용 법회인 담마토크(Dhamma talk)도 연다. 담마토크에서는 불교교리 및 예절 등이 영어로 진행된다. 또,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탐방 및 불교전통문화체험 등으로 특화된 국제선센터만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특징이다.

내국인을 위해서는 회원제로 시민선방을 운영한다. 선원장 효담 스님의 지도로 참선 실수를 하게 될 시민선방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현조 스님은 "도심포교 거점 사찰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법회와 기도, 교육, 지역민과 이주민(외국인 노동자)을 대상으로 한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도 확대 및 불교 홍포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국제선센터'라는 명칭이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낯설다는 목소리도 있어 법당에 별도로 '00사'라는 절이름을 붙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제선센터에서는 새신도교육->기본교육->전문교육->심화교육 등으로 이어지는 불자양성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된다. 또, 안근청정문화(사경/불화그리기/사찰탐방), 이근청정문화(명상음악/찬불가/범패 및 의식이해), 비근청정문화(향기치유요법/향 만들기), 설근청정문화(사찰전통음식/차와 명상), 신근청정문화(선체조/요가/선문도/선무), 의근청정문화(자비명상/용서명상) 등 육근청정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현조 스님은 "육근청정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불자들이 각기 관심분야에 맞는 소모임을 조직해 불교문화 홍보와 문화선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어린이법회, 청소년법회, 청년법회 등 계층법회를 통한 신도조직도 갖출 예정이다.

"지역 불자를 중심으로 신도회가 조직되면 군인법회, 경찰법회, 교도소법회, 병원법회, 공항법회 등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한 신행활동도 펼칠 계획입니다."

현조 스님은 "모든 법회에는 원칙적으로 내외국인 구분을 두지 않는 것이 국제선센터의 가장 큰 특징이다. 동시통역 시스템을 활용해 외국인이 내국인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한국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제선센터는 개원에 앞서 10월 5일 점안식을 봉행한다. 이어 7일 제1기 불교기본교육을 개강하고, 10일 국제선센터 첫 법회를 봉행한다. 15~17일 국군총신도회 템플스테이를 개최하며, 25일 국제선센터 내 선원을 개원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02) 2650-2200

조동섭 기자

■ 태고종 새 집행부 구성

태고종 총무원(총무원장 인공)은 개정 총무원법에 따라 9월 28일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

2인에서 1인으로 조정된 부원장에는 재무부원장 화경 스님이 유임됐다. 또 5개 부서로 축소된 각 부서장에는 총무부장 상하 스님, 교무부장 법경 스님, 재무부장 혜산 스님, 문사부장 법운 스님, 규정부장 구산 스님이 각각 임명됐다. 종무위원에는 완월 · 고담 스님(종무), 경보 스님(교임), 능해 스님(교류), 문화종무특보에는 법현 스님이 임명됐다.

태고종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16일 열린 제103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총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단행된 것이다. 개정 총무원법은 총무원 부원장 정수를 1인으로 하고, 부서도 5개 부서로 통폐합했다"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운문사 명성스님 출판기념회



전국 비구니회 회장이자 운문사 승가대학, 대학원장인 명성 스님은 비구니교육사의 산증인이다. 스님의 가르침을 담은 책이 제자들에 의해 발간돼 출판기념회가 9월 27일 열렸다.

운문사 승가대학 학인과 동창회 스님 500여 명은 운문사 경내에서 <매사에 진실하라>를 비롯한 명성 스님의 법문집과 <꽃의 웃음처럼 새의 눈물처럼> <후박꽃 향기> 등 3권을 불전에 봉정하는 봉정식을 개최했다.

스님들은 "40년간 운문사에 주석하며 1700여 명의 제자와 13명의 전강제자를 배출한 비구니 교육에 헌신한 명성 스님의 뜻을 기리고 나누기 위해 법문집 등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법주사, 금오 스님 추모 42주기 다례재



9월 24일 법주사에서는 불교수행관 상량식이 개최됐다. 금오 스님 추모다례제 이후 참여한 대중스님들이 불교교육 활성화를 서원하고 있다.

속리산 법주사(주지 노현)는 9월 24일 태전당 금오 대종사 추모 42주기 다례재와 불교수행관 상량식을 봉행했다.

이날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금오 대종사 다례재는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월서 스님, 법주사 회주 혜정 스님 등 문도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다례재 후 스님들은 경내 금오 대종사 부도탑을 참배한 후 스승의 뜻을 기렸다.

법주사 회주 혜정 스님은 금오 스님의 유훈을 회고하며 "갈수록 금오 스님의 모습이 확연하고 그 음성이 더욱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너무 귀중한 오만교육을 내리셨고 그 어느 선사보다도 소중한 선의 진면목을 간직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며 "유훈에 따라 촌각을 다퉈 열심히 정진하자"고 말했다. 이어 신축중인 법주사 불교수행관 신축 현장에서 상량식이 봉행됐다. 불교 수행관은 법주사의 오랜 숙원 사업인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건립되며 5950㎡(1800평) 대지 위에 총공사비 38억8000만원을 들여 연면적 1364㎡로 지상1층(한식목구조), 지하1층(철근 콘크리트조)로 신축된다. 현재공정율은 80%로 올 연말 완공하여 내년 개관할 예정이다. 혜철 충청지사장

조계사 도심포교 100년 미래 전망

2~10일 사진전 · 음악회 · 생활실천운동 '꽃이 되어요' 선포식

서울 조계사(주지대행 토진)가 창건 100주년을 맞아 도심포교의 과거를 회고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법회와 전시회 등의 행사를 연다.

2~10일에는 도심포교 100년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는 사진전과 사보(寺報)전을 조계사 앞마당에서 진행한다. 5~7일 낮 12시 30분에는 시민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해 문화공간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나선다. 8일에는 인연 맺기 신도 원적봉안 불사, 10일에는 도심포교 100년 기념식과 함께 생활실천운동 '꽃이 되어요' 선포식을 개최한다. 생활실천 운동은 행복을 나누고(布施), 다정하게 말하며(愛語), 남을 돕고(利行),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자(同事)는 뜻으로 사섭법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운동이다.

조계사는 또 24일까지 '이루어지는 조계사' 를 슬로건으로 '2010년 부처님오신날과 조계사', '기도하는 조계사', '향기가 있는 조계사' 등 조계사와 관련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공모한다.

조계사는 조계종총무원 직할사찰로 한국불교의 중심지다. 33개에 이르는 신행단체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10만 신도를 자랑하는 조계사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사찰 중에 한 곳으로, 외국인 관광객만 해도 일일 500여 명이 들러 한국의 불교와 불교문화를 접하고 있다.





포교1번지 조계사에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연등을 장엄한 모습(위).
불교1번지 조계사 경내는 가건물과 주차장 등이 어수선하게 자리잡고 있다.

'불교 1번지' 이름 무색한 외형

하지만 조계사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외형으로 그 위엄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조계사 주변의 불교용품점과 일주문 옆 신도회관은 어둡고 정돈되지 않은 모습이다. 경내 곳곳의 신도회 사무처와 접수처 등으로 쓰는 가건물고 천막, 주차장은 어수선한 느낌을 준다. 2009년에 세운 8각10층석탑과 사적비는 전체 공간에 비해 커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조계사 측은 석탑 건립을 시작으로 사찰 주변 경관정비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빠르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내에 10 · 27법난 역사교육관 건립을 추진과 맞물려 주변 정비는 더 늦춰지고 있다.

신도들은 조계사 경내와 주변을 공원화해 인사동과 경복궁을 잇는 한국 전통 문화벨트로 꾸며 도심 속 사찰의 정취를 살리겠다는 원력불사에 힘을 모으고 있다. 창건 100주년을 기점으로 한국불교의 중심 도량으로 우뚝 서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절실할 때다.

이상언 기자

월정사서 新 문예운동 꿈틀

15일 '새로운 문예운동과 시음송한마당'

평창 월정사에서 새 문예운동이 시작된다.

평창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는 10월 15일 '제1회 새로운 문예운동과 시음송한마당'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근대세계와 문명의 위기 속에서 '지금 여기' 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대안 있는 삶에 대한 전망과 생명의 가치를 되묻기 위한 시도로 마련됐다.

행사는 제1부 '문명의 위기와 새로운 문화운동, 그리고 한국시가의 현대화 가능성' 을 주제로 10시 경내 동별당에서 열리는 학술세미나와 오후 6시 50분 경내 특별무대에서 열리는 제2부 '비단 깔린 장바닥에 울려 퍼지는 소리의 꽃 한송이' 주제의 시음송회로 구성된다.

학술세미나에는 홍용희 경희사이버대 교수('문명 전환기, 새로운 문예운동과 입고출신'), 이성희 시인('동아시아와 예술문화와 흰 그늘의 길'), 이도흠 한양대 국문과 교수('한국시가의 음악성과 그 현대화 가능성'), 임동확 한신대 교수('왜 낭송이 아니고 음송인가')가 주제발표자로 참석한다.

제2부 시 음송회에서는 이애주 서울대 교수와 홍성담 화백이 '생명과 평화를 위한 춤' 을 통해 '영가무도' 와 함께 즉흥적 그림 그리기 등을 선보인다.

조동섭 기자

강제 종교교육 이제 그만!!!

KCRP '학생인권조례' 김상곤 교육감 초청강연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종교사립학교에서의 강제적인 종교교육에 실질적인 제동이 걸렸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9월 28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주최로 열린 '학생인권조례의 사회적 의미와 종교인권' 초청강연회서 이번 조례 공포의 의미를 설명하며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조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경과를 설명한 뒤 "체벌금지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관한 조항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며 "종교의 자유 등을 명시한 헌법정신이 살아있는 교육현장을 만들고 그러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제정케 됐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종교사학이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됐더라도 대부분 정부의 재정지원을 80% 이상 받기 때문에 공교육이라는 기본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며 "향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협의해 세부 규칙과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김 교육감에 이어 류상태 목사가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류 목사는 '학교종교자유와 인권신장을 위한 제언' 을 주제로 보조강연하며 △상급학교 진학시 종교를 우선 고려 △특정 종교교육을 원하는 학교를 자립형 사립학교로 전환 △학생들의 종교교육 선택권 보장 △객관적인 종교교육 시행을 교육현장에서 학내 종교자유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했다.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그 무엇보다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개별 종립학교들이 교사 채용 등에도 종교편향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교육청에서 시정공고를 내리고 관리감독을 해야 함에도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100자 뉴스

동국대 대학평가 17위 기록…11계단 상승

동국대(총장 오영교)가 중앙일보가 실시한 '2010 대학평가' 에서 17위를 기록해 지난해(28위)보다 11계단 상승했다. '인문사회 중심대학' 순위에서는 6위를 차지했다.

동국대는 올해 평가에서 지난해 31위였던 국제화 부문이 5위에 랭크되는 등 전체적으로 고르게 약진했다. 하지만 △교육여건 · 재정(35위) △교수연구(34위) △평판도(22위) 등에서 취약점을 보였다. 특히 취업률은 79위에 그쳐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49위를 기록했다. 조동섭 기자

화쟁위 봉은사 보고서 10월 중순으로 연기

9월 말로 예정됐던 화쟁위원회의 봉은사 직영사찰 관련 보고서가 10월 중순으로 연기됐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는 최근 "총무원과 직영사찰과의 관계 조정, 직영사찰 · 도심사찰로서의 봉은사의 역할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제안이 담긴 보고서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 봉은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태고종 원각사 10일 반야복지원 개원

태고종 서울 원각사(주지 대각)는 10월 10일 오전 10시 반야복지원 개원식을 개최한다.

반야복지원은 외국인 노동자와 불우한 이웃들을 위한 8개의 치료실과 3개의 상담실을 갖추고 침 · 뜸 치료 등 지친 몸을 돌볼 수 있는 의료서비스와 심리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02)763-5214 조동섭 기자

조계종 직지사서 교구본사주지협 회의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제12차 회의가 9월 28일 김천 직지사(주지 성웅) 설법전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2년 임기로 되어있는 협의회 회장 성타 스님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차기 협의회 회장 임기는 차기회의 개최 교구본사 주지가 회장직을 2개월에 한번씩 맡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13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의는 화성 용주사에서 개최키로 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조계종 포교원 자살 예방 종책연찬회 15일

불교계가 급증하는 자살 예방을 위한 대안모색에 나선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정호)은 불교여성개발원, 웰다잉운동본부,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자살, 이대로 좋은가-불교적 성찰과 자세' 라는 주제로 10월 15일 오후 2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42차 포교종책연찬회를 개최한다. 이상언 기자

대불청 정우식 후보 선대본 발족 · 혁신발원

대한불교청년회 정우식 후보는 9월 29일 조계사 설법전에서 선대본 발족 및 불청혁신 발원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부장 계성 스님, 조계종 종회의원 정범 스님, 청년회 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우식 후보는 회장 부호로 발심과 불청혁신을 위한 다짐을 했다. 정우식 후보는 주인정신, 도전정신, 구국구세정신의 만해 스님 정신을 구현하고, 구현의 선봉자가 되기위한 불청 도우미가될 것을 다짐하고 "불교를 통해 희망과 안심을 주는 대한민국 대표 시민사회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상언 기자

현지사 소개 그 네번째 이야기
불신관(삼신론) ②

부처님은 마음 안도 아니고, 마음 밖도 아닌, 유무를 초월한 '무아 속 절대계' 에 32상 무량 억종광 빛의 몸으로 여여(如如)히 계신다



◆ **불과(佛果)를 이루면 삼신(三身)을 지닌다**

부처님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단순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직 붓다만이 알고 있는 가장 깊은 영역에 대한 중요한 법설입니다.
불과를 이룬다는 것은 삼신(三身)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신(法身), 보신(報身), 화신(化身), 삼신을 알면 부처님의 위대함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준으로 수행자는 자신의 수행 수준이 완성에 이르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실로 삼신은 불교 교학과 수행지침에 있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신론(二身論, 법신 · 생신)적 불신관은 적멸계(불보살)를 보지 못한 까닭**

〈아함경〉에는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고 하여, 법신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구절들을 근거로 육신을 지닌 석가모니부처님과 법 자체로서의 법신개념으로 구별하는 이른바 이신론이 부파불교를 거쳐 초기대승불교(용수의 대지도론, 중론 관여래품 등)에 수용됩니다. 그러나 생신(生身)은 영원한 몸이 아니고 법신은 영원하지만 우주 그 자체로서 인격이 없어, 그 어느 것도 불신의 완전한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인격적 존재가 아닌 법신으로는 중생구제를 위한 우주적 구원력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극락정토에 계신 아미타부처님처럼 영원한 생명과 인격을 지니신 존재는 화신도 법신도 아니기에 정토삼부경 같은 대승경전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 **삼신론에 대한 경전상 근거**

〈금광명최승왕경〉의 〈분별삼신품〉은 법신, 응신, 화신을 설명합니다. 불멸 후 1천년경 대학승 무착의 〈섭대승론〉과 세친의 〈대승장엄경론〉에서도 각기 명칭만 다를 뿐 붓다의 세 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 **보신불을 친견하지 못하면 우주적 진리의 위대한 불교를 알 수 없다.**

경전은 삼신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논서는 이러한 경전을 근거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도 삼신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설명을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대적정삼매에서 부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억종무량광과 부처님의 보신을 보고, 안으로 육종진동을 체험하여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전에는 그 누구도 삼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영산불교에서는 직접 대적정삼매에 들어 친견한 부처님의 모습을 알리고 부처님의 법설을 그대로 전하고자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미증유한 핵심교설과 부처님의 삼신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 **부처님은 무아 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신다 〈報身佛〉**

현상계의 두 귀로는 들을 수 없는 미묘한 음성, 무량광으로 이루어진 영원불멸의 몸체, 원력과 자비, 지혜와 복덕, 항하의 신통과 위신력이 구족되어 인격과 형체를 지니며 영원한 지복을 누리는 보신불(報身佛)이 있습니다. 보신 부처님은 무아 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시며 32상80종호의 무량억종광의 빛으로 이루어진 인격적 불신입니다. 진불인 법신에 의지하지만 영원한 지복의 몸입니다. 보신의 지혜와 의지로 수천 수억의 화신을 나투어 중생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절대계의 모든 부처님들은 보신불로 계십니다.

◆ **부처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불자를 오도하는 대 망어!**

부처님이 안계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성의 개념만으로 부처님을 말하지도 마십시오. 그 모습은 32상80종호 이상으로 아름답고, 너무도 자비로우며, 지혜는 끝없이 깊고, 그 위신력에 불가능이 없어 불자들이 어떠한 경우라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수행이 되지 않아 보신의 부처님은 물론이고 화신부처님조차 친견할 수 없는 현재의 불교계에 이 진실을 아는 부처님 제자로서 간곡히 알려드립니다. 부처님이 안계신다고 말하는 것은 정법을 훼손하고 부처님을 능멸하는 대망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 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십니다.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II**
(16쇄 | 371면 | 25,000원. 385면 | 25,000원)
-한글 · 영어판 · 일어판 近刊
대형서점 종교서적 부분 6개월 연속 베스트 1위!
30년간 치열한 염불수행을 통해 깊은 삼매 속에서 만난 나의 스승 석가모니부처님! 아난이 2500년을 지나 부처님을 친견하고 삼매 속에서 들은 진실한 이야기!

■ **영혼체 윤회론** (158면 | 10,000원)
깊고 깊은 미개척의 영적 세계, 비밀의 장에서 건네온 우리 자신의 비밀. 겹겹이 겹쳐져 있는 인간의 4개 영체를 소개하고 오랜 비밀이었던 영혼체설을 정립한다.

■ **관음태교, 관음태교에서 천도까지**
(187면 | 10,000원. 311면 | 15,000원)
관세음보살님께서 현신하시어 직접 부촉하신 관음태교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한 인간 실체의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한평생을 좌우하는 태아와 영유아 시기의 교육 방법과, 편안한 사후를 위한 대비책을 제시한다.

■ **칙천무후** (238면 | 15,000원)
불세존의 법통을 이은 가섭존자의 후신이자 동시에 현지사 광명만덕 큰스님의 전신인 칙천무후! 그녀가 불교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되짚어 불교사에서의 그녀의 위치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 자재만현 큰스님 BBS TV 법회 절찬리 방영중!!
(QOOK 550, BTV 521, U+108번)

효(孝)를 실천하는 현지사에서는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미증유한 천도대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효(孝)를 실천하는 현지사에서는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미증유한 천도대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현지사의 천도대재는, 부부 각각의 친 · 외가쪽 조상님 40여명과 인연 깊은 3~40명의 윗대 무주고혼 조상 영가님 모두를 삼매의 힘으로 수배하여 영가의 현주소를 파악, 집전 장소로 데려옵니다. 복위자의 업을 소멸시켜주며 도량과 복위자의 집을 이전보다 더 맑을 정도로 깨끗이 영적인 청소를 해줍니다. 또한 조상 영가님들을 부처님께 공양올린 공덕으로 한단계 높은 곳으로 천도해 드립니다. 네 번이면 무주고혼과 지옥의 영가들을 하늘 천국까지 올려드리는 세상에도 없고 역사에도 없는 희유한 천도재입니다.

현지사 대법회 - 매월 음력 8일, 23일 http://www.hyonjisa.com 영산불교 현지사 춘천 본사 033)243-1787,1795 / 대전 분원 042)525-5325, 5345 / 부산분원 051)554-5150

“몸과 마음이 하나일 때 고통스럽지 않다”

활인선원 단기수련을 가다


안성 활인선원은 9월 19~23일 단기수행자 10여 명, 30 · 100일 단기출가자가 참석한 가운데 단기출가수련회를 진행했다.

“넌 브레이크가 없는 것 같아~!”

한 선배의 농담 섞인 말이었다. 그냥 열심히 산다는 말인가 보다 하고 흘려듣고 말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딘가에 ‘꽝~’ 하고 부딪혔다. 삶에 무감각해진 나는 꾸역꾸역 계속 달렸다. 문득 눈을 떠보니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었다.

불규칙하고 무절제한 생활로 불어난 몸은 삶을 더 힘들게 했다. 아침마다 지하철 출구를 올라가는 계단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추월당했다. 두 다리는 철근콘크리트 같았다.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다.

9월 달력을 붉게 물들인 긴 추석 그동안 미뤄놓은 일들이 쌓여 있었지만 뭔가를 하기 보다는 내 생활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했다. 안성 활인선원을 찾았다. 활인선원은 간화선 · 단식체험 수련회로 잘 알려진 곳인데 다이어트를 위해 찾는 이들이 많다. 나도 그중 하나였다. 브레이크도 브레이크지만 세속적 바디라인을 원하기도 했다. 선원은 9월 19~23일 추석연휴 단기수련을 특별히 마련했다. 단기출가 기간 동안 외부와의 접촉은 완벽하게 차단됐다. 휴대전화, 지갑, 열쇠 모든 것을 맡겨야하고, 묵언을 깨서는 안 된다.

익숙하지 않은 것에서 몰려오는 귀찮음 알 수 없는 피곤함과 졸음은 성질을 돋웠다.

입재식에서 선원장 대효 스님은 “몸과 마음이 하나일 때 고통스럽지 않다. 몸은 여기 있는데 추석빔을 생각하면 되겠냐”고 했다. 마음을 들켜버린 듯했다. 법문은 다양한 비유와 예시가 있어 쉬웠다. 스님은 “자려면 잠이 안 오고, 일어나려면 잠이 오는 것처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안 해야 할 것은 하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며 삼매는 도약이고, 지혜라고 했다. 공감은 갔지만 물음표만 찍혔다. 스님의 법문은 고정된 틀이 없었다. 스님은 “단식은 몸에 낀 독소를 빼는 것이고 몸이 바라는 일이다. 몸과 마음의 조화를 위해 뭐처럼 휴가를 얻은 것이니 완전히 버리고 떠나보면 그 참맛을 알 것”이라고 위로(?)했다.

이튿날, 새벽 3시 30분 기상했다. 도량석, 아침예불, 반야심경과 선원에서 한글로 만든 의식집 <드높은 게송>을 모든 수행자가 함께 목탁을 치면서 1시간 여를 독송한다. 잡생각이 들 때면 게송마저 좇아가지도 못하고 말 때가 있었다. 낯선 새벽 기상에 늘어질 새라 요가, 운력, 보행, 청소, 산행 등이 반복적으로 이어진다. 몸에서 땀이 마를 틈이 없었다.

하루에 스님의 라이브 법문이 2차례 이어지고, 녹화된 법문을 1차례 듣는다.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펼쳐지는 법문은 유쾌한 공감 토크 같다.

“우주를 담을 수 있는 것이 마음인데, 한 번도 못 쓰고 재미없게 산다. 사람들은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도 모르고 되는데로 살려고 한다. 부지런하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잘 되는 것도 아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참선이다. 깨달음은 사실, 진실, 진리다.”

변화된 일상 속에서 나는 벅차기만 했던 일상과 찌들고 매몰된 삶을 돌이켜보게 됐다. 잘 해보려고 해도 쉽게 무너지고 말아 이제는 그조차도 안하고 살아온 삶 속에는 내가 없었다. 내 몸과 마음을 얼마나 가혹하고 괴팍했던가? 활인선원에서는 매 법문이 끝나고 나면 바로 법문의 요지와 느낀 점, 의문점을 써내게 하는데 이것이 이곳 점검법이었다. 스님은 써 낸 점검설문지를 통해 수련회를 체계적으로 꾸려나갔다.

죽염과 하루 두 번 받는 설탕 2스푼으로 생활한지 3일째. 이게 웬일인가? 체중이 줄기는커녕 늘었다. 좌절과 절망이 몰려왔다. 때마침 스님이 따로 불러내어 “이런 저런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법문을) 들어라”고 지적했다. 뜨끔했다. 세속적 바디라인에 끌려 다닌 것에 대한 경책이었다.

무언가 해야한다는 강박관념과 나를 가두는 틀 속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스님은 생활 속에서 ‘알 수 없음’ 에 대한 궁금증, ‘무엇인가?’라는 화두 참구 등을 지도했다.

살을 빼야 한다는 생각도 버렸다. 스님은 “야구 선수가 홈런을 쳐야겠다는 마음이 없을 때 홈런을 치고, 큰 일을 해야한다는 마음이 없을 때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날 다리에 날개다 달린 듯했다. 몸이 가벼웠고 마음도 가벼웠다.

“참선은 아주 쉬운 것이여~. 이건 누가하고 누가 못하는 것이 아니야. 동쪽하늘 보다가 서쪽하늘 보는 것 같은 것인데 그걸 몰라? 모르면 어린애한테 가서 물어봐.”

깨달음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끊임없이 몰아쳤던 생각의 끈이 잠시 놓아질 때가 있었다. 집에 돌아와 생각을 가다듬고 체중계에 올랐다. 놀라웠다.

이상언 기자

인류는 각기 다른 법복 입은 삶의 수행자

도법스님, 4대강 생명평화 대화마당

달라이라마 법문 ‘티베트 불교 첫 걸음’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티베트의 정신적인 지도자 14대 달라이라마(텐진캬쵸)의 법회가 열렸다. 9월 18~19일 양일간 팝라즐로스타디움에서 진행된 이번 법회에는 2만 4000여 청중이 관심을 보였다.

달라이라마는 티베트 불교의 사상적 기반과 대승불교의 정신을 알리는 것 외에도 이 시대에 바른 인류애의 길은 무엇인지 조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달라이라마의 헝가리 방문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


이날 법회에는 2만 4000여 명의 청중이 참여했다.

유럽인들이 달라이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타락한 유럽 가톨릭에 대한 역작용일까. 헝가리의 불자가 10퍼센트 남짓함에도 불구하고 해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마헴사’. 인도어로 ‘무폭력’을 의미하는 마헴사는 달라이라마 삶의 또 다른 이름이다. 달라이라마는 21세기 마하트마 간디에 견주어지는 시대의 성인으로 비춰지고 있었다. 종교가 성인을 만든 것이 아니었다. 달라이라마라고 하는 한 인간의 행적이 비추는 청정한 진실의 목소리가 종교를 초월한 존경심으로 인류의 마음을 다독였다.

가연숙 객원기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타락한 언어입니다. 한국불교의 생명의 강을 만들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말로 감동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삼아서 바로 잡기 위해 불교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불교와 사회의 병리현상에 대한 실천적 해결책은 원효의 화쟁사상에 있습니다”

4대강 생명살림불교환경연대는 9월 29일 조계사 극락전에서 도법스님(사진)을 초청해 4대강 생명평화 대화마당을 열었다. 도법 스님은 대화마당에서 언어의 문제와 한국불교의 불교관과 수행관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불교 시민사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죽은 말들은 상대에게 감동을 전해주지 못할 뿐 아니라 내 삶의 변화시키지 못 한다”며 “말은 자비라고 말하면서 속은 작심하고 죽이려고 한다. 말을 믿을 수 없으면 사람을 믿을 수 없고 사람을 믿을 수 없으면 못 쓰는 사회”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은 “언어를 어떻게 정화, 치유, 살려낼 것인가가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화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언 기자

대원불교조계종 불광사 수륙재



양산 불광사는 9월 28일 창원 진해루에서 국제 수륙대제를 봉행했다.

경남 양산시 (사)대원불교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주지 청봉)는 9월 28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루에서 참회업장 국제 수륙대재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대각교단 총재 가산 스님 등 원로고승 스님, 세계불교승가회 비서장 혜웅 스님, 유네스코 문화담당관 담마라 타나테로, 박찬수 창원시장, 각 종단 종정예하및총무원장 스님 등 2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참석 대중들은 세계인류평화와 국운용창, 잊혀져가는 천안함 참사 46위 용사님들을 중심으로 천도 받지 못하고 육지와 물속에서 떠도는 외로운 넋들과 아귀 등 혼령들을 위로했다.

불광사 주지 청봉 스님은 고불문에서 “2500만 모든 불자들의 가슴 가슴마다 환희의 보리심이 솟아나 청정한 불국정토 이루어 이땅에 부처님 나라 성취하는 참다운 불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불광사 노세주 신도회장은 “우리가 되고 우리가 하나돼 대한민국의 한 민족임을 깨닫고 소속관념과 사명감으로 국민 모두가 애국 애족하는 정신으로 정진하자”고 말했다.

한편, 대원불교조계종은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는 종단이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광진경찰서 법당개원



서울 광진경찰서(서장 이문국)는 9월 16일 법당과 경승실을 개원했다. 광진경찰서 법당이 들어서면서 서울시내 경찰서 전부에 법당이 갖춰지게 됐다. 서울 영화사의 후원으로 개원한 법당과 경승실실장에는 심곡사 주지 화평 스님(광진노인복지관 관장)임명됐다.

이문국 서장은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중 마지막으로 개원하는 법당인 만큼 불심 가득한 법당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대구불교총연합회 창립 발기인대회

대구지역 불교계가 역량 강화를 위해 종단과 승속을 초월한 대규모 연합체 결성에 나섰다.

대구 동화사는 9월 29일 오후 대구 수성구 문화웨딩에서 사단법인 대구불교총연합회 창립 발기인대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법화종, 관음종, 총지종, 일붕선교종. 원효종, 일승종 등 대구 지역 각 종단의 대표자와 신행단체 임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대구불교 총연합회 결성에 뜻을 함께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6기 佛教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0년 11월 10일까지

◆ 개강일시 : 2010년 11월 11일 매주 (금)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성훈따주기 강좌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① 일 정 : 2010. 10. 23(토) 오후 1시부터 ~ 10. 24(일) 오후 6시까지
② 수강료 : 10만원 (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 (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천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313-5047 H·P 010-230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10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 (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한국전통따주기공덕회

‘수효 불교대학’
기초교리반 개강 안내문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수효사에서는 「수효 불교대학」을 개설하며 아래와 같이 ‘기초교리반’ 단기 교육을 실시하는 바,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교육과정은 초심자들과 불자님들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줄 수 있도록 〈불공 올리는 법〉 · 〈사찰예절〉 · 〈수행방법〉 · 〈경전 공부〉 · 〈잘못 알고 있는 불교상식〉 등에 걸쳐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금번 기초교리반의 성과를 바탕으로 차후 ‘중급 과정’과 ‘고급 과정’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 개강일시
•2010년 10월 9일(토요일) 오후 2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수효사 (8층 법당)
❊ 기 간
•16주 (4개월) /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실시
❊ 수 강 료 : 50,000원 (교재비 9,000원 별도)
❊ 계좌번호 (예금주 - 수효사)
•신한은행 110-161-492759
❊ 문의전화 : ☎ 02)313-3060 H·P 010-2301-1233

대한불교 조계종
수 효 사

"틱꽝득 스님 분신은 최상의 항거"

박금표 연구교수 '베트남 근대화에 미친 불교의 영향' 주제 발표서 주장

1963년 6월 11일, 베트남에서 틱꽝득(Thich Quang Duc) 스님이 소신공양을 했다. 당시 친미 · 친가톨릭 성향의 응오 딘 지엠(Ngo Dinh Diem)정부의 불교도들에 대한 탄압에 호소하기 위함이었다. 이 때 도로 한복판에 앉은 스님의 몸에서 불길이 타오르던 사진은 전 세계인들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고, 스님의 소신공양을 두고 자살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박금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는 9월 30일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이 동국대 학림관에서 개최한 학술세미나 '아시아 근대불교의 다양성과 정체성'에서 '베트남 근대화에 미친 불교의 영향'을 주제로 베트남 지엠정부의 불교 탄압과 틱꽝득 스님의 소신공양의 의미를 살폈다.

박금표 연구교수는 "지엠은 반공주의를 기치로 미국을 끌어들여 베트남을 전쟁터로 만들었고, 가톨릭을 기반으로 다수의 종교인 불교를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족벌정치와 부정부패를 일삼았다. 또한 종교박해에 항거하는 불교도들에게 무력을 행사해 시위는 점점 고조되고 있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틱꽝득 스님의 분신은 불교수행자로서 불제자로서 할 수 있는 최상의 항거였다"고 주장했다.

틱꽝득 스님의 분신을 소신공양으로 해석하는 경우와 자살로 해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박 연구교수는 "서구적 사고 혹은 중국적 정서를 기반으로 한다면 스스로의 생명을 끊는 일은 종교 · 사회적 윤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며 "불교에서도 불살생을 중요한 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율장에는 자살을 금지하는 규정도 있다. 그러므로 불교적 정서를 기본으로 스스로의 생명을 끊는 것은 결코 칭송받을 일이 아닐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연구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틱꽝득 스님의 분신이 세상을 일깨운 소신공양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다른 생명을 위해 몸을 버리는 경우였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박금표 교수(위).
틱꽝득 스님의 소신공양 장면(오른쪽).



박 연구교수에 따르면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에 해당 되는 경우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아라한이 몸을 버리는 경우, 둘째는 깨닫지 못한 자가 욕망 때문에 몸을 버리는 경우, 셋째는 다른 생명을 위해 몸을 버리는 경우다.

박 연구교수는 "틱꽝득 스님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심을 발현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경우인데 자타카에서 굶주린 호랑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는 이야기와 공양을 위해 스스로 불에 타 고기를 공양한 토끼 등의 예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틱꽝득 스님이 분신을 했던 시기는 베트남인들이 불교 박해, 독재, 전쟁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던 시대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 계속되는 불교도들의 시위와 정부의 탄압으로 더욱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칠 것인데 이때 승려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박 연구교수는 "<법구경>에는 미움은 미움으로 가라앉힐 수 없고 오직 사랑과 자비만이 미움을 가라앉힐 수 있으며 친절함으로써 사악함을 이길 수 있고, 관대함으로 인색함을 이길 수 있다. 핍박을 가하는 압제자에게 미움, 화, 사악함 등을 인식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자기희생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분신이 소신공양인지 자살인지의 구분이 필요하다면 그 기준은 깨달음을 향해 제대로 발심을 한 인물인지, 나아가서 깨달음에 이르러 정견을 가졌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이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적어도 틱꽝득 스님의 분신은 소신공양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전쟁과 종교탄압 그리고 부정부패라는 3중주의 향연이 고조되고 있을 때 현을 끊은 것이 틱꽝득 스님의 소신공양이었다고 평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뇌과학, 불교복지와 접목 가능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은 불교가 가진 최대의 자산인 정신적 가치를 사회복지에 어떻게 접목하고 보급할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명상과 뇌과학의 불교사회복지적 적용"주제로 9월 28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교육장에서 불교사회복지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최근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붓다브레인>의 역자로 잘 알려진 장현갑 영남대 명예교수가 강연을 했다.

장현갑 교수는 명상이 뇌와 마음에 미치는 영향과 K-MBSR(한국형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의 소개를 통해 명상 및 뇌과학이 불교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밝혔다.

장현갑 교수는 "부처님이 설한 고(苦)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트레스다. 현대인에게 더 이상 항생제가 소용없게 된 이유는 바로 마음의 병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대의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이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하는 것은 '스트레스' 때문이며 이를 '명상'과 '마음챙김'으로 치유를 해야 한다는 것이 장 교수의 설명이다.

장 교수는 "수년간 명상수련한 사람들과 명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명상수련시간과 뇌피질 두께가 비례한다"며 "나이 많은 수련자일수록 현저한 변화가 일어나며 뇌의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 노인의 경우 명상이 전전두피질의 피질연약화 예방에 도움을 준다. 즉, 또렷한 마음을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명상은 치료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한다. 복지가 고통에서 행복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명상은 현대인에게 필요한 정신복지의 핵심"이라며 "불교계 복지는 물질적 지원을 벗어나 명상과 마음챙김과 같은 정신적 지원을 의료 · 교육 · 노인 · 산업현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지도력 · 외교력 거기에 보살행까지

사명성사 열반 400주기 추모학술세미나서 사명대사 재조명



배광식 교수(위).
사명대사 진영.



임진왜란 당시 승병장으로 활약했던 사명대사(1544~1610)가 열반한 지 올해로 400년째다.

사명대사는 전쟁의 종결을 위해 적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와 3차례 회담하고 또 전쟁 후 일본에 사신으로 건너가 조선인 송환을 이끄는 등 외교 전략가로서 큰 역할을 했다.

사명성사 추모대제 봉행위원회는 10월 4일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사명성사 열반 400주기 제1차 추모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사명성사의 삶과 구국애민 정신을 재조명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배광식 서울대 치대 교수가 '사명성사의 수행자적 면모와 그 의미'를 주제로, 박병기 한국교원대 윤리교육과 교수가 '국가지도자로서 사명성사의 위상과 그 현재적 의미'를 주제로, 김승호 동국대 국어교육과 교수가 '국가지도자로서 사명성사의 위상과 그 현재적 의미'를 주제로 발표했다.

배광식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사명성사의 전투와 축성에서 보여준 지도력, 서생포 왜성에서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와 수차례 가진 담판 및 일본탐적사에서 보여준 외교적 능력 등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편이다"며 "하지만 억불숭유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명맥을 잇고 중흥시킨 수행자적인 면모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조명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배광식 교수는 사명대사의 수행일대기를 살피며 그의 수행자적 면모를 조명했다.

유년시절 유학을 배운 사명대사는 학문을 배우고자 13세에 황악산 직지사의 신묵대사를 찾아가 전등록을 읽고 선의 이치를 깨닫는다. 사명대사는 17세에 신묵대사에게 득도한 뒤 18세(1561년)에 봉은사에서 선과(禪科)에 합격했다.

이후 사명대사는 직지사 주지(1573년)로 가기까지 15년간 봉은사에 주석하며 부지런히 수행했고, 틈틈이 사림과도 교류하며 4자(四子)를 배웠으며, 그 후 선종 수사찰인 봉은사 주지를 사양한 뒤 서산대사에게 법제자로 들어갔다(1575년).

배광식 교수는 "이후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발발시(1592년)까지 15여 년 동안 서산대사가 쓴 '선교결'과 몇 개의 게송이나 서(書)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가장 수승한 휴정의 법사(法嗣)로서, 임제선을 표방한 조계종 전통의 선사로 수선안거(修禪安居)와 유행(遊行)을 하는 등 30여 년간 수행생활에 진력했다"며 "전란과 전후에도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은 흔적이 여러 곳에 보인다"고 설명했다.

배 교수에 따르면 사명대사는 통불교를 지향한 조계종풍대로, 당대의 제일 종장인 서산대사의 법제자가 돼 임제선을 근간으로 수행하면서도, 교학에도 밝았고, 정토도 아울렀다.

배 교수는 "사명대사는 배불숭유(排佛崇儒)로 어려움에 처한 조선불교역사의 중심에서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도, 해박한 유학지식을 가지고 사림과 교유(交遊)하며 불교 현창(顯彰)에 진력했다"며 "무엇보다 저자에 뛰어들어 제민제중(濟民濟衆)의 보살행을 했음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밀양 표충사(주지 재경)는 10월 9~10일 '나라 구하기 사명성사(四溟聖師) 열반 400주기 추모대제'를 여는 등 사명대사 재조명 작업을 본격화한다. 조계종 총무원장이 추모대제 봉행위원장을 맡고 26교구 본사 주지 스님들이 봉행위원으로 참여하는 종단 차원의 대규모 행사다.

행사 9일에는 표충사 경내에서 사명성사 백일장이 열리고, 저녁에는 가수 태진아 현철 현숙 다비치 등이 출연하는 자비음악회도 개최된다. 둘째 날인 10일에는 추모제와 함께 성균관유도회총본부가 주관하는 다례제가 열리며 불교식 추모법회와 영산재 등이 함께 진행된다.

이나은 기자

#사명대사(1544~1610)

사명대사는 18세(1561년)에 승과에 응시해 봉은사에서 선과(禪科)에 합격했다. 사명대사는 32세(1575년)에 봉은사 주지로 천거되기도 했으나, 이를 사양하고 같은 해에 묘향산 보현사(普賢寺)에 주석하던 서산대사 휴정(西山大師 休靜)의 문하에 들어가 법제자가 돼 3여 년 모시고 수행을 하였다. 그 후 운수행각 끝에 43세(1586년)에 옥천산 상동암(上東庵)에서 오도(悟道)했고, 퇴락한 오대산 월정사를 중수하기도 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승병을 일으켜 평양성 탈환에 수훈을 세우는 등 승병대장으로서 7년 전쟁을 치르며, 가토 기요마사의 진영으로 여러 번 들어가 회담을 벌이기도 했다. 이때 가토 기요마사가 조선의 보배가 무엇이냐고 묻자, 가토 기요마사의 목이 조선의 보배라고 말해 그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때 사명성사는 일본으로부터 재침을 하지 않겠다는 약조, 조선왕조의 능침을 훼손한 병사의 조선 이첩, 3000여 명의 피로(被擄) 송환 등의 업적을 이루어냈고, 이후 300여 년간 조일교린(朝日交隣)의 길을 열었다.

제39회 전국일붕문도의날

세계불교초대법왕 일붕존자 전법제자 결집 대법회

- 일붕 서경보 존자 치아사리 최초 공개 친견 -

초대의 말씀

귀의삼보하옵고
오곡백과가 무르 익어가는 계절에 국내외에 계시는 일붕문도 여러분들의 사내(가내)에 부처님의 가피와 함께 일붕존자님의 자비로운 은총이 항상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온 인류의 스승이시며 우리의 스승님이신 일붕 서경보 큰스님은 세계불교법왕청 초대법왕을 역임하시고 동국대학교불교대학장과 대학선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경주 불국사 주지, 국가보위입법의원, 유엔전권대사(N.G.O), 철학박사 등 126개 박사 학위 등 수많은 행적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난지 어느덧 15주년이 되었습니다. 전국일붕문도중앙회에서는 일붕큰스님 생존시 부터 매년 10월 10일 전국일문도의날로 제정하고 기념행사를 해 온것이 어느덧 39회를 맞이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0월 10일(양력)이 일요일이 겹쳐 교통이 전국적으로 혼잡한 관계로 하루 연기하여 10월 11일 월요일 오전11시 부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내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전국일붕문도(은,법,조카,손주 상좌 포함)여러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동참하시여 우리의 스승님이신 일붕존자님의 사상을 먼훗날 까지 길이길이 빛낼 수 있도록 법석을 빛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 음 -

◎행사제목 : 제39회 전국일붕문도의날 봉축기념
세계불교법왕청 초대법왕 일붕존자 전법제자 결집 대법회
(일붕존자 제자 인증서 및 메달수여)
일붕존자 치아사리 최초공개 친견

◎일시 : 불기2554(2010)년 10월11일(양력) 월요일 오전11시~

◎장소 : 백범 김구 기념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255번지 효창공원내)

※점심공양 제공 ※주차장 완비



6호선 효창공원역 하차, ①번 출구로 나오셔서, 효창공원 (효창운동장) 방향으로 10분거리입니다.

초 청 인

● 명예회장 : 붕해 현기홍 , 무찰 김태현 , 지산 김노 , 도기 김팔영
● 회 장 : 의륜 서주범(대회장)
● 상임부회장 : 법정 권용원
● 수석부회장 : 화엄 김광옥(봉행위원장), 송산 이종완
● 부 회 장 : 만주 조성수, 법장 송원진, 법공 김필영, 도천 박갑수
영수 송창숙, 연화 주광석, 공심 황진익

● 서울지회장 : 덕산 박창식
● 경북지회장 : 일웅 김철우
● 전북지회장 : 고산 김향운
● 충북지회장 : 정일 신성범
● 경북지회장 : 해동 최승용
● 경기남부지회장 : 대명 정하웅
● 제주지회장 : 대성 송정옥
● 부산지회장 : 삼주 이영교
● 경남지회장 : 청파 안종억
● 강원지회장 : 각운 차우영
● 충남지회장 : 택봉 김재호
● 경기북부지회장 : 법천 박호선
● 울산지회장 : 청호 김영호
● 전남지회장 : 태광 양태선
● 비구니회장 : 보경 한금랑
● 사무총장 : 이붕 서병열
● 대변인 : 법천 유일수
● 사서실장 : 무심 김상현

공익법인 전국일붕문도중앙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93번지 (일붕선원내) 사무처 :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6-17 혜명빌딩 6층 전관 대표전화 : (02)777-0901 전송 : (02)774-1487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약사여래나 관세음보살,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들을 정확히 어떻게 구분 짓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깨달은 분들 같은데, 이렇게 구분 짓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약사여래 부처님만 계속 마음속으로 외우다가 관세음보살 부처님을 외우고, 상황에 따라 바꿔가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려도 괜찮은지요.

A 석가모니 부처님은 약 2600여 년 전 인도의 석가족 출신의 성자로써 진리를 깨달은 분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관자재, 관음 등으로도 불립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관찰하고 듣는다는 뜻이며, 사바세계 중생들이 괴로움에 허덕일 때 관세음보살님을 불러 구원을 청하면 32응신으로 몸을 나투어 구원해 준다고 합니다.

불교공부하는 불자들의 비불교적인 행동이 보기 싫어요
실망하고 포기하면 진짜 공부할 기회 놓치게 됩니다

약사여래는 정확하게는 약사유리광여래 부처님입니다. 병들어 아픈 사람들이 그 병을 다스리기 위해 간절히 약사여래 부처님께 기도하면 정신적 · 육체적 병고를 해결해 주고 회복을 도와줍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무조건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보살님의 지혜와 공덕을 찬탄하고 산만한 마음을 안정시켜 편안하게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밝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 사찰에서는 불교 기본교리 강좌들이 개설돼 있습니다. 불자로서 올바른 신행생활을 하기 위해 이 점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Q 예전부터 절에 다녔지만, 전에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초파일이나, 가족과 여행가서 법당에서 삼배를 드리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다 키워 놓고 나니 이제는 제대로 불교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현재 불교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 공부를 하면서 신심이 더 떨어지는 기분입니다. 불교 공부한다는 불자들이 말로만 탐진치 삼독을 끊는다, 어쩐다 하면서 어찌나 욕심 부리고 성을 내는지, 같은 불자들끼리 서로 욕하고, 스님 흉을 하는 것을 보면 절에 괜히 다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처럼 아무도 사귀지 않고 절에 가서 그냥 절하고 올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불자들이 서로 시샘하고 남편 자랑에 집안 자랑하면서 잘난 척하고, 어떤 유명한 스님하고 친하다느니 어쩌니 하는 모습이 정말 볼썽 사납습니다. 공부하면서 보기 안 좋은 모습만 보고 마음만 상하니 그만둘까 하는 마음뿐입니다.

A 우리는 조금만 자랑 거리가 생겨도 입이 가려워 참지 못하게 됩니다. 주위 친구들의 마음을 미쳐 헤아리지 않고 으스대기나 하고, 같은 도반끼리 이야기 하다가 잠시 자리만 떠도 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에 실망을 하시면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마음자리를 보지 못하고 불교를 중도 하차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불자님이 평소 생활 할 때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 무게를 두게 되면 불자님의 마음이 오히려 더 편하지 않겠지요.

처음에 절에 다닐 적에 부처님 진리의 말씀 따라 행하고 실천하면서 이 세상 사는 날까지 행복하게 또는 나보다 못한 사람은 도와주고 싶다는 순수했던 그 마음을 불교에서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합니다. 이 마음 끝까지 가지고 생활 속에서 수행하는 자세로 도반들과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하면 어느 날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깨달으리라 봅니다.

Q 저는 화를 많이 냅니다. 다른 사람들 보다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화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이 없을까요?

A 한번 화를 내면 백번 도를 닦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나실 때에는 일단 심호흡을 크게 하시고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상황을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자신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내 마음과 같지 않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내 마음을 들여다 보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24시간 자비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성상담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우리야 힘들게 살았제… 즐겁구먼"

사랑법당 탐방
백양실버타운


8월 공식 발족한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문화예술팀 회원들이 그동안 취미생활 혹은 직업으로 했던 예능을 모아, 9월 16일 백양실버타운에 계신 어르신들 앞에서 선보였다.

포교사단 문화예술팀 8월 공식 발족
노인요양시설 백양실버타운 70명 입소

국제결혼회사 대표, 라이브 카페 가수, 정년퇴임 교사, 가정주부, 회사원 등 언뜻 보기에 공통분모가 없을 것 같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중증질환 어른들 요양원에 모여 위문 공연을 했다. 흥겨운 트로트와 민요가 나오고, 살풀이춤과 아코디언 연주가 구성지게 나오면, 쉽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흰머리 어르신들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9월 16일 전남 나주의 백양실버타운(이사장 원일)에서는 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정영균) 문화예술팀(팀장 이현하)의 추석맞이 효사랑 한마당 노인위문공연 잔치가 열렸다.

"이렇게 그냥 지나칠 뻔한 명절에 찾아와서 감사허고, 노래와 창, 춤을 보여줘서 너무 기쁘요."

박선주(남 · 76) 할아버지는 뇌졸중 치매질환을 앓고 있어 움직임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또렷한 말씨로 연신 즐거움을 표현했다.

휠체어에 몸을 기대고, 요양사 손에 의지해 의자에 앉아있는 어른들이지만 노래가 나오자 입가에는 벌써 미소가 피어났다.

"우리야 힘들게 살았제. 일제강점기가 가고 전쟁 통에 자식 키우고 먹고 살기 바빠 언제 저렇게 놀 수 있었나. 하하. 이제는 너무 아파 움직일 힘도 없어. 그랴도 오랜만에 보니 너무 즐겁구먼 잉."

많은 연세에도 말 잘하는 재담꾼으로, 젊을 때 고운 얼굴이었을 이양순(여 · 91) 할머니는 요양사에게 속삭이듯 말을 건넸다.

광주전남지역단 문화예술팀은 이 곳 백양실버타운만 벌써 2번째 방문이다. 이날 방문에는 채송아(불명 백연화), 이훈(불명 정암), 한남아 · 최경수(불명 월천) 불자의 트롯트, 허미라(불명 해월성) 불자의 성주풀이, 명창 곽영자(불명 보리행) 불자의 춘향가, 한경자(불명 보리심) 불자의 살풀이 춤, 이소영 불자 외 3명의 한국무용, 원명심 · 고향희 포교사의 아코디언 연주를 선보였다.

2층 중앙로비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자원봉사로 참여하며 구성진 '성주풀이'를 부른 허미라 불자는 벌써 20년째 라이브 가수이자, 노래학원 강사를 하는 베테랑 소리꾼이다.

"어르신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요. 공연을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힘이 납니다.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참여해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8월 공식 발족한 문화예술팀 18명의 회원들은 그동안 취미생활 혹은 직업적으로 했던 예능을 모아 공연을 준비했다. 이미 이전에도 여러 곳에서 많은 공연을 진행했던 터라 공연은 순조로웠다.

어르신들의 아들, 손자뻘 되는 회원들의 공연은 마치 회갑날의 이쁜 재롱잔치 같은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4명의 불자들이 선보인 한국무용은 공연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정영균 단장은 인사말에서 "많은 포교사들이 자신의 시간을 쪼개 군법당, 소년원, 섬포교, 병원, 장례식장 등에서 봉사활동과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오늘 행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이기도 하지만, 봉사 장소에서 수행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우리들의 행사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더 많은 노력을 통해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행사 후 백양실버타운 이사장 원일 스님(나주 미륵사 주지)은 "인생의 마지막을 병고와 외로움으로 맞이한 어른들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물질적 풍요를 만끽하고 있는 한국사회는 이 어른들의 노고로 만들어진 국가이다. 우리가 조그마한 관심과 지원으로 어른들이 편안하게 마지막 생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며 포교사들의 공연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2008년 개원한 조계종유지재단 백양실버타운은 노인전문요양시설로 치매는 21명, 뇌졸중은 11명, 파킨스, 당뇨, 관절질환 등을 앓고 있는 38명의 어른이 입소해 있다. 입소자격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등급을 받은 분이면 가능하다.

2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백양실버타운에는 매월 동신대 한의대 한방진료와 물리치료, 생활체육협의회 회원들의 어르신 실버체조, 면사무소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목욕봉사, 전의경 어머니회 목욕봉사, 적십자 봉사단 목욕봉사 등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원봉사문의 : (061)333-5621 / 농협 637035-55-000474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한불교대승종
제2기 승려 기본교육

대한불교 대승종에서는 입종자 및 입종예정자를 위한 승려기본교육을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대상자는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교 육 기 간 : 2554년 10월 16일 - 2554년 11월 20일
과 목 : 습의, 법기실수, 예불, 불공, 시식, 초발심자경문, 불교장례의식, 사찰경영 등 승려 기본 소정 과목
동참대상자 : 불기2553년 불기2554년 입종자 및 예정자
교 육 장 소 : 서울 도봉산 도봉선원(불법의 향기와 선기가 흐르는 천년고찰 지방 종도는 숙식 편의도 가능)
신 청 일 자 : 2010년 10월13일 18:00까지
접 수 처 :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
문 의 : 02) 952-1074, H · P 010-9363-7827

※ 대승불교의 근본인 본 종단에 입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554년 9월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
서울 성북구 돈암동 15-1 삼성 B상가 APT 303호

"불교 유신"을 다시 생각하다
『조선불교유신론』 집필 100주년 기념 낭독 및 토론회

"아우여 형이여, 물리지 않는가.
이는 파리소리가 아니라 닭의 울음임을 !"

2010년 올해는 만해 한용운 선사가 『조선불교유신론』을 집필하지 10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만해선사는 민족과 불교의 생존을 위해 불교유신을 주장하였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맞서 불교를 개혁하려는 노력은 항상 존재하였습니다. 휴암스님, 법정스님, 그리고 서경수 · 이기영 교수의 불교유신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불교유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

현재에도 중생들은 고령화, 빈부의 격차 심화, 정신문명의 황폐화, 환경파괴 등으로 빚어진 사회적 모순에 괴로워하며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는 "불교유신"을 다시 생각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전의 유신론을 살피고 오늘의 지침으로 삼고자 합니다.

■ **일 시 :** 불기 2554(2010)년 10월 12일(화) 오후 2시 ~ 5시
■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
■ **문 의 :**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02-732-1209)
■ **내용 및 출연진**
낭독 및 토론회 사회 : 성태용 교수

	만해스님	휴암스님	법정스님	서경수 · 이기영교수
발 제	전보삼 교수	김규칠 상임이사	허우성 교수	이민용 교수
토 론	김상현 교수	김광식 교수	이평래 교수	김경집 교수
낭 독	대중결사 회원	대중결사 회원	현장 스님	청년불자

21세기 한국불교 신유신론 : 금강스님

주 최 :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후 원 : 대한불교 진흥원 · 대한불교청년회 · 미디어붓다



전세계 불교학자 한자리에

일본인도학불교학회 제61회 학술대회 참관기

일본인도학불교학회의 연혁과 현재

일본인도학불교학회(이하 인불학회)는 1949년 도쿄대학 당시 교수진을 중심으로 개최된 제1회 창립회의 이후 1951년에 미야모토 쇼손(宮本正尊) 도쿄대학 교수가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며 정식 발족했다. 인불학회는 그 이듬해 바로 전국학회로 승인되면서 제2회 대회서 75명이 발표했다.

초대 이사장 미야모토 쇼손(宮本正尊)(1951~1983)에 이어, 히라카와 아키라(平川彰)(1983~1991), 마에다 센각(前田專學)(1991~1996, 1999~2003), 에지마 야스노리(江島惠學)(1996~1999), 기무라 키요타카(木村清孝)(2003~2008) 등 일본불교학의 각 시대를 대표하는 학자가 인불학회의 이사장을 맡았다. 현재는 사이토 아키라(齊藤明) 도쿄대학 교수(2008~)가 학회장을 맡고 있다.

인불학회의 회원수는 금년 8월까지 통계에 따르면 2270명이다. 이 숫자는 불교학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 학회로서는 일본 최대규모이다. 그 가운데는 해외연구자도 82명 포함돼 있다.

또, 개인회원 외에 유지회원이라는 단체회원제도가 설립돼, 불교학 관련 학과를 가진 대학이나 불교학 연구를 주로 하는 66개 연구기관이 이름을 올려 놓았다.

학술대회는 개인연구발표 중심이지만, 올해부터는 주최 학교가 독자테마를 결정할 수 있는 특별부회를 설치해 매년 특색 있는 회의로 변모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패널 토론을 도입해 보다 테마 기획성이 높은 최첨단의 연구를 학술대회에 반영하는 방법도 모색했다. 학술대회 결과는 <인도학불교학연구>라는 잡지에 게재된다. 현재 이 내용은 PDF파일로 인터넷에 공개돼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인불학회는 학술사업의 일환으로 학회의 데이터베이스센터가 중심이 돼 인도학불교학논문데이터베이스(INBUDS)와 대장경텍스트데이터베이스(SAT)의 자료를 제공중이다. 이것은 수시로 갱신돼 새로운 학술정보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상세한 정보는 학회 홈페이지(www.jaibs.jp)를 참조.

불교학 뿐만 아니라 인문학 분야를 통틀어서 일본의 학회 가운데 최대 규모인 일본인도학불교학회는 매년 가을 2일간 대규모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61회째를 맞은 올해의 일본인도학불교학회는 9월 10~11일 도쿄(東京)의 릿쇼(立正) 대학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9개 일반부회와 특별부회에서 249명이, 4개의 패널 토론에서 21명이 발표했다.

일반부회는 일반 발표참가자들을 발표주제를 중심으로 분류해 배정한 발표분과이고, 특별부회는 일반적으로 개최하는 학교의 특성 등 학회 주최 측에서 기획한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주제를 구성하는 발표분과이다. 패널발표는 회원들의 요청을 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성하는 것으로 4~5명 정도의 발표자가 특정주제를 다루는 형태이다.

특별부회는 학회 내의 특별 주제로 학회 기간 동안 한 부회가 운영된다. 반면에 패널발표는 학회 공식발표 일정이 끝나는 둘째 날 오후에 진행된다. 2009년의 경우 금강대에서 개최됐던 '<대승사론현의기>와 그 주변' 주제의 논문 4편이 그 중요성 때문에 별도의 패널로 구성돼 다시 발표되기도 했다. 패널 발표는 형식과 시간의 제약이 덜한 편이고, 논문의 게재 여부 역시 해당 패널팀 의사에 따른다.

일본인도학불교학회 일본학회 최대 규모

논문 270편 발표… 한국인 학자 12명 참가

올해 대회에는 270명의 발표자들이 참가했다. 명예교수부터 대학원생 신분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층위의 연구자들이 참여했다. 그 내용 역시 인도학과 불교학에 관련한 동서고금의 사상을 포함하고 있어서 일본인도학불교학회라는 단일학회가 가지고 있는 규모와 그 스펙트럼의 다양성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된다.

그 가운데 한국인 발표자는 12명이었고, 금강대에서 5명이 발표에 참가해 국제교류에 적극적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첫날은 권탄준 교수가 '삼매와 화엄세계의 관계'를, 김천학 소장이 '<화엄십현의사기>에 인용된 일본 초견의 중국화엄문헌'을, 김재권 HK연구교수가 '<증변분별론>에서의 아라야식'을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천학 소장은 주제발표에서 일본의 사본에 인용된 화엄교학의 중요문헌인 <법계관문>이 현재 알려져 있는 것과는 약간 다른 어구임을 통해, <법계관문>의 성립과정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토론에서는 일본의 화엄학 연구을 이끌어온 요시즈기에이(吉津宜英) 고마자와(駒澤) 대학교수로부터 <화엄십현의사기>의 성립년대 확인과 함께 금후 상세한 보고를 기대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일째에는 최은영 HK교수가 '초기중국불교에서의 소승불교 수용'을, 석길암 HK교수가 '진지 · 연지와 이장 · 이애'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두 발표에는 서구의 연구자들로부터 질문과 의견이 줄잇는 등 학회 발표장은 국제적인 분위기로 가득 찼다.

이 외에도 중앙승가대 본각 스님이 '<화엄경>에서의 중도논리'를, 동국대 한보광 스님이 '조선, 정관일선의 정토관'을, 위덕대 이태승 교수가 '<근본중송>에 나타난 실체개념 및 그에 대한 비판'을 발표했다. 일본 각 대학에서 유학 중인 한국 발표자도 다수 있었다.

일반부회와 특별부회는 발표시간 15분, 질문토론은 5분으로 아주 숨 가쁘게 진행된다. 다만, 이런 짧은 시간에 명확한 논지를 제시하는 것은 연구자의 역량과도 관련이 있다. 이런 연구자가 한 곳에 모여 최신의 연구성과를 보고하는 것이 일본인도학불교학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첫날의 저녁시간에는 학생식당을 회장으로 사용해 리셉션이 열렸다. 참가 인원을 정확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발표자와 참가자, 관계자가 추측컨대 300인 이상이 참가했으리라 짐작된다. 회장의 분위기는 연구자들의 연구성과에 대한 이야기로 고조됐다. 우선, 학회 이사장 사이토 아키라(齊藤明) 도쿄대학 교수, 前 회장인 기무라 키요타카(木村清孝) 쓰루미(鶴見)대학 교수(도쿄대학 명예교수)등의 인사가 이어졌다. 학회에 유지회원(단체회원)으로 새로 가입한 금강대 소개를 겸해서 김천학 소장에게도 마이크가 넘겨졌다. 그 자리에서 김천학 소장은 새롭게 회원이 된 것에 대한 결의를 다지어 회장의 참가자로부터 따뜻한 박수를 받았다.

야마구치 히로에(山口弘江,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

한국 불교학계와 인불학회의 현재와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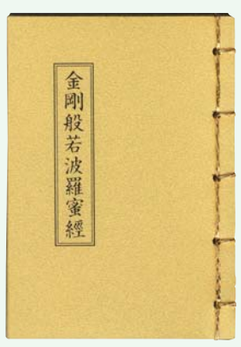
앞서 소개한 것처럼 인불학회에는 많은 해외회원이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인이 점하는 위치는 특별하다. 이것은 그대로 발표자수에도 반영되고 있다. 또한 유지회원은 동국대, 중앙승가대, 원광대, 동아대, 금강대, 대한전통불교연구원, 가산불교문화연구원 등 7개 기관이 등록돼 있다. 2002년에 학회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대학인 동국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은 한일 상호간의 기념비적인 성과이다. 지금까지 한국불교학계는 인불학회의 주요 멤버로서 존재감을 각인시켰지만, 이러한 공적은 주로 일본에 유학해 귀국한 한국내 연구자들의 공적이 크다.

향후에도 이 연구자들의 노력에 의해 한 · 일 불교학계 교류가 촉진될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상호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인재들이 참가할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인불학회는 석사과정 수료 이상의 학력이면 발표권한이 주어진다. 따라서 개인부회에서는 각 대학 박사과정에 재적하는 학생들의 학회 데뷔 발표를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 또한 인불학회 홈페이지에서는 "일본에서의 인도학과 불교학 연구의 발전을 지향함과 동시에 세계 각국 관련분야 학자들과도 연계하여 세계문화의 발전과 공유에 크게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립됐다"고 명기돼 있는 것처럼 인불학회는 학문의 국제교류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사실 인불학회에는 해외 발표 신청자에게는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영어 발표도 가능하다.

인불학회 구성원들은 일본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유학생 뿐만 아니라 의욕적인 한국 내 대학원생이나 서구의 젊은 연구자들이 최신의 연구를 갖고 발표에 참가하고, 학술대회를 통해 상호의 연구 정보를 교환하기를 기대한다.

물론 학회 연회비(6500엔), 대회 참가비(2000엔)에, 일본까지 가는 교통비, 체재비 등 경제적인 부담은 연구자들에게 부담이기는 하다. 하지만 우수학생에게는 해당 대학이 적극적으로 국제 교류를 지원하는 연구 환경이 갖춰진다면, 한일의 최신의 연구동향을 서로 누리고 새로운 학문 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냉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광주·전남 지역 전법단 최초 출범

광주 · 전남지역에 최초로 지역전법단이 출범해 호남지역 포교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조계종 광주전남지역 전법단은 10월 6일 광주 무각사에서 공식 출범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을 비롯해 자문인 전 포교원장 암도 스님, 각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광주 · 전남 전법단은 8월 광주 무각사 불교회관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출범회의를 통해 광주(광주, 담양, 화순, 장성), 전남(목포, 나주, 무안, 순천)으로 활동지역을 선정했으며 인터넷 카페(cafe.daum.net/kjjunbub)를 개설했다. 또, 매월 1회 팀별 모임을 갖고 포교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바있다.

광주 · 전남 전법단장은 광주 길상사 도제 스님(광주), 나주 심향사 원광 스님(전남)이 공동으로 맡는다.

이상언 기자

여수·순천사건 희생자를 위한 영산대재

한국근현대사의 큰 사건인 여수 · 순천사건 희생자를 위한 영산대재가 펼쳐진다.

전남 순천 보승사(주지 영도)는 10월 16일 금당공원에서 여수 · 순천사건 희생자와 임진왜란, 6 · 25전쟁 순국선열에 대한 영산대재와 추모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영산재에는 묘허 스님(단양 방곡사 회주)의 추모법문과 범패의식, 국악공연, 살풀이 등이 함께 진행된다.

영도 스님은 이번 영산대재에 앞서 "한국사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가을 문화축제 호남을 적시다

10월 산사축제 시즌 미황사 괘불재 · 화엄사 영성음악회

가을의 향기를 즐길 수 있는 산사축제 시즌이 돌아왔다. 호남지역 사찰들은 10월을 앞두고 저마다 특색있는 산사 축제를 마련하고 불자들을 맞을 채비에 분주하다.

해남의 미황사(주지 금강)는 제11회 괘불재를 10월 23일 개최한다. 괘불재는 오후 1시 미황사가 소장하고 있는 가로 5m, 세로 12m 크기의 대형 괘불탱화(보물1천342호)를 이운(移運)해 공양을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만물공양, 통천, 수륙재, 괘불봉안, 두레상 한솥밥의 순으로 진행된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오후 6시부터는 인간문화재 박양애 선생의 해남들노래와 함께 지리산 악양동네밴드, 한국가곡협회 회원 성악가, 남도소리꾼 이병채, 가수 허설 등이 신명나는 노래를 선사한다. 이어 미황사 진법군고단의 강강술래, 전통줄다리기 등 어울림 한마당도 펼쳐진다. 오후 10시 미황사 자하루에서는 스님들이 대중들에게 직접 수행이야기를 펼쳐놓는다. (061)533-3521


미황사 괘불재는 매년 5000여 대중이 참석하는 호남지역 대표문화행사다.

같은 날인 23일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는 국내 최대 영성음악회인 2010화엄제를 개최한다. 화엄제는 세계적인 영성 음악가들이 지리산 노고단 아래 화엄사에 모여 전쟁 · 기아 · 인종 등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가능성을 영성음악으로 선보이는 국제음악제다.

'길눈뜨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제에는 Silvia Nakkach(브라질), Michael Knapp(미국), Batsaihan Chultem(몽 골), Ariunbold Dashdorj(몽골), 이애주, 정재일, 바람곶 등이 참가한다.

부대행사로는 음악제와 연계해 23~24일 화엄제 템플스테이가 진행된다. 템플스테이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스스로 치유하고 명상하는 '챈팅의밤', 향기로운 차와 함께 내면의 신성한 에너지를 일깨우기 위한 영성 음악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이밖에 24일 오후 1시부터는 영성 음악가 Silvia Nakkchi와 함께하는 영성 음악 워크숍이 개최된다. (061)782-7600

노덕현기자 · 조동제 전북지사장

"향기가 가득한 문화예술의 축제"

제 3회 선운문화제

선운사(주지 법만)는 시와 음악, 감동이 넘치는 제3회 선운문화제를 개최됐다.

9월 25~26일 '시와 음악이 흐르는 선운사의 가을'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선운문화제에는 5000여 대중이 참가했다. 1400년의 전통을 이어온 보은염 이운식을 시작으로 선운문화제의 식전행사로 범주 스님의 대형 달마 퍼포먼스, 달마도 및 고현(조선대 미대교수) 현대불교회화전 개막식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양희은, 백영규, 선운사 동국사 연합합창단, 고창 국악단 등이 출연해 선운사의 가을을 노래해 감동을 전했다. 이어 도종환 시인과 꽃무릇 시화전에서 입상한 이슬아 씨 등이 선운사와 관련된 시를 낭송해 색다른 감동을 선사했다.


선운사 동국사 연합합창단이 선운사의 가을을 주제로 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오후 진행된 선운 청소년 음악놀이 경연대회에서는 노래와 춤, 악기연주 등 분야에 22팀이 참가해 다양한 지역 청소년들의 넘치는 끼를 발산하는 멋진 무대가 됐다.

또 성보박물관과 만세루 등에서는 백파 스님. 석전 영호 대종사 독립운동자료전과 백파사상연구소 학술대회, 전통차(선운사 차) 시음회, 지역민이 운영하는 직거래장터 등이 개최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환우치료비 전달 광주불교승보회

광주지역 조계종 스님들의 친목모임인 조계종광주불교승보회(회장 일명)은 9월 10일 광주전남 생명나눔실천본부(본부장 현지)에 소아암 백혈병 환우치료비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금은 승보회 회원 20여 명이 지난 10여 년간 월회비의 일정 금액 등을 모은 것이다.

승보회 회장 일명 스님은 "자비실천이란 희망과 고난을 나누는 것이다. 작은 정성이지만 아픈 아이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금을 전달받은 현지 스님은 "어렵고 힘든 환우 어린이들에게 큰 희망을 줬다. 환우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요긴히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지사장

다문화 가정으로 한국에 정착한 람김안씨

"많은 이들도 저처럼 행복하길"

"4년 만에 고향에 가니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부등켜안고 있으니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구나' 생각이 들데요."

다문화 가정으로 한국에 정착한지 8년 된 람김안(여, 38)씨의 친정고향인 베트남 호치민시의 한 아파트는 온통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호치민시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간 람김안 씨가 광주의 불교단체인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의 프로젝트인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도움으로 8월 14일 4년 만에 친정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람김안씨가 모국을 방문하기전 광주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에서 설봉 스님과 함께 밝은 미소를 짓고 있다.

평소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아버지 응엔 반 티, 어머니 람 무오 이씨는 멀리 타국의 시집을 보낸 장녀 람김안씨와 손자, 손녀를 보자 쏟아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랑김안씨의 부모님은 지난 2007년 방문 이후 4년만의 만난 딸의 얼굴을 하염없이 보고, 만지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24일 간 친정나들이는 길지 않았다. 6살, 7살 된 아들과 딸에게 엄마의 나라를 보여주는 일은 무엇보다 즐거웠다. 랑김안씨 가족들은 아이들이 원하는 바다를 보고, 시골 할머니에게도 갔다. 워터파크에서 더위를 식히고, 베트남 스님인 큰삼촌도 만났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엄마 나라의 모든 것을 좋은 추억으로 남게 하고 싶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준 불교단체와 스님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에 남편이 일을 하다 크게 다쳐, 베트남에 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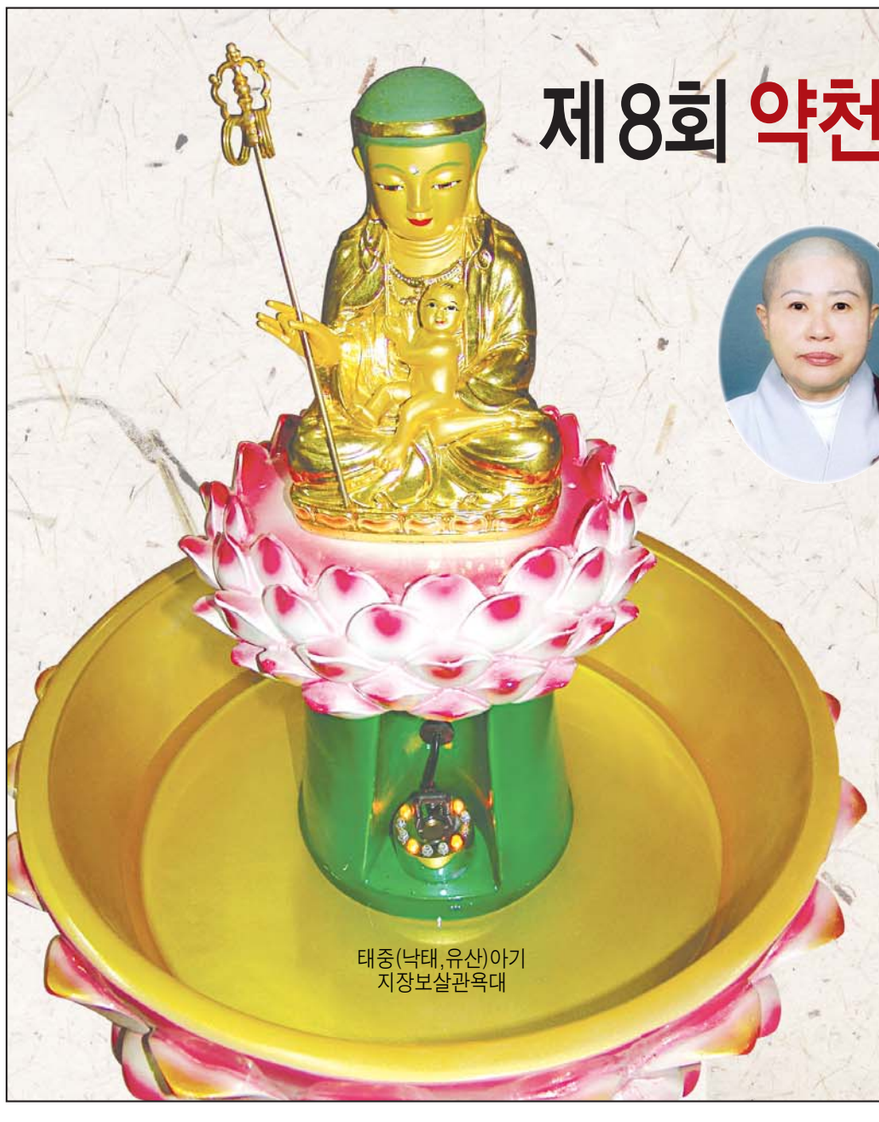
람김안씨는 2003년 한국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식당 사장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31살 다소 늦은 나이에 한국에 온 그녀는, 낯선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는데 힘들었다. 딸을 타국으로 떠나보내면서 "남의 나라 가면 앞만 보아라, 옆을 보지 말고 신념대로 살아라"고 한 어머니 당부의 말은 유일한 힘이 됐다.

어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그녀는 주변과 자신의 상황을 비교하지 않았다. 잘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만족하면서 더욱 열심히 살았다. 그녀는 한국에 와 악착같이 공부를 했다. 그녀가 평소 신앙생활을 하는 광주 대광사의 총무 설봉 스님은 그녀에 대해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며 애들 교육도 엄격하게 시키는 모범주부"라고 칭찬했다.

람김안씨는 조만간 이름을 바꿀 예정이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서다. 람김안은 "외국인 엄마를 뒀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가 진행한 이번 '다문화 가정 친정나들이' 행사는 4월 본지가 후원한 다문화아카데미의 수익금과 단체, 개인후원금을 모아 실시됐다.

양행선 광주 전남지사장



제8회 약천사 태(胎)중 아기(낙태 · 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장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 생겨난 아기인데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태중아기는 부모가 낙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을 움츠리며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낙태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지은 악연의 고리도 끊어져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 '나'에게 의탁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아기는 엄연한 생명이요, 그 생명을 끊은 낙태의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태중아기를 위해 진심을 다한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태중아기를 위해 직접 기도하며 관욕의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일 시 : 2010년 10월 10일 일요일 오전 10시 (음, 9월 3일)
● 장 소 : 약천사 법당
· 기도입재(초재) : 양력 10월 10일 (음, 9월 3일)
· 3재 : 양력 10월 24일(음, 9월 17일)
· 5재 : 양력 11월 7일 (음, 10월 2일)
· 기도회향(막재) : 양력 11월 21일 (음, 10월 16일)
● 기도 동참비 : 태중아기 지장보살 봉안비 30만원, 49재 (당일 천도재는 별도상담)
※ 위패비, 아기옷 (무료)
● 준 비 물 : 사탕, 과자, 분유(우유) 등
※ 7재 회향에는 태중아기 지장보살 관욕을 합니다. (베네적삼,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준비)
● 입금계좌 : 농협 075-02-390890 | 국민 353-24-0119-724 | 예금주 : 이순수

태중아기 영가 천도 방법
1) 성심을 다해 참회하여야 합니다.
2) 49재를 올려서 천도해 주어야 합니다.
3) 지장경을 독송해 주어야 합니다.
4) 지장보살상을 사불 사는게 좋습니다.
5) 부처님을 조성해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6)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등을 밝힙니다.
7) 대승보살계를 받게 하시면 좋습니다.

※ 천도재 준비관계로 미리 접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약천사 방생법회 : 2010년 11월 28일 (음, 10월 23일)

서울 노원구 중계 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 011-9002-8523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 ⑥

선종사원의 가람 구성(1)-

법당의 시대적 부침(浮沈)

외형적인 불사는 무의미한 것

〈佛事〉

선종은 '불립문자 · 교외별전 · 직지인심 · 견성성불'(不立文字 敎外別傳 直指人心 見性成佛)'이라는 4자성어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경전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고, 불상에 대한 신앙과 의존도도 높지 않았다. 또 달마와 양무제 사이에 오고간 '무공덕(無功德)의 문답'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탑과 불상을 조성하고 절을 짓는 등 외형적인 불사(佛事)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들은 경전이나 문자는 껍데기라고 생각했다. 경전은 붓다가 교화적인 차원에서 남긴 방편적인 말씀에 불과하고, 선(禪)이야말로 붓다가 전해 준 핵심 · 진수(眞髓=佛心)로서 경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敎外別傳)고 말했다. 그들은 껍데기(경전)가 아닌 진수(마음)를 탐구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선불교는 교학이나 경전, 지성(知性), 권위, 관념, 형상을 부정했다. 그 속에 묻혀서는 사물의 진실한 속내(진실상)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형상과 권위, 지식과 관념을 타파하고 올바른 시각으로 사물을 직시했을 때, 비로소 참된 사물의 실상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한 수행승이 운문선사에게 물었다. "무엇을 부처라고 합니까?" 수행승의 진지한 질문에 그는 "부처란 다름 아닌 마른 똥막대기야"라고 대답했다. 이 파격적인 선문답은 삽시간에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불교계를 강타했다. 따지고 보면 이 역시 권위에 대한 부정으로서 허상과 진실 사이에 쳐져 있는 장막을 걷어치웠을 때 비로소 실상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당(唐) 중기 이후 선불교가 일취월장으로 흥기, 발전함에 따라 중국불교 전반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두드러진 예가 선종사원의 가람 배치와 구성이었다. 물론 선종사원의 가람 구성은 전통사원의 가람에서 태동된 것이지만, 전통사찰과는 현격하게 다른 것으로서 가히 파격적이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먼저 기존사원의 가람 배치와 구성에 대하여 고찰해 보겠다.

당 중기 선종사찰이 출현하기 전까지 종래 전통사원의 가람구성은 탑과 불전(佛殿)이 중심이었다. 앞에는 탑(塔)이, 뒤에는 불당(대웅전)이 세워져 있는 이른바 전탑후당(前塔後堂)의 구도로서, 율종사원의 가람도(伽藍圖)인 <계당도경(戒堂圖經)>과 낙양의 가람을 정리한 <낙양가람기(洛陽伽藍記)>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앞에는 산문(山門)이, 뒤에는 강당이, 좌우로는 전각이 배치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가람 구성은 오늘날 우리나라 사찰의 가람 배치와도 같다.

그런데 선불교가 율종사원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설계로 선종사원을 세우던 시기, 즉 백장회해(720-814)에 의해 선종사원이 창건되던 초창기에는 탑과 불전(대웅전)이 중심이 아니라 법당(설법당, 강당)이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 탑과 불전은 가람 구성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다. 대신 법당(설법당)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당 좌우로는 선당(禪堂, 승당)과 고원(庫院, 주방)이, 뒤로는 주지의 거실인 방장실이 세워져 있다.

전통사원과 선종사원(총림)의 가람배치에서 현격하게 다른 점은 불전이 서 있는 자리에 법당이 서 있다는 것이다. 불전을 세우지 않고(不立佛殿) 설법하는 공간인 법당을 세운 것인데(唯樹法堂), 역할에서 불전보다는 법당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불상을 모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불전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이것이 바로 선종사원의 최대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선의 본의(本義)와 목적, 취지를 가람배치에 그대로 적용시킨 것으로 기존의 불교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 사상적 바탕은 어디에 근거한 것일까?

<금강경>은 공사상의 대표적인 경전이다. 선종의 제6대 조사인 혜능선사가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이라고 하는 대목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이 경전은 선불교의 근본경전이 되었다. <금강경>은 일체개공(一切皆空)을 역설하므로 유형은 물론 무형의 의식도 인정될 수 없다. 제5장 '여리실견분(如理實見分, 이치에 의거하여 제대로 보라)'에서는 여래의 참 모습은 신상(身相, 형상)에 있지 않다고 선언한다. 신상(身相)이나 허상, 형상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상에서 여래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불가합니다. 세존이시여, 신상에서는 여래의 본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래께서 말씀하신 신상(형상)은 곧 진정한 신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상(身相)이나 형상 등은 허상일 뿐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선불교의 가람 구성에서 불전을 세우지 않았던 사상적 바탕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확실한 경전적인 전거나 사상적인 바탕 없이 불전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법당을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법(法)을 중시한 것이지 형상이나 신상(身相) 또는 32상(三十二相) 등을 중시한 것이 아니었다.

김동리의 단편소설 '등신불'은 단하소불(丹霞燒佛)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단하천연(739-824) 선사가 날씨가 추워지자 불전에 있는 목불을 쪼개어 아궁이에 불을 땠다는 거의 실화에 가까운 고사로서, <전등록>과 <송고승전> 그리고 <조당집> 등에도 기록되어 있다. 처음 이 작품을 읽는 독자들은 소설이지만 적지 않은 충격을 받는다. 사실 이것은 단하천연선사가 혜림사의 불승들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보여준 의도된 행동으로서, 목불이나 등신불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사상의 여실함(유형/목불-무형)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서 이 이야기의 사상적 바탕도 앞의 <금강경> 구절에 있다.

지금은 그 원전의 편린조차 전해 오지 않지만 <백장청규>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 <선원청규>(자각종색 편찬)의 '백장규승송'에는 불전을 세우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불전(佛殿)을 세우지 않고 오직 법당만 세우는 것은 불조(佛祖)로부터 친히 법을 전수받은 당대(當代)의 주지(방장)를 높이기(존숭) 위해서이다(不立佛殿, 唯?法堂者, 表佛祖親受當代爲尊也)."

"산문에 들어서니 불전이 없네./ 법당에는 불상이 없네./ 이것은 곧 심인(心印)을 전수받았기 때문이니/ 마땅히 알지어다. 이가 곧 법왕임을(入門無佛殿, 陞座有虛堂, 卽此傳心印, 當知是法王)."

당대(當代)의 주지(방장)는 친히 불조(佛祖)로부터 법을 전수받은 살아 있는 부처이므로, 그를 높이고 존숭하기 위해서 설법장인 법당을 세우고 불전(佛殿)은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조로부터 직접 법을 부촉 받은 현신불이 부처를 대신하여 법을 설하고, 수행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굳이 등신불을 모시는 불전을 두어야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수행자를 깨닫게 하는 역할 면에서 볼 때 불전은 아무런 유용성이 없기 때문이었다. 반면 법당은 설법을 통해서 수행자를 깨닫게 하므로 더 중요했던 것이다. 기존사찰을 선종사찰로 바꿀 때는 불전을 헐어버리기도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점은 주지 곧 방장을 '불조의 심인을 전수받은 법왕(法王)'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왕이 엄연히 법당에서 지혜의 가르침을 펴고 있는데, 등신불이나 불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다. 이것은 오늘날 부처님 사리를 모신 적멸보궁에는 불상을 모시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말하자면 선종은 가람배치 등에도 선의 정신을 투영한 것이다.

선종가람에서 불전을 두지 않고 법당만 두었던 원칙은 당말까지는 흔들림 없이 존속되었다. 그러나 송대에 이르러 선종이 중국불교계를 대표하게 되면서, 불교와 국가와의 관계, 선종사원의 사회적 역할과 종교적 기능 등이 대두되면서, 선종 특색의 '불립불전(不立佛殿) 유수법당(唯樹法堂)'의 원칙은 점점 흐려져서 불전이 들어서게 된다.

송초(宋初, 북송) 무렵 장로종색(1100년대 활동) 선사가 1103년에 편찬한 <선원청규> 9권 끝에는 불승이 되고자 갓 입문한 행자들을 훈계하는 '훈동행(訓童行)' 장이 있다. 거기에는 "매일 만참(晩參, 저녁 법문)에는 불전 앞에서 부처님께 예배하라"는 한마디가 있는데, 이때 쯤 서서히 선종총림에 불전이 들어서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불전 예배'의 문구가 행자들을 가르치는 '훈동행'장에 있는 것으로 보아, 불전 예배는 아직 선당의 대중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듯하며, 그 규모와 역할, 기능도 크지 않아서 신자들을 위한 전각의 하나 정도로 취급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북송을 지나 남송 때(1127년 이후)에 와서는 국가불교적 성격을 띤 5산10찰(五山十刹) 제도가 생기면서 가람 구성은 법당 중심에서 점점 불전 중심으로 이동한다. 5산10찰 제도는 송나라가 금나라에 충격적인 일격을 당한 뒤 수도를 개봉에서 임안(지금의 항주)으로 옮긴 뒤, 내심 국가 수호를 목적으로 만든 제도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시대 총독부가 만든 본산제도와 같은 것으로서 5산이 전국 사원을 나누어 통괄했다. 일본의 가마쿠라(鎌倉) 5산과 교토(京都) 5산도 남송 5산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남송 5산은 항주 경산사와 영은사, 영파 천동사, 항주 정자사, 영파 아육왕사인데, 5산 가운데 두 번째인 항주 영은사 가람배치도를 보면 불전과 법당의 크기가 비슷하고, 세 번째인 천동사의 가람 배치도를 보면 불전의 크기가 전면 5칸, 측면 3칸으로서 법당과 같다. 선원총림이 본연의 목적 외에 국가 수호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데, 이민족(금나라)에게 수도가 함락되는 치욕적인 상황에서 선종사원이라고 해서 초연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남송시기 선종사원에서 불전의 위상은 법당 아래에 있지 않다. 이후 불전은 점점 커져서 법당을 초월하는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백장회해 이후 400년만의 실지회복이었다.



지금의 천동사 법당. 묵조선의 발상지였으며, 굉지정각 선사가 주석했던 곳. 아래층은 법당이고 윗층은 장경각이다.

선종사원 가람 배치 · 구성은 선정신 투영한 파격

수행자를 가르치는데 불전은 필요가 없었던 것

송대에 이르러 선종의 원칙 흐려져

불전 두지 않고 오직 법당만 세우다

북송(北宋)과 남송의 5산10찰

960년 송나라 건국 이후 1100년대까지 태평성대를 맞이한다. 장기간에 걸친 태평성대는 관료들의 부패와 군사력, 전투력을 약화시켜 여진족(후에 금나라)의 침입에 속수무책이 된다. 장기간 금나라에게 시달리던 송나라는 밀리고 밀리다가 급기야는 1126년 수도 개봉이 함락되면서 왕족과 대신 3천명이 포로가 되어 만주로 이송되었다.

이 치욕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송은 수도를 개봉에서 임안 지금의 항주로 옮겨서 국가재건을 도모한다. 송나라의 수도를 임안으로 옮기기 이전(960-1126)을 '북송'이라고 하고, 옮긴 이후(1127-1279)를 '남송'이라고 한다. 북송과 남송을 통칭 송(宋)이라 하며, 태조 조광윤(趙匡胤)의 성을 따서 '조송(趙宋)'이라고도 한다.

남송의 5산10찰 제도는 관사제도(官寺制度)로서 황제가 주지를 임명했다. 5대 본산 밑에 10찰을 두고 10찰 밑에 갑찰(甲刹)을 두어 전국 사찰을 관장하게 했는데, 그 의도는 선종사원을 부흥시켜서 국가의 위상을 회복시켜 보려고 한 것이었다. 따라서 선종사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역사상 가장 융성했다. 한편 이것은 선종과 왕권이 손을 잡은 한 단면이기도 하다.

■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해외의 불교와 우리의 불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캄보디아 · 베트남 문화유적 답사

한국 전통불교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템플스테이 운영자 및 실무자들이 템플스테이 활성화방안을 찾아 해외벤치마킹에 나섰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 이하 사업단)은 9월 6~11일, 13~18일 두 차례에 걸쳐 불교국가인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찾았다. 행사에는 실무자 64명, 운영자 57명으로 템플스테이 지정 운영사찰 109곳 중 61개 사찰에서 동참했다. 올해 해외연수 참가자는 템플스테이 지정 사찰이 늘면서 참가자가 부쩍 늘었다.

이번 연수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 불교와 우리나라 불교의 차이를 이해하고, 해외 전통불교문화 유적지의 국내 · 외 관광객을 위한 제반 환경 파악, 해외유사 사례를 통한 템플스테이 활성화 방안을 착안하는 시간이었다. 한편으로는 운영자 및 실무자 간에 정보 교류 및 고충 공유는 물론 해외 문화사절단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9월 14일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본 일정이 시작됐다. 씨엠립 시청 문화관광부에서 부시장 및 담당관들의 앙코르유적지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으로 본 행사는 진행됐다.

이어 유네스코 지정 세계 7대 불가사의인 앙코르 와트, 앙코르 톰, 타프롬 사원 등을 찾았다. 9~15세기 앙코르 제국의 수도였던 씨엠립에서 발굴된 유적들은 인간의 힘으로 했다고는 믿기지 않는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이 배어있었다. 신비로움을 간직한 앙코르 와트는 웅장함 이상의 감동을 전했다. 스님들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사진기 셔터를 누르고, 스스로 모델이 되기도 하면서 그들의 위대한 문화유산을 통해 한국 불교문화유산, 문화재와 관광지의 보존과 활용가치 등에 대해서 떠올렸다.

이튿날 참가자들은 왓리찌 보(완전한 왕실 사원)를 방문해 캄보디아 유력종단인 테라바다 종단의 쁜 셈 스님을 친견하고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종훈 스님과 쁜셈 스님은 각국의 문화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불교계의 교류를 약속했다.

캄보디아 일정은 짧았다. 불교계 사단법인 로터스 월드가 운영하는 BWC 아동 복지시설을 방문, 씨엠립에서 남쪽으로 15km 떨어진 동양 최대 크기의 호수인 톤렌삽 호수를 찾았다. '어머니의 젓줄'이라는 톤렙삽 호수에서는 수상족들의 생활을 그대로 볼 수 있었다.

지난 7년간 진행된 연수 중 처음으로 2개국을 방문하게 된 연수단은 15일 서둘러 베트남 하노이로 떠났다. 베트남은 국민의 80%가 유교, 도교, 토착 신앙의 요소가 섞인 대승불교를 믿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드러나는 종교활동을 펼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베트남에서 불교는 20세기 초 민주 사이에서는 인기가 거의 없어졌지만 반 프랑스 민족주의 운동 확산과 함께 불교가 베트남의 전통에 큰 역할을 한다는 뜻에 따라 민족종교로서의 역할을 했다. 특히 프랑스 인들이 물러간 뒤에는 미국의 후원하에 친 가톨릭 정책을 추진한 남베트남의 응오딘지엠 대통령(1955~1963)이 불교 억압정책을 실시하자 이에 대항해 1963년 6월 11일 광다오(Quang Dao) 스님을 위시해 1965년까지 몇 스님들이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을 한 역사가 있는 곳이다.

곳곳에는 프랑스 통치의 흔적이 남은 건물과 커피 문화, 공원의 발달 등도 베트남 만의 역사였다. 자신만이 갖는 문화에 대한 가치의 재인식이 있다면 다양한 콘텐츠로 변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끼게 했다. 연수단은 베트남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하롱베이, 호치민 묘 앞 바딘광장, 일주사(一柱寺)와 진국사 등을 방문했다.

참가자들은 해외 연수기간동안 해외연수 내용과 방향을 비롯한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겪는 고충과 노하우 등을 교류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연수 기간동안 해외연수의 방향과 느낀점,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면서 겪는 고충과 노하우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문화사업단 컨설팅 자문위원 수안 스님은 "우리의 것을 보러 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했다. 답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서울 조계사 일진 스님은 "해외 연수가 각 나라의 스님들과 편안하게 대화를 하면서 각 나라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템플스테이에 대해서는 제주 약천사 성원 스님은 제주도는 지역적 특성과 참가자들이 경비 등으로 인해 제한이 따르는 고충을 토로했다. 스님은"제주특별자치도는 종단의 예산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몇 년 동안 노력을 했음에도 정부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제주도 템플스테이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다. 용인 법륜사 주지 현암 스님은 "템플스테이의 중요성이나 운영에 대한 주지 스님들의 생각이 깨어있어야 한다.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사찰 주지 스님이 운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없으면 실무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도 어렵기 때문이다. 템플스테이를 직접 담당하면서 잔뼈가 굵은 스님들이 템플스테이 운영의 중심에서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관문사 성해 스님은 "템플스테이 지정 사찰이 되면서 운영에 더 많은 제한이 생기면서 개개인에게 감동을 못주는 안타까움이 있다. 템플스테이와 신행위주의 사찰 본래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 모호해지면서 템플스테이의 정체성을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양양 낙산사 묘향 스님은 운영자나 실무자가 자주 바뀌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고령 반룡사 불림 스님은 템플스테이 운영자 및 실무자가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기본 메뉴얼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영월 법흥사 현진 스님은 템플스테이를 훌륭하게 이끌고 있는 사찰을 집중 지원, 육성하고 사찰의 규모와 운영에 따라 융통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9월 6~11일, 13~18일 두 차례에 걸쳐 캄보디아 및 베트남으로 템플스테이 실무자와 운영자 해외연수를 진행했다.



템플스테이 운영자들은 9월 15일 캄보디아 테라바다 종단 큰 스님으로 4대 고승 중 한 명인 쁜 셈 스님을 친견하고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 종훈 스님

"템플스테이 미래는 밝다"



"불교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템플스테이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 종훈 스님은 템플스테이에 대한 꿈과 희망을 확인하고 제시했다.

"국민의 95%가 불교도인 캄보디아는 앙코르 와트를 비롯한 수많은 전통 문화유적을 통해 전 세계인의 발걸음을 잡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문화유산은 종교와 인종, 국가를 넘어 전 인류의 가슴속에 남듯이 1700년 역사의 한국불교문화 또한 전 세계에 알려져야 할 귀중한 유산임을 알고,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템플스테이가 세계로 도약하는 새로운 길을 향해 나가는 계기였기를 바랍니다."

제7차 캄보디아 베트남 연수를 통해 종훈 스님은 포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캄보디아는 내전으로, 베트남 외세에 의해서 불교탄압을 받아온 나라였죠. 한국에서 불교는 위협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불교가 그 동안 대내외적으로 할 일을 못했기 때문이죠. 불교의 존재성에 대한 자성과 함께 한국문화의 중요한 요소로서 분명한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가장 뛰어난 대안이 바로 템플스테이입니다."

종훈 스님은 템플스테이 운영은 일부 국고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포교를 위한 수단이 아님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종훈 스님은 "국고 예산과 관련해 종교 편향에 대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불교인을 위한 것 보다는 전 국민을 위한 마음의 여유와 정신적 풍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인 개발로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불교문화가 한 종교의 문화가 아니라 한국의 우수한 문화자산이라는 것, 우리민족의 뛰어난 문화라는 것이 전 재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종훈 스님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서도 우리나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불교의 위상을 구현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불교국가에 알려 함께 공유하기를 바랐다. 템플스테이를 시행 9년 만에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종훈 스님은 "템플스테이가 종교를 초월해 각광받게 된 것은 전국 운영사찰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성으로 가능했다"고 공을 돌렸다.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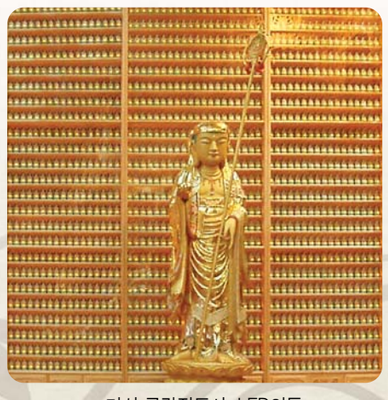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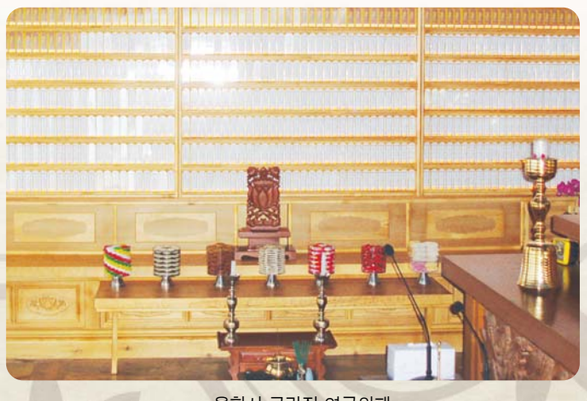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불교가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 오색공단등 | 영가등 | 종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大 小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1.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 ℃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행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2. 경제성 비교

종 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3.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4.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5.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35>

무엇이 도인입니까?
〈道人〉

학승이 물었다.
"밝은 달이 허공에 당당하게 걸려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인가?"
학승이 대답했다.
"아무개입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밝은 달이 허공에 당당하게 걸려있는 그곳이 어디인가?"

問 朗月當空時如何
師云 闍黎名什麽
學云 某甲
師云 朗月當空在什麽處

낭월당공(朗月當空)은 구름도 없는 밤하늘에 보름달이 낭낭하게 떠있는 상태를 말한다. 선가에서는 화두가 성성하게 들려서 화두를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보통 몽중일여(夢中一如)에 도달하기 전에 나타나는 상태이기도 하고, 선객들이 성성하게 화두가 들려서 더 이상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온전히 하나에 몰입된 상태를 말하기도 한다. 낭월당공에 도달하면 조만간 깨달음을 얻게 되므로 축착합착하고 줄탁동시가 오려는 전조 단계이다. 누가 낭월당공의 경지에 오르면 본인은 물론이고 종문의 경사이다.

선사는 오차 없이 지도해야 한다. 우선 낭월당공에 대한 정확한 뜻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학승이 낭월당공에 들어가서 어디 하나에라도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공부를 망치게 되므로 선사의 지도는 항상 법에 맞아야 한다. 그래서 조주 스님은 우선 학승더러 그대의 이름이 무엇인가 물었다. 그때 학승은 또렷하게 자기의 이름을 거명했는데,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이다. 자신의 이름을 낭낭하게 거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낭월당공의 경지와 같다.

이것을 경험하게 해주고는 곧바로 "밝은 달이 허공에 당당하게 걸려 있는 그곳이 어디인가?"하고 낭월당공이 걸려 있는 그곳을 물은 것이다. 이렇게 물으면 학승은 순간 깨어나던지, 아니면 그곳이 어디인가? 하고 새로운 의심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지도하므로 해서 낭월당공에 빠지게 되는 과오를 수정해 주고, 또 공부가 익은 납자라면 순간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16일에 당하면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동쪽은 동쪽이고 서쪽은 서쪽이야."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동쪽은 동쪽이고 서쪽은 서쪽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찾아도 찾을 수 없어."

問 正當二八時如何
師云 東東西西
學云 如何是東東西西
師云 覓不著

16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당시 상황이 나오지 않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다만 절에서 6, 16, 26일은 빨래하는 날이다. 이 날 이가 죽으면 천상에 태어나기 때문이다. 또 하나 16일은 해제 다음날로서 선객들이 사방으로 만행을 떠나는 날로 추측해볼 수 있다.

3개월 수행이 끝나 해제하면 일정 기간 동안 선객들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각자 만행을 떠난다.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어떤 방향이던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발길 닿는 대로 떠난다. 혹은 훌륭한 선사를 찾아가서 궁금한 것을 묻고 깨닫기 위해 목적지를 두고 가기도 한다.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하지 않았는가? 동쪽으로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라. 발가는 것에 답이 있을 수 없다. 공부하는 수행자의 조그마한 멋이 바로 아무 곳이나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설사 가다가 되돌아온다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다. 그게 무슨 인생이냐고 묻지도 마라! 인생의 의미는 원래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동쪽으로 가는 것이 무슨 의미냐 묻지마라
인생의 의미는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도인(道人)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는 도를 향해 가는 사람을 불인(佛人)이라고 한다네."

問 如何是道人
我向道是佛人

도인(道人)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중국에서 불리던 호칭이다. 동양에서 도(道)는 만물의 근원을 말하고, 만물의 근원에 준해 생활하는 사람을 도인이라고 한다. 혹은 도가(道家)적 수도인을 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찌됐든 도를 행하는 사람을 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불인(佛人)은 깨달은 사람이다. 부처(佛)라는 말은 성인의 의미에 가까운 말이지만, 불인은 '도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특별함 보다는 평범한 사람이 도를 깨달은 것을 강조한 말이다.

조주 스님은 도를 향해 가는 사람을 불인(佛人)이라고 했다. 즉, 조주 스님은 동양에서 만물의 근원을 도(道)로 본다면 그 도를 향해 가는 사람이 곧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다. 도(道)라는 말이 도가적 용어라고 해도 만물의 근원을 지칭한다면 불인이 곧 도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이나 법성이 동양에서 말하는 도와 같은 의미이므로 굳이 명칭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보인 것이다. 불교의 통합과 회통의 정신을 잘 보여준 선문답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승이 물었다.
"대저 뭐라고 말하거나 손을 올리거나 발을 움직이거나 하면 모두 학인의 그물 속에 떨어집니다. 이것들을 떠나서 스님께서 말씀해보십시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은 점심을 먹고 아직 차를 마시지 않았어."

問 凡有言句擧手動足 盡落在
學人網中 離此外請師道
師云 老僧齋了未喫茶

여기서 학인의 그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도의 그물이다. 도를 표현하는데 언구나, 손발을 써서 그것을 보인다면 그것은 이미 그물에 걸린 것 일뿐이다. 뿐만 아니라, 묵언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물에 걸린 것은 마찬가지이다. 선문답에서 가끔 거론하는 어묵동정(語默動靜)을 여의고 한 마디 이르라는 것과 같은 질문이다.

흔히 이러한 질문은 선사가 학인에게 내리는 질문이지만 학승이 선사에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다. 도를 깨달은 선사라면 이러한 질문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설사 학승이 선사를 시험하는 것이라면 제대로 답해 학승의 신뢰를 얻는 것이고, 혹 선사의 답변으로 학승이 깨닫는다면 그것은 큰 소득이기 때문이다. 조주선사 역시 망설이지 않고 즉시 답변했는데 참으로 기묘한 답변이 아닐 수 없다.

"노승은 점심을 먹고 아직 차를 마시지 않았어"라는 이 한 마디는 선의 핵심을 정확히 찌른 것이다. 천하의 변재들도, 기연연구나 할을 잘 쓰는 대종장들도 여기서는 할 말을 잃는다. 도대체 조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원래 여기에 사족을 붙이지 못하지만 독자들을 위해 부연 설명을 하자면, "조주 스님의 둔갑술은 제갈공명도 두 손을 든다"고 하겠다.

■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⑯ 참동계

부처님 마음은 본래 일미평등
〈一味平等〉

육조혜능의 법을 이은 제자 43인 가운데 청원행사에게는 전법제자에 석두희천(700~790)이 있다. 석두희천의 저술로는 <참동계> 및 <초암가>가 있다. <참동계>에서 제시한 열린 관계[回互]와 닫힌 관계[不回互]의 개념은 이후 조동선의 기본적인 교의가 됐다. 석두는 마조도일(馬祖道一)과 더불어 강서와 호남의 이대사(二大士)로 알려진 인물이다. <참동계>는 심원한 철학시에 해당한다. 곧 인간의 심성과 그것을 전개한 것으로 세계의 참동성(參同性) 곧 교호매개(交互媒介)의 모습을 구명해 그 근원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한 것이다. 특히 오대의 법안문익(法眼文益: 885~958)은 <참동계>에 간략한 주석을 붙여서 유통시켰다.

"밝음에 본래부터 어둠 있으니/ 어둠의 상으로 헤아리지 말라/ 어둠에도 본래 밝음이 있기에/ 밝음의 형상으로 찾으려 말라/"는 대목은 <참동계>에서 제시한 열린 관계[回互]와 닫힌 관계[不回互]의 개념을 잘 드러내준 것으로서 이후에 동산양개의 <보경삼매가> 및 <동상오위송> 등으로 전승됐다. <참동계>는 5언 44구 220자로 구성돼 있는데 2구씩 운을 맞춘 고시체의 글이다. 이와 같은 문체를 게송이라 말하는데 석두의 시대는 시문이 자못 융성한 까닭에 석두도 5언률의 시문에 의탁해 불법의 도리를 송출한 작품이다.


육조 혜능(慧能, 638~713)

석두희천이 <참동계>를 저술한 이유는 이전 시대부터 있던 도교의 명칭을 빌려 자파의 가르침으로 삼으려는 뜻이 있었다. 곧 <참동계>라는 제목은 위나라 백양(伯陽)이 쓴 <참동계> 3권의 선서(仙書)에서 따온 것이었다. 백양의 제목의 뜻을 보면 천(天)·지(地)·인(人)이 참(參)이고, 그것이 하나로 합해 가이없는 것을 동계(同契)라 하여 그 원리를 자연에서 빌려온 것이다. 그러나 석두희천의 <참동계>는 그와는 다르다. 단지 말만 빌렸을 뿐 그 내용을 완전히 바꿨다. 즉 석두의 <참동계>에서는 뜻을 오직 불법의 대의인 만법일여(萬法一如)와 연기무생(緣起無生)의 도리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참동계>의 제목인 참·동·계라는 세 글자는 전편의 대의이기도 하다. 참(參)은 삼라만상과 주·행·회향·지(住·行·廻向·地)의 사성(四聖)과 천·인·수라·축생·아귀·지옥(天·人·修羅·畜生·餓鬼·地獄)의 육범(六凡) 등 일체가 각각 차별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동(同)은 일체가 현상으로 보면 각각 천차만별이지만 본체로 보면 주호도 차이가 없는 제법평등의 원리를 지니고 있다. 계(契)는 앞의 참(參)의 차별현상과 동(同)의 제법평등이 상호간에 상즉상입(相卽相入)하는 묘용을 나타낸다. 이리하여 참(參)은 차별적인 만유현상의 모습으로 형상을, 그리고 동(同)은 그 현상의 이면에 깔려 있는 본체로서의 근본을 말하는 바탕을, 나아가서 계(契)는 이러한 차별현상과 그 동일성으로서의 본체를 열린 관계[回互]와 닫힌 관계[不回互]의 원리로 수용하는 차별이 곧 평등이고 평등이 곧 차별이라는 만법의 묘용에 배대된다. 이처럼 석두의 <참동계>는 내용에 있어서 백양의 <참동계>와는 사뭇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 석두는 이러한 만법평등의 원리에 입각해 당시 남돈북점(南頓北漸)이라는 남종과 북종 사이의 상호배격을 일소해 평등일여의 대도를 천명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본 내용을 보면 처음 4구는 사람에게는 근기의 차별이 따로 있을지라도 부처님의 마음은 본래부터 남돈북점이 없이 일미평등(一味平等)하다는 말이다. 이것은 출발부터 당시에 팽배해 있던 남종 및 북종이라는 분별심을 지양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일미평등한 불법의 도리를 일곱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의 근원이 온갖 현상으로 드러나며[一源卽萬派] 온갖 현상은 결국 한 가지 근원이라는[萬派卽一源] 도리를 방편과 진실로서 설명한다.

이와 같은 진실한 깨침은 언설의 현상을 초월한 것으로 그 근본종지를 꿰뚫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몸소 왕삼매(王三昧)의 체험을 통한 부처의 마음은 바로 다름아닌 법은 본래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 법의 동일성이야말로 영원한 불법으로 통하는 열린 관계 '참'과 '동'과 '계'의 본래의 의미를 더욱 확실하게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참동계>가 드러내고 있는 하나의 근원이 온갖 현상으로 드러나는[一源卽萬派] 도리와 열린 관계이면서 동시에 닫힌 관계이기도 한[回互卽不回互] 일미평등의 원리는 이하 동산과 조산에 있어서 오위사상의 기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법원, 사상 2번째로 불교계 총무원장 직무정지가처분 받아들여

비구니 스님의 성추행을 비롯해 종단 소속 사찰을 강제로 강탈하려 하는 등의 행위로 사퇴 압력을 받아오던 '대한불교법화종' 前 총무원장 김용대(법명:혜륜)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주심 최성준 판사)가 9월 8일 총무원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직무정지가처분을 받아들여 김용대 총무원장이 이 날로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대한불교법화종은 종단이 정상화 될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접어들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청인 유종표(법명:원봉)와 이승철(법명:일광)이 법화종 총무원장 김용대에 대해 제기한 '총무원장직무정지가처분'을 받아들여 이날부터 김용대 총무원장은 종단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것은 물론 지난 5월 제18대 총무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당선된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총무원장직에서 정지되게 됐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김용대 전 총무원장이 총무원장 선거 당시 유력한 차기 총무원장 후보인 유종표, 이승철 스님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지난 2010년 1월 28일자로 '종권 정지3년'의 징계처분을 내려 총무원장 출마 자체를 막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이에 불복한 유종표, 이승철 스님이 '징계처분무효소송'을 제기해 유종표 스님에 대한 징계에 대해 "효력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김용대 전 총무원장의 부정선거와 관련, 그동안 드러난 비리에 대해 "정화추진위원회"가 김용대 전 총무원장이 총무원장으로 재직 중 패륜적 행동과 종권의 장기 집권을 막고, 종단의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결성된 정화추진위원회 소속 스님들에 대해 불법적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이유 없다"며 정화추진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어 "그동안 김용대 전 총무원장의 패륜적 행위를 모두 인정한다는 판결을 구하면서 김용대 전 총무원장은 총무원장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징계를 남발하고, 종단을 사유화하기 위하여 불법적 행각을 자행한 것을 인정할 상당한 법적 근거 있어 직무를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법은 중립적 지위에 있는 제3자인 박선주 변호사를 '대한불교법화종'의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직무범위 및 권한을 위임하도록 판결했다.

한편, 이번 8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한 김용대 전 법화종 총무원장은 종단 내 비구니를 호텔로 유인해 강제 성추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것은 물론 김용대 전 총무원장의 최종학력 허위기재(이력서에 기재한 한양대학교 교무처에 조회한 결과 모두 허위로 드러남) 및 승려 수행경력도 허위기재 의혹을 받았었다.

뿐만 아니라 김용대 전 총무원장은 "종단 소속 사찰인 '교헌사'와 '청룡암' '화봉암'을 편취하려다 고소당해 부산지법으로부터 공갈, 협박, 사기죄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대방사 및 흥국사, 은적사, 안정사, 금불사 등 사유 사암을 강탈하기 위해 주지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대한불교법화종 소속 스님들은 지난 2008년 정화추진위원회 (당시 위원장 지성 스님)를 구성해 종단의 정화를 촉구하여 성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비양심적 행위와 패륜적 사기행각의 종지부를 찍고 종단 정상화를 주장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해 오던 중 이날 총무원장 직무정지를 당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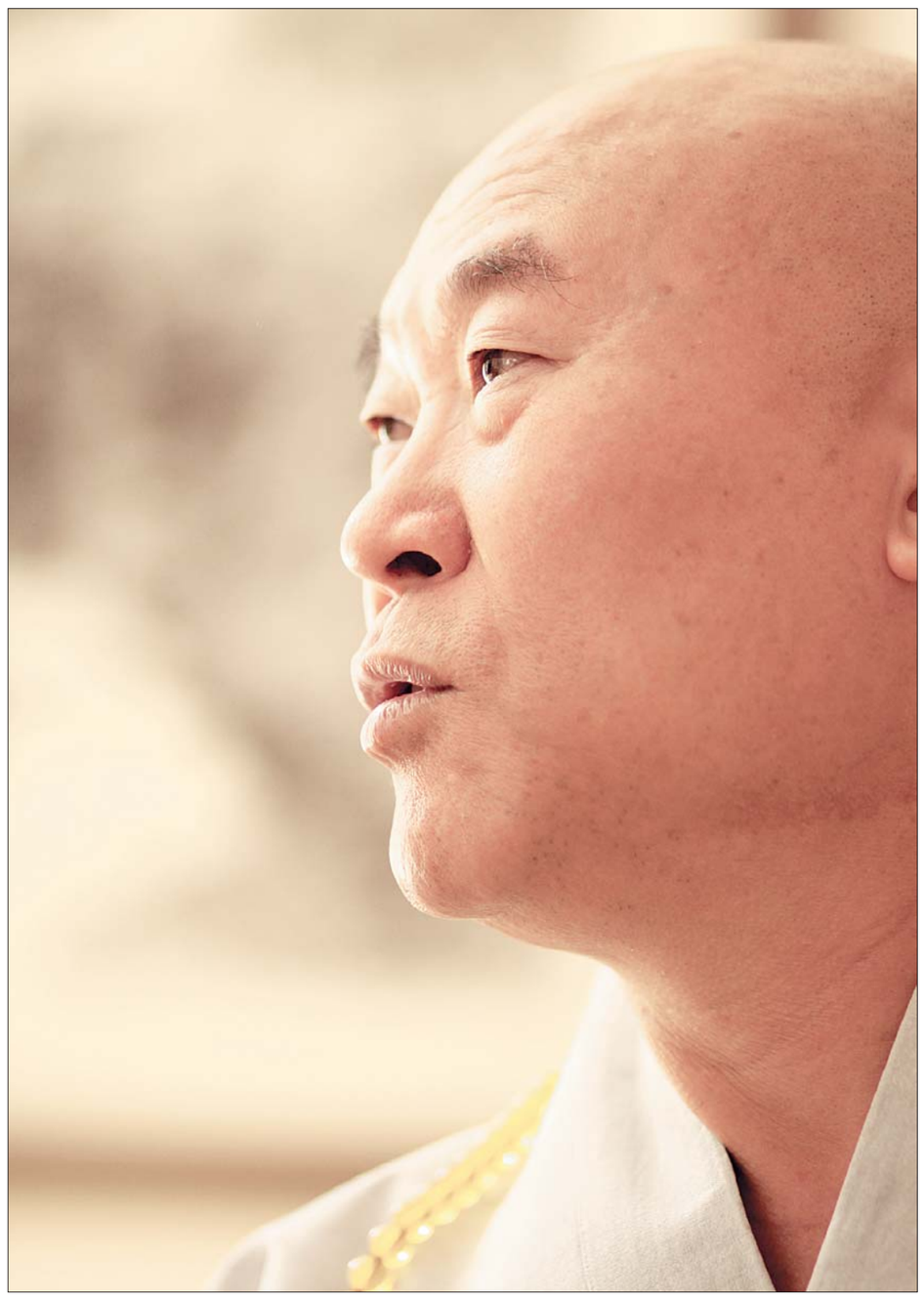
2010년 9월

대한불교 법화종 정화추진위원회 (사무장 017-227-4717)

있는 법 없애지 말고 없는 법 만들지 말라

담양 용화사 주지 수진 스님

불복장의식 역사 · 문화적 가치 '무형문화재'로 충분
10월 23일 담양문화회관에서 최초로 공개 시연 계획



단하천연(丹霞天然) 선사가 어느 날 낙동(洛東) 혜림사(慧林寺)에 이르렀다. 엄동설한이라 날씨가 매우 추웠고 방도 냉골이다. 법당에 들어가 불상을 보니 목불(木佛)이었다. 선사는 불상을 끌어내려 도끼로 쪼개서 불을 피웠다. 원주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며 꾸짖었다. "감히 불상을 태우다니! 당신 미쳤소?" 선사는 막대기로 탄 재를 뒤적였다. 원주가 기가 막혀 물었다. "뭐하시오?" 선사가 천연스럽게 대답했다. "사리를 찾고 있네." "아니 목불에서 어찌 사리가 나온단 말이요?" "사리가 안 나오면 나무토막에 불과한 것인데 어찌 부처님이라 할 수 있겠소?" "…."

옛 선사들의 무애자재한 행각을 얘기할 때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단하천연(丹霞天然 739~824) 선사의 일화다. 선의 입장, 깨달은 이의 안목에서 목불은 절말 나무토막일 뿐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일화로 인해 선을 잘못 알게 되고 불교에 대해 오해를 하게 된다. 진리를 설파하는 옛 선사의 격렬한 몸짓이 공부가 얕은 중생심을 들뜨게 할뿐 진정한 가르침으로 전해지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 투철한 정진은 해보지도 않고 말로만 깨침을 얘기하는 것이다.

깨달은 이에게도 불상(佛像)은 불상이지 나무토막일 수 없다. 사리가 나오지는 않는다고 나무토막에 불과하다고 말한 단하천연 선사의 낙처(落處)는 불상의 진위에 있지 않다. 분별심에 사로잡힌 대중들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는 가풍 속에서 목불 하나 태우는 것은 일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목불이 아니고 마음이다.

예로부터 존귀하게 모셔온 불상은 수없이 많다. 오늘날에도 끝없이 조성되고 있으며, 법당에 여법하게 모셔져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누가 목불상을 나무토막이라 하고 철불상을 쇳조각이라 말하겠는가? 이미 그 형상에 사람의 정성이 깃들고 귀히 여기는 마음이 스며들어갔으니 형상은 형상이 아니다.

불상에 사람의 정성과 귀히 여기는 마음을 이입(移入)시키는 법식(法式)이 있다. 오랜 전통으로 전해오는 이 법식을 불복장의식(佛腹藏儀式)이라고 한다. 사람의 뱃속에 오장육부가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듯 불상의 뱃속에 오장육부를 넣어 생명(가르침)이 숨 쉬게 하는 과정이다. 불상을 조성하고 복장의식을 하는 의의를 <조상경(造像經)>은 이렇게 설명한다.

"오직 절대 영지(靈地)인 마음과 법신향상(法身向上)의 이치 외에는 천하에 사(事)를 버리고 홀로 존재하는 이(理)나, 이를 버리고 스스로 이루는 사가 어찌 있겠는가? 대개 불상을 시설하는 법이 사에 지나치게 가까운 듯도 하나, 그 가운데는 스스로 이가 있어 사문(事門)에 두루 하고, 사는 이문(理門)에 두루 하는 것이다. 선현(先賢)은 이 복장(服藏)하는 물건을 보고 혹 후세 사람들이 사에 집착하여 이를 잃을까 염려하여 먼저 이치를 잡아 해석하고 다음 사의 한 계를 들어 이와 사가 걸림 없는 도리를 밝혔다."

복장의식은 비밀리에 행해져 왔다. 불상을 모시고 점안식 전날쯤 사찰의 스님들과 복장의식을 집전하는 스님들이 모여 비공개적으로 행해 왔다. 불상에 생명을 불어 넣는 신성한 의식이기에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이 관례다.

10월 23일 오후 2시 전남 담양문화회관에서 우리나라 전통불복장의식이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시연된다. 'G20개최 성공 및 남북통일 세계평화 기원 불복장시연회'를 준비하고 있는 수진(守眞) 스님은 불복장의식을 정통(正統)으로 전수받아 많은 사찰에서 불복장의식을 집전해 왔다.

"불복장은 여러 측면에서 그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불상에 생명을 불어 넣는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오장육부가 있는 것처럼 불상의 복장은 오장육부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100가지가 넘게 이입되는 복장물은 모두가 진리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오곡(五穀)은 지혜의 종자를 기른다는 의미가 있고 오보(五寶)는 영원불변한 진리의 상징입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의미도 큽니다. 우리나라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의 40% 이상이 불상의 복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불복장 유물은 불상이 조성될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함께 역사학 민속학 미술사 서지학 인쇄문화사 복식 직물 등 다방면에 귀중한 연구자료를 제공합니다. 불복장물은 그 조성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신앙심과 구도심,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한 시대의 문화를 읽을 수 있는 아이콘들이기도 한 겁니다. 일종의 타임캡슐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불상을 조성하는데 있어 첫 단계는 어떤 불상(보살상)을 어떤 형태로 무엇을 소재로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조성된 불상에 복장물을 이입함으로 그 생명과 신성(神性)을 담는다. 이렇게 완성된 형상이 생명을 갖추고 중생들에게 자비와 진리를 베풀어 주시는 불상이 되어 눈을 뜨게 된다. 불상의 눈을 뜨게 하는 의식을 점안의식이라 한다.

수진 스님은 불상에 생명을 넣어 '나무토막'에서 '부처님'이 되게 하는 과정이 불복장의식이란 점에서 그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불상의 조성 기원은 부처님 당대로까지 올라갑니다. 불복장의 기원도 부처님 입멸 후 탑을 세워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데서 비롯된 것으로 봅니다. 부처님의 사리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진귀한 상징물을 넣어 불상을 부처님과 동격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중국의 음양오행설은 우리의 장기를 금목수화토 오행에 맞추어 간장 심장 폐장 신장 위장의 오장으로 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다섯 방위를 의미하는 오방색의 오보병에 각 13가지의 보물을 넣습니다. 이를 방위와 색을 맞추어 후령통(喉鈴筒)에 넣는데, 이때 오보병 안에는 100여 가지가 넘는 물목들이 들어가고 그 내역서도 함께 봉안합니다. 후령통의 아래쪽은 넓은 원통이지만 위쪽이 목구멍처럼 가는 통으로 이뤄졌는데 이곳으로 영기(靈氣)가 발산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복장에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가는데 사경이나 의류 서적들이 일반적입니다. 불복장 자체가 불상을 법신이 되게 하는 겁니다."

불복장 의식은 간단하지 않다. 경건한 분위기와 여법한 준비, 도량의 청정성 등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티벳에서는 그 나라 방식대로 불복장 의식을 행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에서는 언제부터인지 사라졌습니다. 중국의 일체장경이나 일본의 신수대장경, 속장경 등에 <조상경>이나 불복장 관련 내용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만은 <조상경>이 전해지고 모든 불상에 복장물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불상 조성에 대한 법식이 바르게 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서탑에서 부처님 사리와 장엄구가 무수히 나왔고, 766년에 조성된 지리산 석남사 석조비로자나 불상의 대좌에 사리장치를 넣었던 흔적이 있는 등 그 역사적 연원도 매우 깊습니다."

이미 삼국시대부터 전통을 형성해 온 불복장의식은 조선시대 용허 화악 스님 등에 의해 정리되어 조선후기 호남지방에서 활약한 고승 연담유일(1720~1799) 선사로 이어지고 다시 화담법인(1848~1902) 스님으로 전해졌다. 금해관영(1856~1926) 스님이 화담법인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아 묵담성우(1896~1981) 스님에게 전했다. 묵담성우 스님은 다시 도월수진 스님에게로 그 면면한 법식을 전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수진 스님은 20여 년 묵담 스님을 시봉하며 직접 불복장의식을 전수 받았다. 무엇보다 의식의 정통성을 증명하는 <복장진언>이란 서적이 선가(禪家)의 '의발(衣鉢)'처럼 전해지고 있다. <복장진언>은 <조상경>을 저본으로 지은 복장의식 관련 일체의 내용을 담은 책이다. <조상경>은 전남 담양의 용천사본의 대장일람경(1575), 전남 고흥 능가사본의 관상의궤(1677), 평안도 용강 화장사본의 화엄조상(1720), 경북 상주 김용사본(1746), 금강산 유점사본(1824), 간기가 없는 필사본 등 6본이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유점사본을 중심으로 한 <복장진언>은 금해관영 선사가 1911년에 지은 것으로 묵담 스님을 거쳐 수진 스님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옛 스승들의 말씀에 '있는 법 없애지 말고 없는 법 만들지 말라'는 명구가 있습니다. 노스님(묵담 스님)을 모시면서도 가끔 이 말씀을 듣곤 했습니다. 이미 있어서 전해지는 법은 반드시 그 가치가 있으므로 없애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는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만들어서 혼잡스럽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있는 법을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없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 치료!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부림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이 책은…

- 천연 아미노산의 작용, 만병의 근원인 과산화지질의 퇴치법, 현대병 예방과 회복을 주도하는 미네랄 삼총사, 섹스 미네랄 아연과 차력 미네랄 유기동, 여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 백옥 같은 살결 만드는 비법, 효소의 작용, 각종 질병을 다스리는 방법 등을 상세히 수록하고 있다.
- 당본초, 중약대사전, 본초습유, 식물 명실도고, 영남채약록, 광서중약지, 본초추진, 호남 약물지 등에 기록되어 오랜 세월 동안 질병을 치료하는 귀한 약초로 쓰이고 있는 삼백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 체내 환경을 정비하고 항염 · 항균 · 분해 작용을 하며 세포를 부활시키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효소의 질병 치료 기전을 자세히 정리하고 있다.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능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 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사례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문의 070.7804.5358

‘불복장’은 타임캡슐



는 법을 자꾸 만들어서 분쟁과 갈등을 심화 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의 일은 어떤지 몰라도 불법문중에서는 있는 법을 잘 지키려는 노력이 더 절실하다고 봅니다. 불복장의식만해도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궤에 따라 여법하게 봉행될 때 그 가치가 제대로 유지되고 전승될 것입니다.”

수진 스님은 율사로서 청정한 수행으로 귀감이 되었던 묵담 스님을 시봉하면서 직접 배운 의식과 <복장진언>을 바탕으로 계율에 어긋나지 않게 불복장의식을 집전한다. 스님은 김제 금산사 대적광전과 청도 운문사를 비롯해 서울의 영화사, 구룡사, 공주 성곡사, 일본 큐슈의 대법화사, 브라질 상파울로 길상사 등 30여 사찰의 불복장 의식을 집전했다.

이제 스님은 이 전통을 제대로 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스님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불복장의식을 무형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종교적 가치를 넘어 역사 문화 예술적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는 불복장물과 그 의식은 현재의 생활문화상을 후세에 전하는 은밀하고 정확한 방법이다. 거기에 역사적 전통과 그 전승의 계보가 확실하므로 영산재와 같은 ‘전통작법’으로 평가되기에 충분한 것이다.

스님의 이 같은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용화사 신도회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불교 전통불복장의식보존회’라는 사단법인을 설립했다. 보존회는 <한국불교 전통 복장물 조성 절차>라는 책에 불복장의식의 전모를 담아내기도 했다.

“스승님들이 가르치신 대로 있는 법을 제대로 지키는데 몰두해 왔습니다. 이제 이 법을 전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수진 스님은 불복장의식이 무형문화재로 등록되고 용화사에 전승관이 설립되면 불복장의식이라는 콘텐츠가 더욱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날마다 복장의식을 치르면서 산다. 그것도 하루 세 번씩. 우리가 뱃속을 채우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 말이다. 하루 세끼 밥 먹는 일이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를 상대로 복장의식을 행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매순간 부처를 살리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수진 스님은 용화사에서 동자승 16명과 함께 지낸다. ‘좋은 인연’을 따라 와 용화사 동자각(童子閣)에서 살고 있는 동자승들은 철부지들에 불과하지만 스스로 조석 예불을 모시고 바라춤을 배우고 공부도 열심히 한다. 수진 스님에게는 그들 또한 부처님이고 그들의 입으로 밥알이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경건하고 소중한 복장의식이다.

수진 스님이 낮은 목소리로 부탁했다.

“뭐 쓰실 것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는 법 제대로 지키다가 잘 전해주는 것이 내 몫인데 그마저 부족한 게 많으니 말입니다. 어지간하면 기사 안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만….”

글 · 사진=임연태(시인 본지논설위원)

수진 스님은 ...

전북 완주에서 태어나 덕봉지광(德峰智光) 선사를 은법사로 득도. 묵담 성우 대종사로부터 사미, 비구, 보살계 수계. 해인사 승가대학 대교과 졸업.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해인사, 통도사 극락암, 서울 상도동 백운암 등에서 안거정진.

해동율맥 제9대 율사인 묵담 대종사로부터 예수재, 수륙재, 가사불사, 비구계 보살계 수계작법, 불복장의식, 점안작법 등 직접 전수받음. 담양 사암연합회 회장 등 지역불교를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대한불교원효종 종정을 지낸 법홍(法弘) 스님으로부터 해동율맥을 전수받은 제11대 율사. ‘묵담대종사문집 및 법문 테아프’ 발간. 인도기행문 <부처님 자취를 찾아서> 간행.



한국불교 승려열전

용성진종(龍城震鍾, 1864~1940)②

나라를 잃으니 말도 글도 빼앗겼다. 슬퍼하고 분노하지 않는 이가 어디엔들 없었을까. 그리고 그 참담함을 무엇으로 말할 것인가. 더군다나 감옥에 갇혀서 보니 불전마저 한문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형국, 용성의 한글 역경사업은 거기에서 시작됐다. 부처를 한문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는 의지. 이 땅의 중생들이 고해를 벗어나는 길을 좀더 쉽게 접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 이것이 이 땅의 불교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지만, 용성의 세상을 향한 삶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빼앗긴 이가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는 것은 인지상정. 하지만 그것을 되찾는 방법은 저마다가 다르다. 한글을 통해서 부처를 돌려주었다. 하지만 ‘이 땅의 부처’는 돌려주지 못했다. 진리를 닦아 들어가는 길이 있고, 진리로부터 닦아 나오는 길이 있다. 용성진종으로부터 동헌완규(東軒完圭, 1896~1983)를 거쳐 불심도문(佛心道文) 스님으로 이어지는 문중에, 용성의 유훈십사목(遺訓十事目)이 전해온다. 1940년 입적에 즈음해 후세에 남긴 것인데 요약해보기로 하자.



용성진종 조사.

한문에 갇힌 불전 한글화… 유훈십사목 남겨

첫 번째의 세 가지 항목은 각기 백제불교와 가야불교 그리고 신라불교 초전성지를 가꾸어 전법의 중심 도량으로 삼으라는 내용이다. 넷째와 다섯째는 전불(前佛) 시대의 가람터와 현세 석가모니 부처님의 4대 성지에 대각교당을 설립해 전 인류 만중생에게 성불인연을 짓도록 하라는 것이다. 여섯째는 전국 명산의 주지 소임을 맡을 때 불사를 일으켜 사부대중에게 성불인연을 지으라는 것이고, 일곱째는 번역한 경전과 저술들을 100만권이 넘도록 간행하고 유포해서 미혹중생의 성불인연을 지으라는 것이다. 여덟째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계를 설하되 수계제자에게 자손 중 한 후손을 출가시켜 우리나라 불교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아홉째는 착실한 교화방편을 놓지 말 것을, 열 번째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가리지 말고 출가한 승려와 재가자를 만들라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것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전법해 성불인연을 짓는데 조금이라도 소홀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불교의 본래면목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불법을 널리 전해서 성불인연을 짓는 것이야 불자 본연의 사명이니 말할 것도 없겠지만, 스님은 그 구체적인 방편의 하나로 수계제자의 자손 중 후손을 출가하게 해 이 땅 불교의 기틀을 마련케 했다. 이 대목은 이 땅 불교의 초전성지를 가꾸라는 유훈과 서로 맞닿아 있다. 우리 불교에 대한 자각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일본 제국의 침략이 막바지 극에 달하면서, 문화적 · 정신적 침탈이 가혹해지던 1940년의 일이니 스님이 무엇을 느끼고 있었는지 가히 짐작할 만하지 않는가. 세상에 나와 30년을 걸었다. 우리 말과 우리 글로 우리 불교를 역설했다. 길을 아직 멀고 중생은 아직 지천이었다. 하지만 그 30년 행로를 따라서 길은 놓였고, 중생은 여명을 보았다.

부처님 가르침은 한문의 창살을 벗어났다. 그리고 초전(初傳)의 인연을 되돌아봤을 때, 한국불교는 갇혀있던 미망을 벗어나는 계기를 찾았다. 뿌리를 보았기에 줄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줄기를 따라 잎사귀가 푸르러지는 까닭이다. 초전성지를 가꾸라는 것은 근본을 지키라는 것이다. 근본을 놓지 않았을 때 우리 불교는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할 것임을, 제국 말기 가장 잔혹했던 침탈기에 생의 마지막을 맞이했던 스님은 생각하고 있었다.

스님은 1928년부터 불교잡지인 <무아(無我)>를 간행했다. 이 책은 불전들을 조선어(한글)로 번역해 대중에게 유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잡지의 말미에 스님은 교훈과 교화지침을 수록하여 간행했다. 교화지침은 다음과 같았다.

△생활이 곧 부처님 법이요 부처님 법이 곧 생활인 불교의 생활화(佛敎的生活化) △불사(佛事)로 통하여 온 겨레 전 인류 만 중생 다함께 성불인연 짓는 불교의 대중화(佛敎的大衆化) △주력 · 간경 · 염불 · 참선의 4대 수행으로 이성적 사유의 판단능력인 불교의 지성화(佛敎的知性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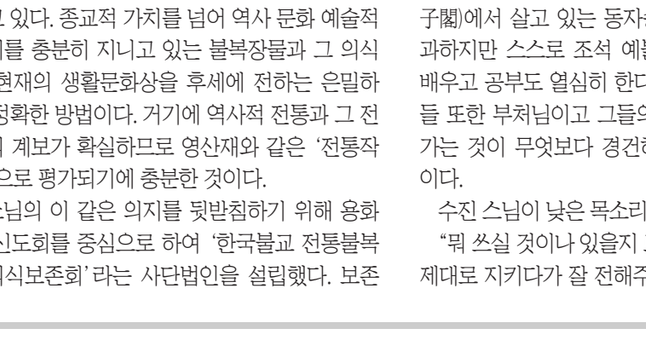
우리 불교의 가장 참담했던 시대 중의 하나를 온몸으로 걸었던 스님의 삶을, 스님 스스로 내걸었던 이 지침보다 더 잘 표현하는 것이 있을까. 하지만 출세간의 도인이 떠났던 속진에 들었으니, 그 곤란함을 말로 다할 수 없었을 것이다. 스님은 그 속진을 헤치고 중생 속을 걷는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그것은 우리 현대 한국불교의 불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이기도 하다.

■ 석길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교수

천등1825?

우리 땅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황토삼백초와 토종식물을
5년 동안 정성껏 발효시킨 효소원액

천등이 칠 때 질소가 녹아 식물이 자라는데 필수이듯이
천등과 도전도 건강 100세의 꿈을 이루는 버팀목 역할을 기대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업무 스트레스로 피곤한 남성
- 갱년기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중년여성
- 집중력이 떨어지는 수험생
-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는 직장인
- 영양보충이 필요한 자취생

※소중한 분들께 드리는 선물로 좋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즐거움을 위한

한의학에 두한족열(頭寒足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는 차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면 건강할 수 있다는 양생법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응용한 목욕법이 반신욕입니다.
휘나핫반신욕기는 가정에서 손쉽게 물없이 슈퍼블랙디스크를 이용한
효능효과가 뛰어난 기능성 반신욕기입니다.

휘나핫 반신욕기

슈퍼블랙디스크란?
자연광물 30여 종의 슈퍼블랙디스크에서 방사되는 400℃의 열이 인체에 안전하게 전달된 T.D.P 반신욕기 휘나핫.
물없이 간편하고 효율 높은 반신욕으로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찾으세요

유사품 주의
반드시 휘나핫브랜드를 확인하세요!

물 없이 목욕한다? 그래도 몸은 더 가뿐하다

♥반신욕,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요즘같이 어떤 경우에도 이겨낼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이 요구되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며 특히 남성은 음주 피로가 쌓이고 여성은 가정 내에서 잡다한 일을 하다 보면 몸이 찌뿌등해지는데, 이런 상태에서 반신욕을 하면 하루의 피로를 쉽게 풀어줍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다는 반신욕법
이 건식 반식욕기는 옷을 입은 채 사우나를 즐길 수 있고, 편히 앉아서 TV나 신문 등을 볼 수도 있어 최근 획기적인 사우나기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 부부는 물론 자녀가 공부를 하면서 피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져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휘나핫, 부족한 2%를 채웠다.
단순 열로만 즐기는 면상발열체(필름 반신욕) 반신욕기보다 한 차원 높은 기능성 반신욕기입니다. 반신욕 애호가들은 그동안 반신욕을 하고도 뭔가 부족하다 싶은 2%를 특정T.D.P 신기술, 신개념의 휘나핫 반신욕기를 통해 마저 채울 수 있습니다.

좋은 품질, 착한 가격의 명품 노니주스 로얄통가노니

100% 원액

서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고가에 판매되었던 노니주스-
로얄통가노니는 남태평양 천혜의 청정함이 살아있는 폴리네시아 통가 왕국의 무공해 화산성토양에서 자란 100% 노니 원액을 사용한 로얄통가노니를 대중화와 가족 건강의 증진을 위해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로얄통가노니는 무가당, 무방부제, 무첨가물의 자연친화적인 안전한 식품으로 특히 공부에 지친 자녀에게 좋습니다.

100% 원액이라 더욱 좋습니다.
잘익은 황백색 노니열매만을 엄선하여 150일 이상 장기간 숙성시킨 후 원액이 자연 그대로 떨어지는 것을 받아내는 가장 좋은 숙성방법으로 100% 원액을 담았습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준 좋은 선물 노니
노니는 제로닌과 프로제로닌이 다른 어떤 식물이나 과일보다도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고급 과일 주스입니다. 그외에도 180가지 이상의 영양을 돕는 성분들 그리고 60여 가지의 성분이 들어 있어 성인은 물론 자녀에게는 발육과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골드



옻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옻 주산지를 헤매던 사람이 지하 250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물을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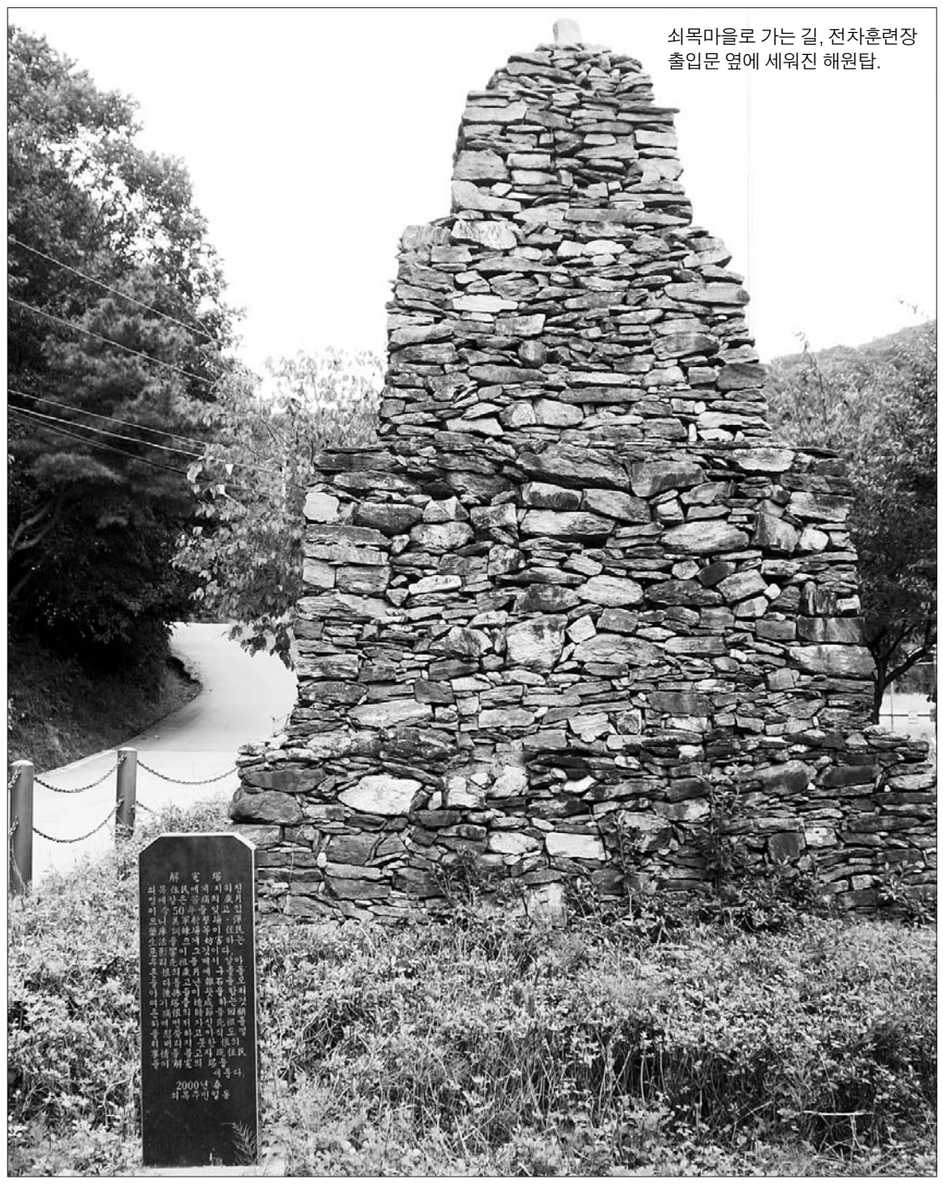
옻에 대한 숨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휘림건강(주) HWIRIM WELLBEING INC.
지사 및 영업사원 모집
02.875.0600
www.hwinahot.co.kr

산과 개울 어우러져 참 아름다웠던 마을

진흙 속의 연꽃, 동두천 쇠목리


쇠목마을로 가는 길, 전차훈련장 출입문 옆에 세워진 해원탑.

한가위 연휴가 끝난 날, 가을햇살이 곱게 내리는 한적한 시골길을 걸었습니다. 야트막한 언덕을 넘어가니 젖소를 한 50마리 정도 키우는 목장이 있고 그 목장을 지나자 곧 오른쪽에 사격훈련장이 나옵니다. 단박에 미군사격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철망에 붙은 경고판에는 붉은 색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DANGER FIRING RANGE DO NOT ENTER'.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위험, 사격장 출입금지'는 한국사람을 위한 배려겠지요. 공연히 푼돈 벌려고 탄피 주우러 들어오지 말라는 말이겠지요.

사격장을 끼고 개천의 다리를 건너니 이정표가 나옵니다. 왼쪽으로 가면 '미2사단캠프호비'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쇠목'이랍니다. 쇠목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길섶엔 환삼덩굴이 서로 엉켜있는 속에 개망초, 개여뀌, 달개비 따위가 서로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아스팔트로 포장된 길은 차량 한 대가 넉넉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쇠목계곡이 나오고 그 계곡을 따라가면 쇠목마을에 닿습니다. 예전에는 이 길이 비포장이었습니다. 미군이 자신들의 땅이라고 포장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아니 자신들의 땅이라니!

길을 따라가니 사람 두길 높이의 돌무더기가 나옵니다. 기가 막힌 사연을 간직한 돌탑입니다. 그 탑 뒤로도 또 다른 미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철망문이 굳게 잠겨있는 이곳 입구엔 영어로 쓰인 큼직한 간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WELCOME TO BAKER RANGE'. 입간판 옆 철망에는 'WEAPON FIRING IN PROGRESS KEEP OUT'이라는 경고판이 걸려 있습니다. 사격장인 듯 보이지만 전차(탱크)훈련장입니다. 훈련장 앞 돌탑은 '해원탑'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 탑 옆의 작은 새김돌(비석)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쇠목주민에게 지워진 멍에 같은 고통의 세월이 금(今) 50년을 잊고 있으니 미군사격장 · 탄약고 · 훈련장 등이 주민생활을 크게 방해하는 악영향이 그것이다. 우리 선조들께서 살아온 한의 세월에 구들돌을 다듬고 난 잡석을 모아 후손들이 뜻을 합쳐 여기 탑을 조성하는 것은 통한의 시절을 회고하여 먼저가신 선조들을 위로하고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한 한의 사정을 풀고자 현주민들이 해원의 탑을 세운다. 2000년 춘(春) 쇠목주민 일동'

마을을 드나드는 길목에 미군부대와 사격장, 탄약고, 훈련장이 있어도 그저 '대한민국'을 지켜주고자 미국에서 부러 온 군대이니 수더분하게 참고 살아온 쇠목마을 주민은 1996년 3월 황당한 일을 겪습니다. 미군이 탱크사격장을 만든다며 마을 농토에 고장 난 탱크를 갖다 놓았습니다. 드나드는 길도 저희네 땅이라며 주민들 마음대로 못쓰게 하는 미군이 이번엔 멀쩡한 남의 농토에 탱크사격의 목표물로 고물전차를 덜렁 부려놓았습니다. 마치 땅따먹기 하듯이 '여기서 저기까지 이번에 우리가 쓴다'하고는 그냥 주인에게 말 한마디도 없고 마을을 드나드는 주민도 생판 모르고 있는 사이에 어느 날 느닷없이 미군이 정하고 주민은 그저 따라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만이 난리가 아닙니다. 평시에도 미군은 전쟁에 버금가는 작전을 벌이는데다가 이젠 미군이 필요하다면 그냥 땅을 바쳐야 하니 이게 전쟁통이 아니고 뭡니까. 주민이 정부에 진정을 냈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이 사용하도록 한국정부가 승인해줬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미군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까. 일본놈이 조선을 식민지로 했을 때도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주인과 협의하는 척은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고 버젓이 국호를 단 이 땅에서 미군이 필요하다면 나라 땅이고 주민 땅이고 뭐고 간에 다 미군이 사용할 권리가 있다니 이건 식민통치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나라에서는 이를 '공여지'라고 하였습니다. 주민들이 똘똘 뭉쳐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동두천 시내 보산동 미2사단본부, 캠프케이시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이 권리를 갖는다는 '공여지'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첫째, 전용공유지인데요, 미군이 배타적 사용권을 갖고 사용하는 땅으로 미군기지, 훈련장, 기타시설 등입니다. 둘째 지역공유지로, 원래의 토지사용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미군이 사용권을 행사하는 땅으로 일종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입니다. 미군 송유관, 전선 및 기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확보한 땅이 여기에 속합니다. 셋째, 임시공여지가 있는데 이는 군사훈련 등을 위해 임시로 미군에게 사용권을 주는 땅입니다. 어떻습니까? 알고 있었습니까? 50여 일을 쇠목마을주민과 동두천의 시민이 힘을 합쳐 '쇠목 미군탱크사격장 신설 반대 및 미군공여지 반환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그야말로 '가열찬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 투쟁으로 대한민국이 미군에게 제공한 '공여지' 문제가 전면에 드러났습니다. 그때까지 '공여지'가 뭔지 또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땅이 공여지로 제공되고 있는지, 또 그 공여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쉬쉬하고 있었으니까요.

쇠목마을의 투쟁으로 미군은 훈련장 계획을 거뒀습니다. 또 1998년 동두천의 공여지 600만평을 땅 주인에게 반환했습니다. 동두천시민연대의 주장에 따르면 아직도 동두천에만 1000만 평이 넘는 미군공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쇠목마을은 대한민국 최초로 미군의 공여지 문제를 사회문제화한 역사적인 마을이며 또 미군상대로 처음으로 빼앗긴 땅을 찾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훈련장 입구에 세워진 해원탑은 그런 사연을 담은 탑입니다. 탑의 문구가 그때의 사연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아 그곳에서 마을로 100m 더 들어간 곳에 2005년 7월에 따로 '주한미군공여지반환투쟁기념비'를 세웠습니다. 2002년 동두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경기도 양주에서 미군의 전차에 깔려 숨진 효순양과 미선양을 추모하는 집회 때 들었던 '촛불'의 형상을 땄습니다. 신영복 선생의 글씨체로 새긴 기념비의 본문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1951년 7월 미군이 들어온 이래 872만평 점유
미군의 마을 동두촌… 미군 범죄 끊이지 않아

산과 개울이 잘 어우러져 참 아름다운 마을이었던 동두천에 1951년 7월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다음해엔 미군기지를 확장하기 위한 작업으로 이곳에 살던 주민을 내몰았습니다. 1956년엔 마구잡이로 공여지를 늘리기 위해 토지를 징발했습니다. 그리하여 동두천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넓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미군기지마을이 되었습니다. 지금 동두천시의 3할에 이르는 872만 평을 미군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미군부대가 들어서면서 원래 이 마을의 중심도 바꾸었습니다. 서울에서 원주로 가던 경원선이 전철화되어 지금의 동두천중앙역에서 쇠목마을로 가려면 이담이라는 마을을 지나는데 옛날에는 이곳이 이 고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미2사단이 보산동에 들어서서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미2사단에만 미군이 1만 명입니다. 기지에 종사하는 이가 5천 명입니다. 동두천 시민이 7만5천 명입니다. 보산동 기지를 캠프케이시라고 합니다. 쇠목마을 가는 곳의 미군기지는 캠프하비입니다. 당연히 이 기지를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캠프케이시 정문앞 거리는 분명 삼거리인데 이곳의 방향표지판은 '2사단사거리'라고 합니다. 그 까닭은 기지 안을 지나면 걸산동이 있어 그렇습니다. 이곳 주민은 통행증이 있어야 드나들 수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미군기지는 동두천 주민의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두천은 미군의 마을입니다. 가게마다 내걸린 영어간판이 이곳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미군기지가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동두천이다보니 이 도시를 떠올리면 이어 '기지촌'이 함께 물려 올라옵니다. 예전엔 저녁이면 캠프케이시에서 나온 미군이 기지 앞 철길건널목(지금은 고가전철화되어 건널목이 없다)을 건너 보산동 기지촌으로 몰려갔습니다. 술집과 유곽이 이들로 흥청 되었지요. 물론 지금은 그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아라크전쟁으로 미군이 빠져나갔고 또 평택으로 기지 이전작업도 있어 한창 흥청 되던 때와는 비교가 안 되게 한산합니다만 그래도 미군을 상대로 성업 중입니다. 지금은 이곳을 '동두천외국인관광특구'라고 부릅니다.

이곳엔 아직도 미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때문에 미군범죄에 거의 속수무책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죽이는 등 미군 교통사고는 400건이 넘어 전체 미군범죄의 60~70%에 이르고 있으나 국내 법원의 재판권 행사건수는 10건에도 못 미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미군범죄 가운데 가장 잔인한 사건으로 기록된 윤금이씨 살해사건으로 이런 불평등 협정을 개정하는 투쟁도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28일 윤씨가 동두천 기지촌 자신의 집에서 미군 마클 이등병에 의해 처참히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기지촌 여성문제와 주한미군범죄 실상이 밝혀지고 미군철수와 함께 협정개정운동이 불붙었습니다. 마클 이병은 어찌되었는지 아십니까? 마클은 협정규정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대법원에서 15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1년 6개월 만에 한국정부로 신병이 인도돼 1994년 5월 천안교도소에 수감됐다가 2006년 8월, 슬그머니 가석방되어 미국으로 내뺐습니다.

쇠목마을투쟁을 이끈 그때의 주민이름은 해원탑의 비석 뒷면에 새겨져 오늘도 '우리 땅, 우리 주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권태원 김종규 조규재 조규범 김규식 이상린 김영도 이희남 최정도 조량환 조욱환 박상덕 이용헌 김병규 이상묵 권배수 송창근 고장식. 참 착한 분들이라 여기에도 올렸으니 많은 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동석 前 민중불교운동연합 의장

특강 영가 찾는 법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역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간단한 원리로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무료공개강좌 - 10월 8일 (금) 오후 2시
1. 조상(귀신)이 발동한 것을 아는 법 : 어느 조상에게 빌어야 되나? - 대.세운에서도 발동한 것을 찾는 법
2. 기도를 하더라도 묶여있거나 장애가 있는 곳에 가서 풀어야 된다.
3. 본 법을 알면 무속인의 주장신도 알 수가 있다.
4. 무속인 보다도 더 정확하게 뽑아낸다.
5. 결혼하면 양가집 조상이 부딪치는 가정
6. 결혼이 안되거나, 결혼을 해도 풍파가 많은 가정.
3개월 과정 -기초가 없으신 분은 보강해 드림
※ 명리,육효학 기초반 (주 · 야) 모집
백 암 역 리 원
02) 597-1101. 011-9150-2284
선릉역 1번출구 신한은행우회전 직진150m(세븐일레븐 골목안)

사주 명리학 강의
사주 명리학에 처음 접하거나, 입문 후 열심히 하셨으나, 공부에 큰 진전이 없어 고민 하시는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꼭 참석하셔서 좋은 공부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 과 목 : · 명리학, 기문둔갑, 육효, 육임, 관상
· 타롯카드반은 수강신청에 따라 별도운영
■ 강 사 : · 전, 호서대 기문, 관상학 주임교수
· 전, 동아 · 불교 문화센타 명리학, 기문학 강사
· 전, 사단법인 동양사상연구회 부회장 직강!
■ 장 소 : 서울 관악구 난곡입구 사거리 씨채널 안경점 옆 홍삼대리점 안골목 정운철학원
■ 전 화 : 010-7154-8835 011-241-9681
정 운 철 학 원

한국근본불교조계종 부산종무원
빙의. 퇴마. 구병시식. 천도재 전문도량
- 빙의(귀신병), 신들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 병원치료가 길고 잘 낫지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나 액운이 많은 분.
- 사업이나 매매가 마음대로 않되는 분.
- 어떤 병이든지, 어떤 사업이건 전화상담 만으로 속 시원히 알수 있음.

검증된 기술, 오랜 경력, 성직자의 양심으로 교육, 퇴마하는 도량 "성봉사" 모든 검색창에서 "현오스님"이나 "성봉사"를 클릭하세요.
퇴마사 최면사 교육
정규교육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성 봉 사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 대표전화 051) 362-0666 / 상담 및 예약 010-5656-3915

요절복통 여래네 집

#29. 초상집 예절



스튜디오 돌













이주일의 화두

매일 밤 한 이불 속에서
살을 부딪치며 산다고
해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거리는
천리길 만리길이다.

육방예경

영남범패 학인모집

영남범패불음원 진주 및 울산교육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9기 신입생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 교육장소 : 진주교육원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상가 406호
울산교육원 – 울산시 동구 방어동 990-2 〈화봉사〉
■ 문의전화 : 진주 055)747-8419 , 울산 052)201-1468
■ 수 강 일 : 진주 – 매주 월 · 목요일 오후 3시 ~ 6시
울산 – 매주 수 · 목요일 오후 3시 ~ 6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1. 각단 불공 및 재의식
2. 사물다루는 법
3. 바라 및 승무작법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쳐 보세요.

영남범패불음원장 원명 합장

충청도 암자부지

■ 위 치 : 충북 제천시 봉양읍
■ 대 지 : 2,040평
■ 양도가 : 1억 7천만원 (평당83,500원)

미륵석조물이 있는 특유한 땅!
조선시대까지 사찰이 있던 자리입니다.
기암괴석을 감돌아 폭포가 있는 계곡 땅!
200년 이상 된 큰 노송(소나무)이 있고,
삼면이 국유림과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였습니다.
박달재자락 남향의 앞이 탁 트인 지세로,
마을 최상류로 민원의 소지가 없습니다.
암자나 사찰부지로 적극 추천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 및 사진을 보시려면
네이버, 다음, 야후 검색창에서
「이땅」을 검색하세요

016-217-2191
033)764-6642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2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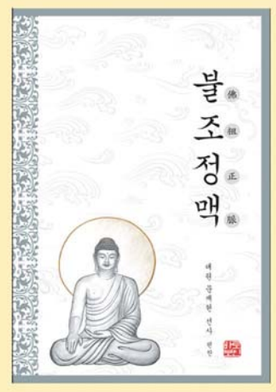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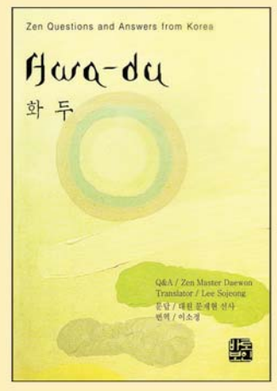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불조정맥

종조 석가모니불로부터 현 78대에 이르기까지 불조정맥진영과 정맥전법게를 온전하게 갖춘 최초의 불조정맥서.



신간! 화두/Hwa-du

대원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
현대에 생생히 살아있는 '화두'!
영역되어 세계에 자랑스러운
한국의 선(禪)을 소개하고 있다.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2-3494-2460

결혼 생활 잘 하려면…

‘손해 보는 것이 이익’



결혼할 때는 누구나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한다. 이 마음이 10년, 20년, 30년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누구나 결혼할 때는 행복할 거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지만, 살다보면 결혼생활이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다.

막상 결혼을 해 놓고 3개월,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아내 때문에 못살겠다”라는 불평을 늘어놓기 일쑤다. 심지어는 신혼여행을 다녀와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다. 나에게 행복을 안겨주던 사랑스러운 배우자가 하루 밤 사이 갑자기 원수로 돌변하기도 한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운한 마음만 들게하는 남자친구, 세상에서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 부모의 반대 때문에 망설여지는 결혼, 그리고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배우자와의 갈등 등. 행복하기 위해 결혼을 선택할 사람들. 막상 현실이 마냥 행복하지 않다면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저자인 법륜 스님은 부부사이의 갈등 원인과 행복하려고 한 결혼생활에 왜 괴로움이 돌고 도는지 책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수많은 갈등의 본질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괴로움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 불법 속 사성제를 통해 현실 속에서 적용 가능한 행동지침을 제시한다.

우선 스님은 결혼생활의 괴로움은 “상대에 덕 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결혼을 하기 전, 우리는 누구나 선도 보고, 다른 이성을 사귀기도 한다. 그러면서 남자는 여자에 대해, 여자는 남자에 대해 이것저것 따져보기 시작한다.

저 사람이 돈은 얼마나 있나, 학벌은 어떤가, 지위는 높은가, 외모는 아름다운가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이리저리 머리 굴리며 고민한다. 돈이 없으면 돈 있는 남자를 구하고, 외로우면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을 구한다.

법륜 스님은 “하지만 이건 지극히 자신의 이기심에서 시작된 관계”라며 “이런 관계는 반드시 과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결혼은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같이 살아도 귀찮지 않을 때 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결혼이 서로를 속박하지 않게 된다. 베풀어 주겠다는 마음으로 결혼하면 길 가는 사람 아무하고 결혼해도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상대에게 덕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고르면 100명 중 고르고 골라도 막상 고르고 나면 제일 엉뚱한 사람을 골라 결국 후회하게 된다. 그러니 결혼생활을 잘하려면 상대에게 덕 보려 하지 말고 ‘손해 보는 것이 이익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스님은 <법구경>의 말을 빌려 사랑과 결혼을 꿈꾸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지 말라. 미운 사람도 가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책은 남녀 간의 사랑과 연애, 성공적인 결혼생활이라는 주제를 통해 세상의 인과(因果)법칙과 모든 인연에는 과보가 따름을 말한다. 스님의 이런 이야기를 담은 책은 단순히 사랑과 연애,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위한 방법론을 보여 주는데 그치지 않고, 인과관계의 질서를 일깨우는 인연론이자 스스로의 삶에 물음을 던지는 인생론, 다른 존재와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관계론 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마음밭을 일궈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법에 대해 이야기 한다.

생선을 엮었던 새끼줄은 비린내가 배어 며칠이 지나도 생선을 엮었던 새끼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향을 쌌던 종이 역시 종이에 향내가 배어 향을 쌌던 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혼생활도 마찬가지다. 매순간 향기를 남기는 사람도 있고, 두고두고 악취를 풍기는 사람도 있다. 지난 인생은 다 흘러가 버린 줄 알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쌓이게 된다. 자신이 뿌린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고스란히 거두게 된다는 것이 우주의 질서다.

스님은 “배우자와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의 나는 무엇인지, 과연 나는 하루하루를 나답게 살고 있는지,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행복과 불행이 모두 내 손 안에 있다, 내 운명은 나에게 달려있다,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이치를 알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당부한다.

스님의 주례사 | 법륜 지음 | 휴 펴냄 | 1만2000원



결혼 육아서 2選

과거 결혼과 출산은 ‘필수’였는지도 모른다. 결혼은 평생의 일륜지대사이며, 출산은 한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축복이었다. 그만큼 출산과 결혼은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함에 결혼과 출산은 ‘선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경제가 급성장하고,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현대인들은 ‘나’라는 존재에 초점을 맞추고 도덕성 결여와 이기주의 등의 폐해를 낳게 됐다.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과 사회 진출에 따른 인식의 변화,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복지정책은 자연스럽게 결혼과 출산 기피를 부르고 있다.

분명 결혼과 출산이 ‘선택’이라고는 하나 이 둘을 완전 배제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렇다면 결혼과 출산 등에 두려움과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최근 이러한 고민을 덜어 줄 결혼과 육아에 관한 지침서 2권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사랑과 연애,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법륜 스님의 〈스님의 주례사〉를 권한다. 스님은 결혼은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같이 살아도 귀찮지 않을 때 하라는 결혼관 등 ‘쿨’한 사랑을 제시한다. 〈엄마가 부처다〉는 아이는 영적 스승이며 엄마는 자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수행을 하는 부처라고 말한다. 이제는 선택의 시대다. 두 권의 책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지혜로운 선택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한국불교의 최초를 찾아서	심정섭	운주사
4	초기불교이해	각묵	초기불전연구원
5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6	붓다 브레인	릭 헨슨	불광출판사
7	젊은 날의 깨달음	혜민	클리어마인드
8	미산스님 초기경전 강의	미산	명진출판
9	기도하는 즐거움	보경	불교시대사
10	달 절집 밥상	대안	웅진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아이 키우기

생활 속 으뜸 수행법



엄마가 돼 아이를 키우는 일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자 더 없는 기쁨이다. 하지만 잠시도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 없고, 항상 대기상태에 있어야 하는 엄마는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다.

누구나 좋은 엄마가 되기를 원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매일 매일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모든 일정은 아이에게 맞춰야 하고, 자기계발이나 취미생활은 엄두조차내기 힘들다. 더욱이 직장에 나가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워킹 맘’이라면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은 더 심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는 엄마들 마음 또한 편한 것은 아니다. 자신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 같아 괴롭긴 마찬가지다.

하지만 엄마들에게 무엇보다 힘든 것은 이런 내적 고통을 함께 나눌 만한 사람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다. 오랜 친구와 가족조차도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많다. 막상 어떤 문제에 대해 상의하려 해도 대꾸가 신통치 않거나, 반갑지 않은 조언을 하는 등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리기 일쑤다. 좋은 부모가 함께 되자던 남편 역시, 아내가 겪는 심리적 · 육체적 어려움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기는 힘들다.

현재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이자 저자인 새러 납달리는 이럴 때 일수록 엄마는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이는 감정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한편 감정 조절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엄마가 정서적 안정을 주고 감정 조절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엄마 자신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야 한다.

행복하고 현명한 엄마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내면을 돌아보는 것이다. 엄마는 가족을 뒷바라지 하고, 베풀고 또 베풀어야 하는 존재다. 그래서 수시로 자신을 재충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저자는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붓다의 가르침은 엄마들이 불안한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고 좀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지혜를 터득할 수 있게 도와준다.

저자는 책을 통해 불교를 접하면 이런 고통스런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또한 붓다의 가르침을 엄마가 어려움에 부딪치는 상황별로 쉽게 설명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아이 키우는 일은 불교에서 추구하는 수행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와 인내를 요구하는 ‘엄마’라는 역할에 충실하다보면 자연히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에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이다.



진정한 불교 수행은 삶의 현장에서 이뤄져야한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삶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진실한 사랑을 경험해 봤다. 그래서 엄마들은 불자가 아니여도 이미 불교의 교리를 이해하고 있는 셈이다. 아이라는 존재는 엄마를 끊임없이 현재의 순간으로 끌어당기고,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며 생각하게 만든다. 아이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진리를 깨우쳐주는 영적 스승이며, 이 영적 스승과 함께 자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수행하는 엄마는 바로 부처다.

엄마가 부처다 | 새러 납달리 지음 · 노혜숙 옮김 | 아침이슬 펴냄 | 1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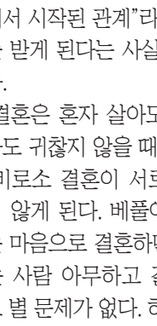
불교달력 · 불교용품 · 불교서적 최저할인가격으로 보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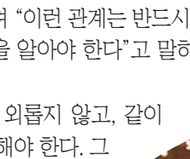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 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할인가 금지경전 세트 (3권+주머니) @25,000원(10세트이상)


할인가 경면주사금지 능엄신주 @7,000원(10권이상)


할인가 금강반야바라밀경 @1,500원(100권이상)


할인가 반야심경 한문 탑사경 @150원(500장이상)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경전사경 제26호

할인가 한지 108사경 (4종) @14,000원(10권이상)

할인가 금강경 한문사경 @3,500원(50권이상)

할인가 자비도량참법 @9,000원(20권이상)

할인가 금강경 독송용 @2,400원(50권이상)

※ 불교서적 법보시 기본 100권 인쇄시 20,000원이며 추가인쇄시 100권당 +10,000원 추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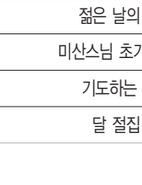

할인가 공단등(8cm) @3,000원(96개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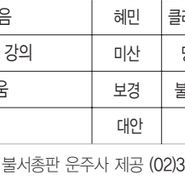

할인가 바림등(8cm) @3,000원(96개이상)


PVC 집게등표(100매) @20,000원


칼라등표(100매) @6,000원


할인가 무연무취향(1케이스) @12,000원(10케이스이상)


일반밀대(1Box 70개) @105,000원


파라핀양초(1.8ℓ 12병) @53,000원



할인가 주목 백팔주 @8,000원(20개이상)


할인가 불자수지독송(칼라) @500원(200부이상)

할인가 생일카드 @300원(1,000장이상)

할인가 금강경탑다라니 @150원(600장이상)

할인가 삼베삼재풀이 @600원(200개이상)

불교용품
- 침향, 주목, 염주, 염주주머니
- 양초, 향, 다포, 악세사리
- 4·8용품, 등표, 전선·전구
- 공단등, 바림등, 만월등, 청사초롱
- 봉축카드, 생일카드, 프린트지
- 예수재용품, 영가옷, 탑다라니
- 축원카드, 용선, 위패, 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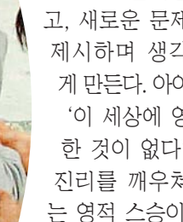
불교서적
- 사경책, 사경지, 한지백팔사경
- 우리말사경책, 제브라붓펜
- 금지경전세트, 불자수첩, 병풍
- 금강경, 법화경, 지장보살본원경
- 예불천수경, 천지팔양경, 보문품
- 백팔대참회문, 불설아미타경
- 한지공책, 사경공책, 권선문
- 자비도량참법, 성불합시다

불교달력
- 국6절(大) (30.5×31.0cm)
- 12절 (25.8×26.5cm)
- 차걸이 (9.0×15.5cm)
- 미니 (8.9× 9.5cm)
- 다이어리 (9.5×13.4cm)
- 탁상 (26.2×19.0cm)
- 한지 (30.0×45.5cm)
- 행복으로 가는 길(18.1×20.0cm)

12절 1,000원 (1,000부 이상)

8호 관음도

16호 부처님의 꽃


14호 반야동자

동진기획 · 붓다쇼핑 대량구입시 전화주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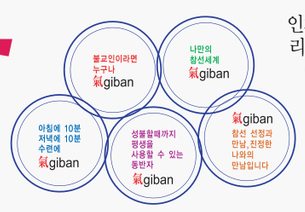
☎(051)515-8888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TEL (051)515-2988, 555-1087, 508-9377~8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FAX (051)508-0101
H.P 011-554-2988, 011-879-0889 이메일: dongjin8888@naver.com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본 불교명상

불교 본래의 가르침은 합리적 사고로 일관

불교는 세계 4대 종교 가운데 하나이다. 최근 불교의 사상은 단순한 종교적 개념을 넘어 현대인들이 지녀야 할 합리적 사고로 인식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번뇌를 씻어 버린다' '집착을 떠나 있는 그대로 살아간다' 등 불교의 근본에서 유래하는 이런 말들은 특정 신앙과 종파를 떠나 이해돼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 안도 오사무 또한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 중 한사람이다. 그는 오랫동안 불교명상 수련을 해 온 임상심리학 교수이자 정신과 의사로서, 임상 현장에서 불교명상을 적용하며 연구에 매진해 왔다.

저자는 "근대의 합리적 정신에 익숙한 현대 지성인은 불교를 '과학적이지 않은 지식'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한 태도는 선과 불교의 가치를 왜곡하는 시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불교 본래의 가르침은 근대적 정신과 전혀 모순되지 않은 합리적 사고로 일관돼 있음을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반면, 그에 어울리는 마음의 풍요로움은 빈곤한 시대이다. 현대사회에 과학적 · 합리적 세계관이 점점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선진국들은 점차 '마음'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최근 서양에서 '마음'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선(禪)과 불교명상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티베트 불교의 고승 달라이 라마는 현대 서양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현재 전 세계 67개국에 선 센터가 있고,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에만 150곳 이상이, 미국 전역에는 700곳이 넘는 선 센터가 있다.

'마음'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치료와 마음 치유에 주목하고 있다. 심리치료는 이제 단순히 정신적 질병을 치유하는 차원을 넘어 자기성장과 자기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심신의 치유로 범위를 넓히게 됐다. 또한 심리치료의 가장 주목받는 분야로 불교에 대한 심리학적 재해석을 통한 접근이 각광받고 있다. 이런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상황은 자연스레 동양의 명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됐으며, 이제는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서양 문화와 동양의 명상이 그 접점을 찾는 다양한 연구 결과물이 발표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 주목하며 불교명상을 현대의 심리학적 입장에서 다시 재해석 했다. 저자는 우선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검토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설명을 바탕으로 불교의 심리치료적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불교명상과 현대 심리치료의 접점에 등장하는 중요한 기본 개념들을 고찰하면서 현대 심리치료로서의 불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이밖에 불교와 심리치료의 관계를 이론적 측면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며, 현대의학에서 명상과 좌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응용되고 시도되고 있는지도 고찰했다. 마지막으로 불교와 선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자각의 개념에 초점을 맞춰 검토했다.

불교명상은 심리적인 대상이나 장애를 그 자체로 허용하고 수용한다. 또한 무언가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존재하는 그대로 지켜봄으로서 그 본질을 통찰한다. 이러한 불교명상의 특징이 오늘날 심리치료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불교는 이제 자신의 본성에 대한 자각을 목표로 하는 심리치료적 가르침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저자 안도 오사무는 하나조노 대학 사회복지학부 임상심리학교 교수이며, 정신과 의사이다. 현재 일본 자아초월심리학 · 정신의학회 대표로 있다. 저서로는 <Zen 심리요법> <성스러운 체험> <명상의 정신의학> <영성의 심리학> 등과 <명상과 융 심리학> <트래스퍼스널 심리학 · 정신의학> 등의 다수의 역서가 있다.

심리치료와 불교|안도 오사무 지음|인경 · 이필원 옮김|불광출판사 펴냄|1만6000원 이은정 기자

리뷰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의 전략

애플이 펼쳐 놓은 정보 생태계 속 종교 정보

'모두를 이익 되게 하고자 할 때 내게도 이익이 돌아온다'

상상력 · 분석력 · 실행력 혁명에서 살아남을 세 가지 키워드

나는 지난주부터 모교 중앙도서관 자연과학 서고로 출근하고 있다.

내가 이곳 자연과학 서고에 입장하여 가장 먼저 읽어 마친 책은 한 달을 끌고 있었던 <공간디자인의 사조>이고, 서고에 진열된 책 중에서 가장 먼저 손에 잡아 초고속으로 독파한 책은 <파브르 곤충기>이다.

앞의 책은 도시와 건축에 관한 책이다. 도시공간과 건축의 문제는 이를테면 인간의 사회적 삶에서 공간과 뼈대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거(그리스/로마)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조를 기술한 책이어서 이 분야의 문외한으로서 이 분야를 노크하는 첫 번째 도서로 선택했다. 나중에 유사한 주제의 다른 서적을 한권 더 읽고 난 후 교양이 좀 생기면 별도의 독서록을 써두고자 한다.

<파브르곤충기>는 서고에 서서 무슨 책을 읽을까 고르다가 우연히 이 책 어느 부분의 다음과 같은 대목에 이끌렸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조그만 일에도 그럴듯한 설명만 붙으면 벌써 이 우주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라도 가진 듯이 '법칙이다. 이것이 법칙이다'하고 떠들어 대지만, 이 법칙의 문턱에는 그것과 반대되는 사실이 헤아릴 수없이 많아서 자기의 설 자리도 찾지 못하는 예가 허다하다."

나중에 독서록을 반드시 써둘 것이지만 이 책은 벌이나 파리, 쇠똥구리나 거미 같은 곤충들에 대한 단순한 관찰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본능과 이성(지혜)의 경계에 관한 탐구이고, (인간세계에 비추어) 탐구 과정에서 의문(물음)을 던지는 방법에 대한 기록이자, 그 의문을 푸는 방법을 곤충 관찰이라는 파브르의 행위를 통해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실천적 철학서였다.

그렇다고 내가 오직 공부(학문)의 즐거움만을 만끽하기 위해 모든 일을 작파하고 이곳으로 출근하게된 것은 아니다. 나는 한사람의 인생에서는 45세, 조직의 경우는 10년을 기점으로 전략적 변화와 내적인 혁신을 요구받게 된다는 경영전략가들의 견해에 대해 공감해왔고, 또 내 능력한계 내에서 그렇게 적용하고 가르쳐왔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프로젝트(2006년)' 등을 통해서 그와 같은 기조로 프로그램을 설계한 바도 있고, 40~60세대를 대상으로 제2의 인생 설계교육(2007년)도 소박하게나마 공동으로 수행해 보기도 했다.

그런데 나는 최근 들어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과 나 자신은 정작 그런 변화를 위한 절실한 몸부림이나, 우리의 열정에 다시금 불을 붙이게끔 하는 새로운 비전(목표, 願)이 없다는 것을 가슴 깊이 확인했다. 조직은 11년차로 들어섰고, 내 나이는 43년의 한여름을 다 보내고 있는데도 말이다.

치열함을 잃고 관성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하는 생각에 너무나 부끄러웠다. 그리고 깔끔하게 결정을 내렸다. 사직을 통해 무언가 새로운 혁신을 일구어 내지 않으면 다른 출구는 없다고 하는 일종의 배수진을 치기로 한 것이다.

나는 도서관에서 공부의 즐거움과 함께 이전까지 해오던 나의 직업활동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이전에는 비영리 단체로서 돈(자원)을 '모으는 방식'의 조직경영에 충실하였다면, 이제는 돈(자원)을 '버는 방식'의 조직경영을 창출한다는 지향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까 구상하고 있다. 그냥 쉽게 돈벌이가 되는 '장사'로 업종을 전환할까 구상 중이다.

그리고 좀 더 거창한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 그것은 불교를 배경으로 한 지식(정보)이 시민들에게 유용하고 다양한 상품들로 만들어져서 대중적으로 유통되게 하는 것, 그럼으로써 종교적 메시지의 송출, 불교 지식정보의 다종다양한 가공과 생산, 유통으로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마침내 독자적인 '생태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어떤 유용한 수단을 제공하고, 창조적 발상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기성 제도불교(종교적 메시지의 송출과 지식생산의 대표성을 과도하고 비정상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기성 조직체)의 한계와 부작용을 넘어 서기 위한 상업적(영리적) 대응의 한 발상이기도 하다.

이상은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과 구상인데, 정말로 내가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이상과 같이 다소 무모하기도 하고 듣기에 따라서는 다소 허황하기도 한 것 같은 만용(?)을 저지르는데 일조한 어떤 한 권의 책이다. 그 책의 제목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의 전략>이다.

이 책은 우리 사회에서 스마트폰이니 소셜네트워크니 하는 말들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릴 즈음인 4월 출간되었다. 나는 이 책을 6월 지방선거에서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가 투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였다는 블로거들의 분석들을 접하고서 바로 구매해 읽었다.

나는 이런 종류의 책들에는 다소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어서 디지털 캐즘(Chasm, 새로운 디지털 문명과 기존 인터넷 문명의 충돌이 만들어 내는 공간)이니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니, 테더링(Tethering)이니 하는 용어들은 비록 생소했지만, 평소 미래연구에 관한 서적들을 즐겨 읽었던 터라 이 책의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만은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본다.

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분석과 설명에서 저자의 메시지를 가장 강렬하게 느꼈다. 이 책의 핵심적 메시지라고 할까?

하나는 '모바일 생태계'를 만든 것이 애플의 성공 배경이라는 저자의 설명, 다른 하나는 아이폰으로 이미 시작된 디지털 혁명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자신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데 저자는 '상상력과 실행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는 것이었다.

저자는 말한다. "애플의 행보가 혁신적이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애플 스스로가 오픈마켓으로 포지셔닝을 했기 때문이며, 스티브 잡스가 오늘날 전 세계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이유는 개발자와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만나서 수익을 나누는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p69,71).

생태계란 무엇인가? 한국어 위키백과에 의하면 "같은 곳에 살면서 서로 의존하는 유기체 집단이 완전히 독립된 체계를 이루면 이를 생태계라 부르고, 상호의존성과 완결성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한다. 말하자면 상호의존하며(서로에게 이익을 주며)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독립 가능한 구조와 체계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나는 '애플 대 다른 모두'의 경쟁양상처럼 흘러가고 있는 현재의 모바일 전쟁을 주목하면서 저자의 이 말을 몇 번이고 깊이 생각해 보았고, 지금도 나 나름의 정리된 생각을 익히고 뜸을 들이고 있는 중이다. 저자가 '모바일 생태계'라고 정의한 의미와 그러한 생태계가 가능하게 한 수단과 그 수단의 속성(특성), 그리고 애플이 전략적 연결선 상에서 내놓거나 내놓을 예정인 아이패드와 애플TV가 제공할 서비스의 본질 등등. 나아가 이런 종류의 것들과 그것들이 변화시킬 세계,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동기의 불확정 상황으로 인한) 틈새와 기회 등에 대해 이것저것 탐구해 볼 것이 즐비하다.

나는 불교계 또는 개혁지향적인 종교그룹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다 이런 나의 탐구 결과들을 조목조목 대입해 보고 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들 영역에서 생태계 수준의 독립적인 체계의 성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두를 이익 되게 하고자 할 때 내게도 이익이 돌아온다'는 신념을 기반으로 연결된 집단지성을 창출하는 길 이외에 또 다른 용이한 길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판'을 (독립적)생태계 수준으로 키우는 전략적 감각을 가지고 모험성, 개방성, 이타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상상력과 실행력'이다.

저자는 말한다.

"트위터나 미투데이 등 소셜네트워크 사이트들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여기에 추가된 기능을 장착한 새로운 사이트들은 향후 세계를 장악해 나갈 것이다. 문제는 상상력이다. 과연 어떤 부분이 약한 고리로 이어져 있는지를 찾아내는 곳에 바로 답이 있다"(p160),

"트렌드 속에서 하나의 시장과 경쟁우위의 핵심가치를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문제는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고 그 시장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착된다. 실행력이다. 그 안에 답이 숨어있다."(p162).

디지털 혁명 또는 모바일 빅뱅에 대처함에 있어서 이보다 더 확실한 처방은 없다. 상상력 없이는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그리고 구상을 실제로 실행해보지 않는다면 구두선에 그치고 말 것이다. 특히 실행을 통해 경험하고 실패를 통해 가능성을 체득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이불 속에서, 골방에서, 변방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어떤 종류의 구상이든 그 배경에는 상상력과 더불어 '분석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자명하다. 저자가 '분석력'을 구태여 거론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저자 스스로 변화하는 기술과 환경에 대한 극한분석을 이미 전제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저자와 같은 전문가가 아닌 우리에게는 집요한 분석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저자는 "트렌드 속에서 하나의 시장과 경쟁우위의 핵심 가치를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하였지만, 우리에게 그것은 쉽지 않은 분석적 과정을 포함한 말이다. 이 점을 오해하거나 우리 자신의 실력을 오판해서는 곤란하다.



필자는 이밖에도 우리에게 상상력을 제공하는 다양한 사례들과 아이디어들을 알려 주기도 한다. 특히 1인 기업의 블루오션에 대해 필자가 생각하는 사업적 아이디어들을 다양하게 쏟아놓고 있다. 그리고 향후 마케팅의 대세가 모바일을 매개로 하여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필자 나름의 예측도 내놓고 있다.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이트와 연계해서 사람들을 상담해 주는 업무, 모바일 설문조사, 문자 보낼 때 좋은 글귀를 제공하는 이미지 플랫폼, 모바일 뉴스, 모바일 회원모집 대행, 온라인 카드와 청첩장 시장 등등, 이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복잡하지 않고 생활에 편리를 주는 작은 서비스들을 예로 들고 있다. 이런 예들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촉진시키기에 충분하다.

아마도 '애플 대 다른 모두'의 경쟁양상은 당분간 계속될 듯하다. 애플의 전략적 페이스에 의해 발생한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고 2단계, 3단계 전략적 전이가 계속될 것이라는 저자의 예측이 맞는다면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도 사라지지 않고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저자도 향후 5년 정도라고, 그 기회의 기한을 대략 제시하고 있다. 저자의 예측대로라면 2년의 실험 또는 준비와 3년의 전개, 이 정도 시간이 아직 우리에게 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의 전략|최용석 지음|아라크네 펴냄

윤남진 (前 참여불교재가연대 NGO리서치 소장)

최연의 산 이야기 <29> 가야산(경남) 3



가야산 정상인 상왕봉.

가야산 암자마다 고승대덕의 자취가 가득하구나

가야산(伽倻山)의 도량 터 중에 가장 수려한 기운이 서려 있는 곳이 백련암(白蓮庵) 터이다.

가야산 정상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린 산줄기 하나가 해인사의 주산(主山)을 빚어 올리고 다시 동남쪽으로 향하며 몇 번의 용트림을 한 후 남은 기운을 모두 모아 용각대(龍角臺), 신선대(神仙臺), 절상대(絶相臺), 환적대(幻寂臺) 등의 수려한 바위봉우리들을 솟아 올리고 그 아래에 수도(修道) 터를 하나 마련했는데 그곳이 백련암이다.

앞은 걸림이 없이 확 트여 가야산에서 매화산까지 반원형(半圓形)으로 휘어도는 가야산 주맥(主脈)이 한눈에 들어온다. 백련암의 주산은 학(鶴)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학이 막 날개를 접으며 둥지에 앉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백련암 터는 학의 둥지 즉 학소형(鶴巢形)이다.

학소형의 터에는 성품이 고매하고 도(道)가 높은 인물을 배출하는데 그 명성에 걸맞게 많은 고승대덕들이 이곳을 다녀갔다. 조선시대의 소암(昭庵), 환적(幻寂), 풍계(楓溪) 스님 등이 오래 주석했다.

소암 스님은 서산대사의 제자로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스님의 명성을 듣고 감히 가야산을 침범하지 못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환적 스님은 환적대(幻寂臺)에 토굴을 짓고 수행정진하며 호랑이 한 마리와 친하게 지내면서 호랑이를 타고 가야산을 오르내렸는데, 어느 날 그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는 바람에 산신(山神)에게 부탁해 호랑이들을 다시는 가야산에 들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백련암을 향하다가 왼편으로 갈라져 올라가면 희랑대(希郎臺)와 지족암(知足庵)이 보인다. 이곳은 희랑대사(希郎大師)가 수행하던 곳으로 희랑대에서는 참선(參禪)을, 지족암에서는 기도(祈禱)를 주로 했다고 한다. 희랑대의 주변 산세는 흡사 게가 엎드린 모양의 해복형(蟹伏形)이다. 게는 둘이 만나면 싸움을 하기 때문에 희랑대에서는 꼭 한사람만 살아야 한다고 한다.

희랑대에 희랑대사가 머물고 있을 때 해인사에는 관혜스님이 주석하고 계셨다. 희랑대사는 가야산 해인사 출신이고 관혜 스님은 지리산 화엄사 출신으로 부석사에서 공부할 때 한 스승 아래서 수학(修學)한 사형사제의 관계였다. 그런데 희랑대사는 왕건을, 관혜 스님은 견훤을 지원했다. 두 화엄학(華嚴學)의 대가가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달라지는 바람에 화엄종(華嚴宗)은 결국 희랑의 북악(北岳:가야산)과 관혜의 남악(南岳:지리산)의 두 분파로 갈라져 반목과 갈등이 그 후로 오래 동안 계속되었다고 한다.

고려 때 혁련정(赫連挺)이 찬술한 균여대사(均如大師)의 전기(傳記)인 <대화엄수좌원통양중대사균여전(大華嚴首座圓通兩重大師均如傳)>에 "스님은 북악(北岳)의 법손(法孫)이다. 옛적 신라 말기에 가야산 해인사에 화엄종의 종장(宗匠)이 두 분 있었는데, 한 분은 관혜 스님으로 후백제 거두 견훤(甄萱)의 복전(福田)이었고, 다른 한 분은 희랑 스님으로 우리 태조대왕(太祖大王)의 복전이었다. (중략) 당시 사람들이 일컫기를 관혜 스님의 문파를 남악이라 했고 희랑 스님의 문파를 북악이라 했다"는 구절이 나온다.

이때 희랑대사와 왕건의 만남이 <가야산해인사고적(伽倻山海印寺古蹟)>에 신비스럽게 묘사되어 전해지는데, 아무튼 희랑대사가 왕건을 도와 고려의 건국에 기여함으로써 태조는 그 보답으로 토지 500결을 해인사에 헌납하여 절을 크게 중창시켰다고 한다.

해인사와 개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홍제암(弘濟庵)은 사명대사(四溟大師)가 열반에 든 곳이다. 전란(戰亂)에 지친 사명대사는 가야산을 찾아들었다. 사명대사는 왜 가야산을 자신의 열반(涅槃) 장소로 택했을까?

서산대사(西山大師)가 당신의 의발(衣鉢)을 두륜산(頭輪山)에 보내 법을 전했듯이 사명대사도 가야산에서 육신을 살라 당신의 법을 심고 간 것은 아닐까?

서산대사의 의발을 전해 받은 두륜산 대둔사(大屯寺)가 조선 후기의 불교사를 찬란하게 빛냈듯이 사명대사 열반 이후 가야산 해인사도 호암체정(虎巖體淨), 해봉유기(海峯有璣), 설파상언(雪坡尙彦), 연담유일(蓮潭有一) 등 구도정신을 크게 꽃피운 수행자들이 많이 주석했다. 특히 호암과 연담은 대둔사 13종사(宗師)에도 꼽히는 스님들이니 해인사와 대둔사의 인연도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의 인연처럼 각별하다 아니할 수 없다.

허균은 사명대사를 기리는 비석 글에 다음과 같이 적어 놓았다. "제자들이 해인사 서편 산기슭에서 스님의 유해를 다비할 때에 상서로운 빛이 하늘에 뻗치고 새들이 놀라 지저귀었다."

일제 침략기에는 3.1독립선언 33인 중의 한 분인 백용성 스님도 해인사 출신이다. 용성 스님은 16살에 해인사 극락암에서 머리를 깎았고, 3.1독립운동 때에는 잡혀가서 문초를 당하면서도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또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하며 헌걸찬 기상을 보여줬다.

3년 옥고를 치른 뒤 북간도(北間島) 용정(龍井)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며 산을 개간하여 화과원(華果園)이라는 농장을 만들어 선농일치(禪農一致)운동도 벌였다. 그리고 <화엄경> 80권을 한글로 번역하는 불경의 국역사업(國譯事業)에도 크게 기여했다.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호수의 가을

"나그네 쉼터까지 내려왔다가 집으로 올라가면 하루가 지나가요."
"요즘도 술은 여전하고?"
"흐흐, 쉼터에서 가끔 소주 한 병씩 비우죠."

버스가 오가는 대로변에 강을 바라보며 자리를 잡은 쉼터를 뒤로 하고 얼큰하게 달아오르는 몸을 허적허적 흔들며 다리를 건너 강변을 따라 산길을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 호수의 모습이 어렵지 않게 잡혔다. 그가 사는 가재골은 강변을 따라 솟아있는 산의 옆구리를 깎아내 만든 산길을 타고가다 접어드는 골짜기다. 다리가 놓여지기까지는 산을 넘어 다녔다고 하는데 육이오 전쟁이 터졌을 때는 다 끝난 뒤에야 주민들이 알았다고 한다.

폭이 좁은 골짜기라 해도 포장도로가 깔려있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 가는 지역이다. 들어온 사람들이 집을 짓는 곳에 찾아가 도와주기도 하고 마을 얘기도 들려주면서 주인이 따라주는 술을 먹다보면 시간은 헐겁기도 해서 호수의 하루는 이래저래 뚝딱 지나간다.

그는 초등학교를 마치고 집을 떠나 이발소에서 손님 머리 씻겨주는 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안양에서 개수대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시 시골로 들어왔다. 벌어놓은 천만 원도 어머니 병원비로 다 나가고 함께 살던 형도 사고로 죽은 뒤, 홀어머니 옆에서 그럭저럭 나이를 먹다보니 사십 대 중반에 이르렀다. 이젠 무엇을 더 어찌할 생각도 없다.

앞니도 몇 개 빠지고 얼굴에 주름은 또 왜 그렇게 느는지, 마음이 허허로운 날들이 이어져 마을길을 따라 골짜기라도 빠져나갔다가 와야 그나마 하루가 온전히 지나간다. 골짜기 밖의 강가로 내려오면 외부와 연결되는 다리가 누워 있다. 외지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왔을 때 찾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 다리 위에서 돌려세워 보냈으나 마음까지 끊지는 못했는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이 아리다. 눈 감고 받아들여 허름한 집일망정 함께 살았다면 지금은 웬만큼 큰 아이도 있었을 텐데. 돌아서 가던 사람의 뒷모습이 왜 이리 지금까지 아련한가?

> 도와주진 못할망정
> 마음에 대못을
> 박진 말라고 했으니
> 그저 소주잔을
> 부딪치는 수밖엔 …

소주 한 병 비우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나쁘진 않지만 꼭 들어가야 해서 들어가는 집도 아니니 발걸음을 빨리 할 이유가 없다. 누군가의 집에서 부른다면 언제라도 선뜻 찾아가 하룻밤 술을 마시며 지새는 것이 그나마 재밌는 일이다. 근데 마시다보면 정신이 아롱아롱, 길옆 계곡에 굴러 떨어져 병원에 실려간 적도 여러 번이다. 한 번은 계곡의 뾰족돌 위로 떨어져 다리뼈가 부러져 쇠토막을 박았다.

먹을 채소나 텃밭에서 기르는 삶이고보니 다리병신이 됐다한들 무엇이 어쨌다는 것이냐. 정부에서 나오는 십 몇 만 원 가지고 어머니와 살아도 살아지긴 살아졌다. 다리를 제대로 못쓰니 장애자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 없겠냐며 찾아왔을 때,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며 나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질 말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도와주진 못할망정 마음에 대못을 박진 말라고 했으니 그저 소주잔을 부딪치는 수밖엔.

내가 이곳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땐 2,30분이 걸리는 버스를 타고 찾아와 집을 고치는 내 옆에서 술을 마시다 취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밤에 잠을 자지도 못하게 했다. 깡마른 작은 몸이어서 홧김에 번쩍 들어 마당가 모래더미 위에 내던지며 '잠을 자겐 해줘야 할 거 아니냐' 고 고함을 질렀더니, 멀끔히 바라보다 일어나 앉아 살아온 지난날들을 자근자근 얘기했다.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뭘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다. 하루하루가 흐르는 걸 멈춰 세우지 못해 나이만 먹은 세월 앞에서 호수는 이제 이름 그대로 잔잔한 물결이라도 될 것인가? 옥동의 식당에 함께 나가 짜장면을 시켜서, 먹으라고 하니 웬일로 꾸역꾸역 잘도 먹는다. 이제껏 무엇 하나 홀홀 먹는 모습을 보지 못했었다. 짜장면 집을 나오는 즉시 나를 앞질러 걸어가 통닭집에 들러 닭을 시키고선 먹지도 않은 닭값을 서둘러 먼저 낸다. 어디서 돈이 좀 난 모양이다. 뻔한 생활 속에서도 어쩌다 여윳돈이 몇 만 원이라도 생기면 술값 음식값을 먼저 내고야 만다.

그나저나 다행이다. 오늘은 맥주 한 모금에 닭고기 한 점, 또 맥주 한 모금에 닭고기 한 점. 술만 먹던 호수가 드디어 안주를 먹기 시작했다. 불현듯 가을이 왔다.

■유승도 (시인)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당신의 운을 열고 발복(發福) 시키는 천도 도자기 출현?

운(運)이 나쁜사람 공통점?
" 조상이 저승에서 안착을 하지 못하는 경우 "
" 이승에서 자손들도 정리정돈이 안되며 발복이 안되는 것이니라"

운(運)이 좋은 사람 공통점?
조상의 영혼과 자손의 관계가 좋아 평소 천상계의 기운이 잘 안착이 된 사람이성공 하는 것입니다.

현대과학 에서 보면 조상령, 태아령, 빙의 등 사고를 부르고, 병을 부르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 이 있습니다. 과학에서 보면 다 나쁜 기(氣), 파장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상의 뼈를 좋은 곳에 묻고, 영혼을 천도하는 것은 이러한 나쁜 파장을 상세 시키고 발복 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대과학이 개발한 치우천왕 도자기는 영계에 좋은 기를 보내주기 때문에 조상 영혼이 천도 되며, 입시를 앞둔 수험생 자녀 에게는 유전자 공명(共鳴)을 이용하여 조상과 후손이 공명되어 천상계의 좋은 기운을 학생이 공수 받아, 수험생은 집중력. 기억력. 논리력이 매우 높아지는 알파파가 매우 많이 형성되어 시험 합격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도자기 **의 파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증폭 시키는 파동으로 사업자는 귀인을 만나며, 혼자 사는 사람은 인연의 짝을 만나게 되는 신령함**은 같은 주파수의 핸드폰이 서로 소통되는 것같이 치우 도자기의 공명이 상대방 마음에 파동쳐 일어난 사례입니다. 항상 자신의 몸속에 들어있는 나쁜 영 (병귀, 태아령) 영가의 장애로 가족 간에 상극을 받으며, 흉몽을 꾸고, **이유없이 몸이 피곤하고 무거워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던 사람 들이 도자기를 처소에 두고서 부터 영적인 장애가 풀리고 몸이 많이 회복되는 기적적 운이 상생 되고 있습니다.**



운이 새고 돈의 흐름이 막히여 현실적으로 장사나, 매매가 어려운 터가 치우 도자기로 통기를 시켜준 후 도깨비터로 운기가 발복되는 놀라움은 이제 치우 도자기가 건강뿐만 아니라 액을 막아 주고 이상하게 행운도 가져다 준다하여 영험 도자기로 화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치우천왕 도자기는 지금껏 비밀리에 조상님 산소에 묻어주는 비방법으로 고가에 거래 되어 왔었던 것 입니다. 사실은 이런 좋은 도자기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은 도자기 안에 **고인(故人)의 이름을 적고, 사진이 있으면 영정사진,** 기원하고 싶은 가족사진이나 가족의 이름 다 써서 넣어 두시는 것 입니다.
이제 현대과학이 해결하는 영혼천도 도자기를 공개하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치우천왕 검색

◆ 무료사은품 : " 기도의 비밀 " 책자 + 치우천왕 CD + 치우천왕 적령부 카드 2장
내마음의 절에서는 현대과학이 개발한 기(氣), 측정 장비를 가지고 여러분의 운을 측정 해드리고 있습니다.

" 치우천왕 氣가 나오는 도자기 " 대박상품!! 가격 : 49만원 투자자 및 지방 대리점 문의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 ■ 입금계좌 : 농협 351-0242-7965-13 (예금주 : 내마음의 절) ■ 전화 : 1661-2575

▷ 문의 : TEL 02) 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 (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범음 범패 염불 교육도량
학인모집 개인지도
천수바라, 공양작법, 사물, 범음범패
사찰 각종 행사대행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 점안식
011-243-3587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고급-일진내정법(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저렴하고,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살풀이, 바라무,
작법무, 범음범패
010-4870-8359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50세이하
서울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010-6260-3310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안산
010-6487-5656

비구 부전스님
(50세이하)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051)266-8330
011-551-1719

쉼터 약수암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수암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010-7232-0384

기문둔갑 실전 특강
개업, 영업반, 20년 경력 교수직강
특별운세 상담 예약중
동방대학원대학교
(대구에서 특강함)
문의처 02) 454-3369
010-7178-8709

공양주 보살 구함.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부산 도선사
011-579-6444
051)722-044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41)836-506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안성
010-8954-8033

경관 좋은 산사에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근교 양산
010-3647-0018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6844-6649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9350-3216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향단원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1. **극락사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대학) 수시 접수중
2. **극락사 명상대학** (위빠사나-간화선) 수시 접수중
3. **극락사 행자모집 안내** (4대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1) 교육복지 2) 의료복지 3) 노후복지 4) 노후연금
4. **극락사 추모원** (맑은숲 걸어서 극락으로..(나들이공원)
   개인단 • 부부단 • 가족단(조상,부모,형제 합동) • 특별단
5. **위치** : 서울시 지하철 양원역에서 300m 나들이 공원 약수터



대한불교 조계종 극 락 사
[종무소문의: 02)434-1717]

절 운영하실 수
있는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강원도
033)573-9322

사찰 처사
구합니다
운전및 숙식
가능하신분
▷50대. 경기도 성남
010-5264-8312

공양주보살,
사무실 직원
모십니다
▷대전 신광사
010-5792-3000

전망 좋은 신도시와
근접하여 지내기 좋은 곳.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스님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살이 운영하는 사찰입니다
▷경남 김해
055)323-4136
010-3499-3721

대방등 대집경 대승기도
●큰 서원이 있는 사람은 전화를 하십시요.
☎ 032)664-0048 / 011-741-0867

초혼 인연(女)을 찾습니다
불자집안의 여성을 찾습니다. 불심 깊고, 미래에 함께 사찰 운영 하실 수 있는 분. 고졸이상으로 나이는 40세 이하면 됩니다. (36세 토끼생은 너무 좋겠습니다)
저(男)는 경술생(40세)이며, 신장 180cm, 체중 75kg으로 고향은 경상도 입니다. 사찰 총무직을 하고 있으며 현재 스님 모시고 법사 수행 공부중 입니다. 향후 사찰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010-8152-2087 (보호자)

인연을 찾습니다
30~40대 초혼인 미혼여성
인연되어 줄 불심
깊은 분을 원합니다
47세 불심깊은 男,
직장은 탄탄함
010-7176-2177

100여년전 금어
확운경천 선생님이
조성한 **칠성탱화**
꼭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010-8676-2537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여자)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031)774-5067 / 011-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추석, 기일, 영가 천도일에 천도축원 해 드립니다.
● 문의 : 010-6296-0108

철학원 개업(命理)준비를 위한 벼락치기 단기코스
* 1개월 10회 단기코스 - 주2회 4시간 - 월 50만원 - 10명
* 3개월 속성전과정반 - 주2회 3시간 - 월 30만원 - 15명
* 6개월 정규전과정반 - 주1회 2시간 - 월 10만원 - 20명
* 스님반 스님강사로 주1회 운영함. 주1회15만원-10명
* 개강일 2010년10월11일 월요일부터 반별개강
* 강사진- 김동환 대한작명가협회장,심재동 지정도 동국대교수 , 유종오 손금닷컴대표 , 배원룡문학박사. 강우중 강원대교수 전병욱 한경대교수 이상석 천안대지철학관20년경력 김대영,김현산. 배지연 이규남 철학원 작명소 운영 및 강사로 활동 중인 저명한 강사진
본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대한작명가협회로 역술업 개업, 준비자와 역학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단기 특별반을 개설운영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070.4103-2367 / 02. 928-8123
교육후특전 -대한작명가협회 정회원으로 월1회 이상특강무료수강
홈 페 이 지 -www.tkna.org 사무국,서울시 종로구숭인동 304번지
대한작명가협회 사무국
옥영빌딩301호 동묘역3.4번출구앞교육장,동묘역3.4번출구 3분거리

탈 종 공 고
● 법 명 : 대일
● 사찰명 : 불승사
● 주 소 :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1051-1
위 스님과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공념학당 육임수강생 모집
1. 지금까지 육임을 배우고도 자신이 없어서 육임을 못하시는 분
2. 육임과체가 어렵다고 생각 하시는 분
3. 육임이 잘 맞는지 알지만 어렵워서 육임을 시작못하시는 분
4. 명리나 타학문을 배우고 명확히 점사를 볼 수 없어서 자신감이 없는분
이런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고 명확한 육임에 엑기스를 추려서 비법강의를 합니다.
엑기스 강의이므로 더 이상 육임 공부가 필요 없도록 지도 합니다.
기간은 3개월 완성이며 3개월 후에는 확실히 육임이 보이게 될것입니다.
육임은 확실히 공부만 되면 수학공식처럼 똑 떨어지는 점사를 알수 있습니다.
■ 초급반 : 수요일 3시 / 수강료 150만원
■ 완성반 : 토요일 (11시반, 오후 5시반) 수강료 100만원
■ 동영상강의 : 80 강 150만원
720 국수 cd 100 만원
공 념 학 당
02)793-7333 / 018-471-6410 용산구 보광동
saju79.com

스님...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대출금리 연 7.2~7.6% [1억 대출시 월이자 최저60만원]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1-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도심권현대식(파격임대)
사찰(급)안내
■ 위 치 : 충북 충주시 도심에서 5분, IC에서 5분
■ 대 지 : 490평, 건 평 : 180평
■ 3층건물 : 1층 80평. 대리석 및 원목시공
2층 80평. 옥돌시공, 3층 20평
■ 시 설 : 1층 원목회의실 20평, 방 2개 포함, 휴게실 및 공양실 30평, 방3개, 공양간 8평, 화장실 2
2층 법당 40평, 소법당 15평, 상담실, 주지실, 종무실, 화장실, 베란다
3층 삼성각 방 1개
■ 기 타 : 마당 연못 30평, 분수 및 폭포시설
100여 그루의 나무로 조경시설 완벽
아미타 5미터 대불(좌불) , 미륵불 4미터(입불)
산신각, 텃밭, 나무 보일러 시설
■ 특 징 : 서울기준 1시간 30분 소요, 각방 냉난방시설
1층에서 사찰음식점, 찻집 운영 가능함
사찰이전관계로 급 임대함, 양도도 가능
■ 보증금 : 2천 만원 월 90만원. 5년 계약 가능함
시설비 : 6천 5백 조정불가 . 아미타 불사 3천 5백 포함
양도가 : 5억
043)857-1259
010-3789-7474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02)2004-8215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수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 양주시
- 법당 : 3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600평
- 가액 : 12억
- 대봉포란형 명당터에 위치한 / 1급지임

- 위치 : 강원 주문진
- 건평 : 80평
- 부지 : 1300평
- 가액 : 5억5천

- 위치 : 경북
- 법당 : 31평외 2동
- 요사 : 120평
- 부지 : 3900평
- 가액 : 13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지리산 무릉도원

- 대지 : 2,100평
- 법당 30평, 요사 40평, 토방 10평
- 주차장: 300평(버스 진입 가능)
- 사계절 첩첩, 계곡물 철철
- 야생화 만발, 마당 넓은 사찰
- 가액: 6억 3천만원

부산 근교 아름다운 대사찰

- 총 대지 : 약 6000평
- 전통형 목조 법당 : 35평, 지장전 25평
- 요사채, 산신각, 기타 전각
- 청룡, 백호, 현무, 주작 산세완벽
- 텃밭 1500평,주차장 300평(버스진입 가능)
- 총금액 : 15억 (감정 40억)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용두1동 38-1번지 3층 304호
- 평수 : 80평
- 시설: 법당,방2개,주방,화장실
- 보증금 : 3천만원
  시설비 : 8천(조절가능)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2동 882-2번지 4층
- 평수: 110평
- 시설: 법당,방4개 주방,화장실,창고
- 보증금 : 2천5백만원
  시설비 : 8천3백만원

연락처 010-9204-9958, 010-9329-9394
건강 상 문제로 인연있는 분께 양도 해 드립니다.

시내포교원

- 위치 : 청주시 단독주택
- 1층 : 방4, 주방, 거실, 욕실
- 2층 방3, 주방, 욕실, 옥상
- 3층 법당 삼존불 모셔서 있음
- 대지 50평, 지하실, 창고 있음
- 가액: 1억 5천 5백만원
- 절충가능

011-753-0768

대사찰안내

- 위치: 부산
- 대웅전 108평, 무량수전 50평 외 강당, 요사
- 부대시설 현대식 완비
- 부지 3800평, 주차 동시 80대
- 가액 : 37억
- 가능자 면담

010-9580-3712

포교원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영동
- 4층건물의 3층, 50평
- 법당, 삼존불, 방2, 공양간
- 모든 시설완비,몸만 오시면 됨
- 시내 도로변 1, 2층 병원
- 유동인구 많음
- 보증금 5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8315-2100

포교원(급)안내

- 위치: 일산 서구 대화동, 대화역6번 출구 옆
- 평수: 55평(7층)
- 시설:A급모든시설완비(법회중)
- 동삼존불, 원불 500불
-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1500만원, 월 110만원
- 시설비 4000만원
- 스님 공찰관계로 급 양도

010-3579-9352

사 찰 안 내

- 위치: 제천에서 20분거리 서울에서 2시간
- 부지: 1650평중 종교용지 300평, 건평 100평
- 법당, 산신각, 용신, 연못공사중
- 요사채 2동 중 1동은 선방및 요양 시설용도, 산세수려하고 명당터
- 가액: 3억 5천만원

010-5114-0172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자연관광지
- 계곡물 철철, 경관수려함
- 법당, 요사채 산신각, 각 1동
- 부지 임야 10,000평

011-877-7677
010-4876-5535

긴급사찰 안내

- 찾아오시는길:지하철4호선 안산(중앙역)2번출구
- 법당 200평, 교육장30평
- 요사채 : 방5개(주지스님 방실 별도)
- 옥상: 약300평, 사용가능(현 텃밭사용)
- 가액 : 1억2천만원
  보증금 4000만원,월160만원

02)511-108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남양주시 별내면 수락산아래
- 평수 : 67평(7층중 3층 전체)
- 법당 : 34평
  (방4개, 종무소1, 시설 A급)
- 보증금3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몸만 오시면 됨 ● 즉시 법회

011-329-6606

한 국 불 사

- 서울근교 (APT밀집지역, 재래시장근접) 교통주차 편하고 산세수려함
- 대지 약 160평, 2층 목조법당
- 가액: 10억

※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운영 하실분 전화 상담해드립니다

02)6674-3535
010-3154-3535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 반성 수목원 옆
- 총평수 : 약 300평
- 법당, 산신, 용왕각, 요사채, 방 4개
- 앞에 연못,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사찰
- 가액: 3억

010-3875-630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1동
- 평수 : 30평(삼존불,지장, 신중,산신탱화,최상급 인등)
- 유동인구 많은 등산로, 최고위치,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3000만원, 월1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10-4154-3646
010-4534-3646

사 찰 안 내

- 충북 오창에서 천안시 중간
- 부지 : 2000여평
- 법당 : 목조 30평, 관음전 목조 25평
- 요사채 2층건물 1동, 1층건물 3동(방많음)
- 깔끔하게 잘 지었음
- 가액 : 13억
- 꼭 사실분만 전화 주세요

010-3665-2464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 법당 20평, 요사채 17평 요사채 10평, 대지 149평
- 가액 : 5억7천만원

011-811-5466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 법당 10평, 요사채 20평 요사채 5평, 대지 80평
- 가액 : 1억

017-612-1089
010-3673-4197

시골촌집안내

(한옥 살만한 집)

- 건평 : 약 10평
- 전기, 수도, 주차가능
- 터는 임대 1년 3만원
- 가액 : 8백만원

011-538-2211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 계양구 계산동
- 40평, 집기일체
- 시설비 포함 4500만원
- 3층 건물에 2층

010-8871-5335

사 찰 안 내

- 위치 : 여수 돌산 분전리 여수시내에서 20분거리
- 땅 : 총 250평, 요사채 1동
- 대웅전 1채, 산신각 2층 1동
- 가액 : 2억 3천(가격절충가능) 꼭 하실분만 전화 요망

011-9765-530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소재
- 부지: 약 5,000평(대지300평)
- 법당 : 40평(대적전,관음,지장전)
- 요사:약80평(방9,주방,창고)
- 요양원,고시원,종단설립 본산 등 대작불사 가능한 동남향 야산 사찰
- 가액 : 5억5천만원

010-9217-4911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내 시장부근
- 4층 상가 건물 중 3층 54평, 관리부無
- 법당1,방3,공양실1,시설특A급
- 아미타삼존불,지장보살,정법도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및 비품대 상담후 결정

055)372-3563, 3315
010-2553-8827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 평수 : 5400평
- 대웅전33평, 반지하80평,공정80%
- 전기,수도 완비
- 건물 무상 보시하고 시세 무시한 부지만 양도하겠습니다
- 터널공사로 시세 및 주변환경 급등

010-4512-0813

사 찰 안 내

-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서 7분거리
- 대지 450평(등기필), 와가법당20평(2층) 단청필, 요사채38평, 창고15평, 옥외화장실 및 창고 6평 6층 석탑(제주석)
- 불필요 전화 사절
- 가액 : 방문시 절충요

010-7517-7037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야음동
- 법당1, 방2, 부엌
- 기도하기 조용함, 야산
- 가액 : 500만원, 월15만원 (조정가능함)

011-9519-9984

포교원 안내

- 위치 : 장호원 새 시장
- 단독 약25평.대로변
- 보증금 500만원, 월40만원 전세1700만원

- 위치 : 장호원5분거리. 대로변
- 나무 많은 전원주택3500만원, 월세500만원,30만원

017-253-6892
031)641-1159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2층 33평,법당,종무소,화장실1 3층 방3,화장실2,공양간
- 보증금 1500만원,월75만원 (방문상담환영) 시설비 4700만원 (시설 일체 갖춰져있음)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10-4504-7809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구,시장통)
- 5층건물중 2층 전체(약70평) 방2개,공양간,남여화장실
- 도심포교최적지(불교도시)
- 보증금,시설비포함3500만원 (월40만)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 함 오후3시이후 연락바랍니다 (모든 주방용품, 침구일체)

011-212-7709

포교원 안내

- 위치 : 전북 정읍시 북면
- 평수 : 대지 100평
- 1층-요사채 30평 (공양간 현대시설 완비)
- 2층-법당 25평. 주차장 완벽
- 보증금 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없음

011-590-2878(주인직접)

포교원 안내

- 위치 : 평택시 소재
- 아파트 및 상가지역 6층건물
- 평수 4층 70평(법당)
- 6층 70평(요사채) 각층 전체
- 삼존불 (동불) 및 후불탱화, 지장, 신중탱화, 관음지장 호신불 108위
-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30만원 시설비 3000만원
- 꼭 하실분만 전화상담

031)672-3353
017-390-335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함안
- 대지 600평
- 건물: 법당 50평, 요사 30평
- 다용도실 10평, 방사4개
- 가액: 2억 5천만원

010-4775-2799

사찰(급)안내

- 위치: 충북오창면에서 천안시 사이
- 부지 : 2,000여평
- 법당, 관음전 2동 55평 목조, 단청
- 요사채: 3동 2층건물 1동
- (방 많음). 깔끔하게 잘 지었음
- 가액: 13억

011-412-2464

사 찰 안 내

- 위치: 전북 김제시 납골공원내 사찰
- 법당 15평, 요사37평, 방2, 주방, 거실, 컨테이너 방2
- 납골 2,000기 봉안 가능
- 전세 2천만원(양도도 가능)

063)543-5551
010-4427-2256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진구 당감동
- 큰도로 시장부근, 위치 좋음
- 대지 62평
- 3층 건물 3층, 법당 32평
- 2층 요사채 32평
- 1억 전세, 보증금 7천만원 월 45만원 가능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1-877-5488

사찰 전원주택 안내

- 위치: 고양시 삼송신도시 산아래(계곡)
- 대지 300평, 건평 60평
- 2층 신축건물
- 남향, 주차장완비(연못, 산신각가능)
- 전철 3호선 지축역 10분거리
- 가액 : 12억(문의시 안내해드림)

011-347-5020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6000평,실등기5000평) (종교용지 700평, 어떤행위던 허락나는 임야 4300평)
- 법당(목조) 약 20평
- 산신각(5평), 요사채(약30평) 2동중 황토방 1개, 실내의 화장실 3개
- 가액: 4억

011-816-9104
011-815-9104

전원주택 인법당 안내

- 충남 예산군 광시면 서초정리 530-1
- 면적 380평, 주거용 주택 38평 (방 3, 거실1, 주방1, 다용도실1, 화장실 2)
- 컨테이너1, 전 60평, ● 업무용 주택(법당용) 22평(탕비실1, 화장실2, 주차장완비)
- 인근 대한민국 최대의 예당호와 임존성
- 가액: 3억 8천만원, 전화상담후

011-425-6054
041)333-6054

포교원 안내

- 위치 : 전남 목포 산정동 아파트 1,200세대 입주 예정지, 사거리 대로변
- 총 43평 , 4층 건물에 3층
- 삼존불, 후불탱화, 지장탱화, 신중탱화
- 시설완벽, 즉시법회 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 상담 후 결정

010-3535-2469

암자 ·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 대지 344㎡, 104평
- 아궁이, 황토방 ● 단독주택 2채
- 방3, 공양간 1, 인법당
- 가액: 1억 4천만원(절충가능)
- 거창 토굴터, 1017평

055)632-3840
011-9393-4965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531-5
- 태양빌딩 5층 중 4층 ● 평수 45평 육합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1200만원

011-742-8458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역전 근처
- 건물 특 A급, 법당, 부처님관세음, 약사 지장 칠성, 동자 분수대 종합탱화
- 평수 3층, 주택 중 1층 25평
- 주차장용도 창고 있음
- 1층 단독 사용, 방3, 주방, 거실, 화장실
- 스님, 보살님, 철학인 환영
-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합 1300만원

010-8675-316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혁 신도시(김천시내에서 7~8분거리)
- 대지 171평(법당 1,2층 1동. 요사채 1,2층 1동. 합 건물 2동)
- 법당 2층 : 20평. 건물 단청되어 있음. 수미단 조성, 영단. LED인등
- 종무소 1층 : 20평. 방3개 ● 요사채 : 1층 30평, 방3개, 2층 30평, 방3개 (귀뚜라미화목 보일러와 린라이가스 보일러겸용)
- 140여가구 마을 옆 산자락 아래 자리하고 법당옆으로 골짜기 물이 졸졸 흐르는 깨끗한 도량, 주차공간이 넓으며, 텃밭도 있음
- 근린시설, 종교집회부지로 등록되어 있음
- 가액 : 2억 3천 5백만원 (은행융자 1억 포함)
- 실질적인 가액이므로 금액절충은 불가하오니 꼭! 필요로 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010-7133-2266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창녕군에서 7~8분거리)화왕산 군립관광지
- 평수 대지 (종교부지 600평) 심야보일러, 도량내 주차장완비
- 법당 30평, 삼존불, 칠성각, 산신각, CCTV설치, IC에서 10분
- 요사채 (60평, 방 4, 화장실 2개) 석탑, 용궁 창고(20평) 텃밭 경작
- 특징: 산 밑에 경관 및 전망이 화려한 기도사찰, 부곡온천 10분
- 가액: 3억 8천만원(융자 5천포함) 유동가격, 대지 40~50만원
- 스님 건강문제로 급 양도,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010-6252-3225

포교원(급)안내

- 위치 :강원도 원주, 원주역 도보 10분거리
- 5일풍물시장중심
- 건물 81평, 3층건물 중 2층
- 삼존불, 법당1, 법당사용가능한 거실1, 방3, 화장실 2
- 노천 대형 주차장 완비, 스님 건강 증진. 포행로 있음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지방 불사 관계로 급 양도
- 법회중. 몸만 오시면 됨, 답사후 즉시 입주

010-7191-2689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 대지198㎡(332평)
- 평당 40만원
- 큰방20평(정남향), 호원채15평
- 방4,부엌2개,욕실2,화장실4
- 마당넓음,텃밭,태양광설치 (전기세무료)
- 암자토굴가능. 마을끝 높은집

010-9808-1312(주인직)

깔끔하고 아담한 주택

포교원 겸 사찰안내

비구니스님,보살님,불자님께

- 위치 : 전주시내
- 대지35평,건평33평
- 큰방2,작은방2,화장실2 집안조경 잘 되있음
- 가액 : 1억4천(저금리 대출가능)

010-3650-848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안양시내 중심지 안양역,명학역 도보10분
- 2층 50평(법당,주방,침실 등)
- 전세 : 보증금5천만원, 월세2천만원, 월35만원 시설비 3천만(시설완비)
- 삼존불 외 시설완비

010-5495-4678



Dr.황의 바른 자세 바른 생활 37 턱의 문제

스트레스도 턱장애 일으켜

턱관절에 이상이 생기면 턱의 통증만이 아니라 두통을 느끼기도 하고 시끄러운 소리까지 들려 불쾌감이 가중된다

오징어 · 껌 등 딱딱한 음식을 씹거나 하품을 할 때, 갑자기 턱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통증이 동반되기도 하며, 통증 없이 소리만 났다가 증상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는 턱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실제로 4명 중 1명은 턱에서 소리가 나거나 턱관절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 모두가 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턱을 움직이거나 음식을 씹을 때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면 그 증세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증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해서 방관해도 안됩니다. 증세가 심해지면 단순한 턱관절 장애가 디스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턱을 괴는 습관, 껌을 오래 씹기, 딱딱한 음식을 씹는 행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턱에서 소리가 난다면 턱의 문제를 의심해보아야 한다.

턱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귀와 아래턱뼈 사이의 턱관절 사이에 물렁물렁한 디스크가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제 위치를 벗어나면서 '딱' 소리와 함께 통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한 심한 충격을 받게 되면 완충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제 위치를 벗어나면서 장애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턱의 관절에 이상이 생기면 단순히 턱의 통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두통을 느끼기도 하고 시끄러운 소리까지 들려 불쾌감을 가중시킵니다.

그러므로 턱의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상태에 대해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턱의 장애를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교정해 주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턱관절 장애는 해마다 500명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턱관절 장애가 점점 늘어나는 것일까요?

턱의 문제는 유도나 레슬링 같은 과격한 운동 등 활동성이 많은 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매트에 얼굴이 부딪히면서 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다가, 점차 성장을 하면서 턱의 좌우 밸런스가 차이나게 됩니다. 턱에서 약간이라도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면 안면 비대칭을 비롯해 턱관절 장애가 생깁니다.

또한 최근에는 스트레스가 턱의 문제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서, 턱이 자주 긴장해 굳게 되고 그 굳어진 근육이 턱 근처의 미세한 조직들을 조금씩 파괴함에 따라 턱관절에 장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자신만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피로가 쌓일때 마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규칙적인 운동, 명상이나 요가, 취미생활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턱의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잘못된 생활습관에 있습니다. 음식을 씹을 때 한쪽으로만 씹는 다던지, 자면서 심하게 이를 갈거나 이를 무는 습관, 손톱을 깨물거나 한쪽 턱을 손으로 괴고 있는 자세 등은 턱관절 불균형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습관들은 본인이 스스로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만약 가족이나 친구 중에 이러한 잘못된 습관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바로 알려줘 습관을 고치게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빠진 치아를 방치해 둬 구강 내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나, 윗니와 아랫니의 교합이 잘 맞지 않는 등 치아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턱의 불균형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포스츄어앤파트너스 교정센터
황상보 원장 T : 1544-9697



김경현 원장의 몸 · 마음 이야기 25 산후풍

임신 전 앓던 질병 잘 살펴야

출산 후 조리를 잘못해 얻게 된 많은 증후군들을 산후바람(産後風)이라고 한다. 산후풍이란 정식 병명은 아니지만 갱년기 장애로 일어나는 자율신경실조증상과 비슷한 증후군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기 위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과도기에서 발생하는 적응장애라고도 할 수 있다.

△전신에 기운이 없고 피로하다 △온 몸이 쑤시고, 마디 마디가 저리고 아프다 △가슴이 답답하다 △얼굴에 상기가 잘 된다 △잘 놀라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어지럽다 △하품이 잘난다 △눈이 침침해진다 △귀가 울리고 소리가 난다 △메스껍고 구역질이 난다 △소화가 잘 안되고 입맛이 없다 △기미가 심해진다 △허리와 어깨가 아프다 △아랫배가 야릇한 느낌과 아울러 아프다 △소변이 잦다 △대하가 있다 △여러 아픈 증세가 자주 변한다 등이 산후바람의 대표적인 증후군들이다.

산후조리에 대한 대표적인 명약으로 보허탕(補虛湯)이 있다. 체내의 소모된 기력을 보충하고, 남아 있는 불필요한 물질들 즉 어혈(瘀血)을 제거해 전신의 순환을 돕는 처방이다. 기본 처방에 각자의 상태에 따른 가감이 이뤄진다. 보통 출산 후 1주일 이내에 쓰며 복용기간은 특별한 증세가 없는 경우 열흘 정도이다. 극히 허약하거나 임신 전에 질병을 갖고 있었던 경우나 여러 증세가 겹쳐있는 경우에는 처방과 복용량이 달라진다.

산후에는 충분한 휴식과 영양공급이 필수적이다.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는 것이 산후 회복의 지름길이다. <동의보감>에서는 산후조리기간으로 100일을 말한다.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도기인 산후에는, 임신 전에 앓고 있던 병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질병들은 임신과 더불어 활동을 중지하다가 출산 후 급격히 악화되는 현상이 있다.

산후조리의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다음과 같다.

우선은 찬바람을 쐬지 않아야 한다. 산모가 몸을 회복하기도 전에 찬바람을 쐬면 기와 혈액순환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아 관절에 통증이 생기고 팔다리가 저리거나 시린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37일 동안은 바깥출입을 삼가는 것이 좋다. 면역기능이 떨어진 산모가 찬바람을 쐬면 쉽게 감기에 걸리며, 폐렴이나 패혈증 같은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

실내는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면서 가볍게 땀을 내야 한다. 실내가 너무 더우면 아기의 발육에도 좋지 못하고 습기와 환기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으면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다. 가습기는 물을 끓여서 더운 김을 내뿜는 방식이 위생적이면서도 적정온도 유지에 좋다. 또 출산 후에는 모든 관절이 이완돼 있는 상태이므로 푹신한 침대보다는 딱딱한 침대나 온돌방이 산모의 골격을 바로 잡는데 좋다. 하루 한 번 30분 정도의 낮잠은 산후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된다.

출산 후에는 청결과 세균감염으로 인한 염증의 예방을 위해 샤워를 하는 것이 좋다. 간단한 샤워는 자연분만인 경우 출산당일에도 할 수 있고, 제왕절개한 경우에는 일주일쯤 지나서 실을 뽑은 뒤에 가능하다. 5~10분 정도 샤워를 하되 미리 따뜻한 물을 틀어 욕실 안의 온기가 퍼진 뒤 몸을 씻도록 한다. 오로가 멈추면 탕 속에 들어가 목욕을 해도 되지만 6주까지는 장시간 입욕은 삼가는 것이 좋다.

보행은 출산 후 하루나 이틀 안에, 유산소 운동은 출산 후 6주가 지나서 하는 것이 좋다. 조기 보행은 방광의 기능과 장의 운동을 원활하게 해 주어 배뇨곤란이나 변비를 막고 체력 회복과 산후 다이어트의 첫 걸음이 된다. 출산 후 부부관계는 첫 생리가 나온 뒤에 갖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출산 후 생리가 다시 시작됐다는 것은 산모의 질이 성 관계를 해도 좋은 만큼 회복됐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도움을 충분히 받는 것이다. 집안일은 3주째부터 간단한 식사 준비나 아기 옷 입히기 같은 힘들지 않은 일부터 시작한다. 손빨래는 구부린 자세도 문제지만 빨래를 쥐어 짤 때 손목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산후 5~7주가 지난 뒤부터 하는 것이 좋다. 엎드려서 하는 걸레질이나 마당 청소는 5~7주가 지난 다음에 서서히 시작하도록 한다. 출산 후 6주까지는 골반 근육이 이완돼 있으므로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것은 절대 삼가야 한다.

선재한의원 (02)518-0845





황현수의 불교와 무술이야기 35 철포삼

쇳가루 · 자갈에 몸을 던져 단련

철포삼에서 포삼이란 현대의 조끼 같은 의복을 말합니다. 강철로 만든 조끼를 입은 것처럼 상반신이 단단해지도록 만드는 수련법을 철포삼이라 합니다. 대체로 중국영화에서 철포삼은 창이나 검이 들어가지 않는 신체갑옷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포삼은 중국무술영화에 단골로 나오지만 세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주먹이나 발차기에 견디는 근육적인 힘의 요소, 무기에 대항 할 때도 검보다는 도가주를 이룹니다. 무술인이 하는 시범 중 한 사람이 기를 모으고 서 있으면 여러 사람이 둘러서서, 서 있는 한 사람을 각목으로 가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멀쩡한 채 서있고 각목들이 맥없이 부러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철포삼의 가장 큰 효과입니다.

철포삼은 맨 몸을 수 천 번 가격당하면서 단련을 합니다. 특히 철포삼의 수련은 높은 곳에서 모래를 깐 바닥에 떨어지듯 몸을 던지며 단련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갈이나 쇳가루를 섞은 곳에서 수련을 합니다. 단련 후에는 중국비방약물에 목욕을 해 신체를 동과 같은 성질로 바꾸어 놓습니다.

철포삼과 비슷한 위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바로 럭비선수들입니다. 어느 한 무술인이 저녁에 길을 가는데 키가 190cm에 육박하는 덩치 큰 청년이 여자를 때리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무술인이 다가가 말리려 하자 갑자기 주먹이 날라오더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도 몸통을 가격했는데, 어이없게 주먹이 튕겨져 나오더랍니다. 여러 번 더 쳤지만 결과가 똑같아 어쩔 수 없이 목을 가격해 기절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청년은 어린 시절부터 럭비선수로 활동해 온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럭비선수들은 철포삼의 전통 수련법을 한 적은 없지만 럭비라는 운동의 특성상 사람끼리 부딪히는 운동이다 보니 철포삼과 같은 공력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하지만 무술에는 무엇이나 뚫을 수 있는 창과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방패라는 모순의 원리가 항상 작용됩니다. 무엇이나 튕겨낼 수 있는 철포삼이 갖춰졌다 해도 급소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저것 단련해 몸을 단련시키는 것도 좋지만 정확한 한 기술만 있어도 열 가지 기술을 단련한 사람에게 반드시 패한다는 공식은 없습니다. 한 가지 정석의 재주를 가진 사람은 열 가지 잡술을 익힌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 세상의 법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근본불교학자/ 다음카페: 37수도장

불자정보 804호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원 안내
● 위치 : 광명시 (위치 좋음)
● 3층건물 3층, 총 45평
● 법당 20평, 분리됨
● 방2, 공양간 12평
● 보증금 2천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2천만원(조절불가)
● 몸만 오시면 됨
02)2618-0908
010-8519-0758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기장읍 아파트 빌라 주택 밀집지역
● 4층건물 중 2층
● 법당30평, 삼존불
● 방2칸, 주방1, 화장실 주차장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800만원(절충가능)
011-544-9777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대연동 재래시장 부근
● 평수 : 2층 60평
● 법당 30평, 방 3, 주방 大 1
● 주차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700만원(절충가능)
010-9342-979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사림동
● 평수 : 실평수 50평
법당 25평, 방大1, 小1,
● 주방大, 화장실1, 욕실1
● 보증금 500에 월60만원
● 시설A급, 시설비 1천3백만원
※ 스님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
● 즉시법회가능
016-9315-366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충주시 신리면 마소리
● 평수 : 법당50평, 산신각 약15평, 대지 224평
● 법당 마당앞 연못 있고, 산밑에 위치
● 도로포장완료. 주차장有
● 가액 : 1억 8천만원
043)852-0533

포교원 안내
● 위치 : 방이동, 잠실역 10분거리
● 평수 : 49평
● 보증금 5천만원에 월 105만원
시설비 : 상담후 조정가능
● 특징 : 삼존불, (석가여래, 관음, 지장보살), 104위 신중탱화, 소불 108불, LED영단, 후불탱화
● 시설 : 주지실(화장실 포함), 종무소, 공양실, 대중화장실 2개
02)416-7749
010-4520-43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
● 평수 : 412평
(대지278평, 전134평)
● 법당 24평, 스님채 21평
요사채 36평
● 심야보일러와 심야온수기 완비
● 가액 : 2억
016-9277-009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 800평, 법당20평, 요사채3
방4,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주차시설 완비
● 비구니스님 기도처로 최고 명당
● 가액 : 2억 3천만원
010-3138-4897

사찰(급) 안내
● 위치 : 대구 중심지역
● 대지 130평, 연 건평 300평
● 현대식 건물사찰로 지하1층
지상4층, 별관 50평(2층)
● 4차선 도로변 교통편리
● 가액 : 13억
010-9025-6770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중심지
● 건물 4층건물에 4층
옥상 넓게 사용 가능
● 보증금 5백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2천5백만원(절충)
010-3131-1094

암자토굴터 안내
● 위치: 청북 청도군
IC에서 15분거리
● 평수 530평, 마을 뒤
● 전기, 지하수, 물, 다 되어 있음
● 관리지역
● 가액: 3,800만원
010-4459-1501

포교원안내
● 위치 : 성남 모란시장 뒤
(공설운동장 후문)
● 전철 8호선
● 법당 40평, 방2
● 주차 다량 가능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65만원
070-7717-9303
010-9565-3638

도심 포교원
● 위치: 서울 강동구 5호선 도보 2분거리
아파트 상가밀집지역
● 4층건물중 2층, 45평
● 삼존불, 고급무늬목 상단
● 접견실 1, 방3, 실내화장실1, (대형)복도화장실1
● 보증금 1천만원 ,월1백만원, 시설비 1천 5백만원 ● 집기일체, 도시가스
● 도심속 최고자리, 주차장 완비
011-716-38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소재
● 부지 : 1200평(대지,전)
● 법당 : 25평
● 요사 : 3동120평(신축,현대식)
● 가액 : 15억원
● 특징 : 토목,조경공사 완료임(10억원투입) 불교복지관 납골당으로 최적지임

사 찰 안 내
● 위치 : 안동시 소재
● 부지 : 1000평(대지)
● 법당 : 30평
● 요사 : 3동 200평(건축비 5억원 소요됨)
● 기타 : 연못, 석등, 포대화상 등
● 가액 : 5억5천만원
● 특징 : 도심에 위치한 사찰로 주지스님 신병관계로 저렴하게 양도코져 함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9636-0455/ 서울 010-5828-045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 평수 2층 40평, ● 방2, 공양간 별도
● 법당, 삼존불 칠성, 산신, 용왕 모셔져 있음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큰도로 접함, 지하철 5분거리 바로 앞 , 체육공원 및 버스정류장
●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상담 후 절충
010-6236-5557
010-5534-7239

암자 · 전원주택 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 부지 710평, 대지 300평
● 신축건물 30평, 창고, 요사채 20평
● 아미타 삼존불, 약사여래불, 용왕단, 신중단
● 계곡물 흐르고 연못도 있음
● 큰 미륵바위 有
● 가액: 1억 7천만원
(융자 5천만원) 가격절충
● 전원생활 하실분도 됨
010-8794-1257

도심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 IC부근
● 평수 70평 단층건물
● 보증금 2500 월 155만
● 시설비 6천만원
● 시설완벽 A급
●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주차장완비
● 즉시법회가능
017-202-5126
070-8151-0112

사찰(급) 안내
우포숲속 아담한 명당터
● 대지 360평(실제사용 600평)
● 법당(조립식 23평)
● 다용도실 23평(단청되어있음)
● 적벽돌 기와 요사채 27평
● 황토방 4평, 석탑
● 즉시 법회가능
● 가액 : 2억 2천만원
(시설비 답사후상담)
010-6582-2848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부여군 만수산 자락
보령 20분, 청양 20분, 부여 30분
서해고속도로 20분거리
● 부지: 약 1,200평 (사찰 뒤 도유림, 주차장 완비)
● 건물 : 법당 20평, 요사채 50평 (신축건물, 방 4, 주방, 거실) , 산신각 3평, 창고 20평
● 사찰주변 경관 및 전망이 수려한 기도사찰
● 가액: 2억 8천만원(시설집기포함)
● 거래하실분만 연락바람(부동산사절)
010-3857-3366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❽ 운강석굴

황제 닮은 불상 불교문화의 원동력

석굴과 불교신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북위라는 특이한 국가를 만나야 한다. 북위는 중국불교문화를 이해하는데 무척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북위가 화북(華北) 지역을 지배하던 시기 동안에는 수많은 석굴과 불교사원이 건립됐다. 이러한 활발한 불교문화의 업적 이면에는 북위시대의 독특한 시대상황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급격한 불교의 팽창 이면에는 이민족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출발한 북위 황실의 정통성 문제가 있다. 북위 황실은 불교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통해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순히 정통성의 문제를 불교를 통해서 해결하려 한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불교수용을 통한 문화축적과 한족문화와의 결합, 그리고 새로운 북위문화를 창출해가고자 했다.


운강석굴 제 20굴. 당당한 체구의 불상은 담요오굴을 대표하는 불상이다. 운강석굴의 불상 중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우람한 불상이 당시 북위시대 불교의 위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북위는 불교 석굴과 많은 연관이 있다. 북위의 석굴에 대한 애정은 현재 우리가 만나고 있는 돈황, 운강, 용문 등을 비롯한 수많은 석굴에서 화려하게 빛을 발하고 있다. 이러한 북위 석굴 조성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운강석굴이다.

운강석굴의 원래 이름은 무주산 석굴로 당시에는 무주새 석굴이라고 했다. 운강석굴이 있는 지역은 지금도 그렇지만 내몽고로 통하는 교통 요충지 중 하나다. 한나라 때부터 이 지역을 중요하게 여겨 무주새구(武周塞口)로 불렀다. 이 곳이 운강(雲岡)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은 명나라 때 군사 요새인 운강보(雲岡保)를 건설하면서부터다. 이때부터 석굴의 이름도 운강석굴로 바뀌었다.

운강석굴을 개착하게 된 과정은 담요(曇曜)라고 불리는 양주출신의 승려와 관련이 깊다.

북위가 건국된 이후로 북위 황실과 불교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북위는 건국 초기 승려를 통제하기 위해 승관(僧官)을 설치했다. 승려 통제를 국가가 주도해 실시한 것은 중국사회에 있어서 불교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국불교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국가와 불교의 밀접한 관계는 북위 삼대 황제인 태무제(太武帝)에 이르러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된다. 이른바 '폐불(廢佛)'이라고 불리는 불교 탄압을 거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폐불 이후 북위 불교를 부흥시킨 인물이 바로 양주(涼州; 돈황일대) 출신의 승려인 담요다.

태무제가 죽자 태무제의 손자였던 문성제(文成帝)가 그 뒤를 이었다. 문성제는 즉위하던 해에 불교부흥의 조칙을 내리고 피폐해진 북위의 불교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 놓았다.

〈위서〉 '석로지(釋老志)'에는 북위불교 부흥 과정에서 재미있는 사건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다.

"흥안 원년(興安 元年; 452)에 불교부흥의 조칙이 내려지자 곧바로 신하에게 명하여 문성제와 같은 신장의 석상을 만들게 했다. 석상 얼굴 위와 발 아래에는 각각 흑석이 있었는데, 그것은 문성제 신체의 아래위에 있는 검은 점과 일치하고 있었다", "흥광 원년(興光 元年; 454년) 가을에 칙명으로 오급대사(五級大寺; 오층탑을 쌓은 절) 안에 태조(太祖)이하 다섯 황제를 위해 석가모니불 입상 5구가 주조됐다. 이상의 높이는 일장육척으로 금이 2만 5천근이 사용됐다"는 기록이다.

폐불 이후 황제를 닮은 불상과 북위 황실의 역대 황제를 위한 불상을 조성한 점은 새로운 불교문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460년 북위불교의 대표자가 된 담요 스님은 북위의 모든 불교문화의 정수를 결집해 운강석굴을 개착한다. '석로지'에는 당시의 상황을 "담요는 황제에게 아뢰어, 수도 서쪽 무주새(武州塞)의 산 석벽을 개착하여 다섯 개의 굴을 여니, 각각 불상 1구씩을 새겼다. 높은 것은 70척이나 되고 다음은 60척이며 조각의 위대함은 일세에 으뜸이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운강석굴의 최초 석굴인 '담요오굴'의 기사다.

문무왕 (사)한국미술사연구소 선임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53 백담사의 가을

이태 전 시월 백담사. 어느 계절이든 새로운 계절은 도시보다 산사를 반걸음 정도 먼저 찾아온다. 가을이 완연했다. 떨어져 뒹구는 낙엽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해오고, 추녀를 떠난 풍경소리는 급하게 추녀로 되돌아왔다.

오세암까지 가는 사람, 봉정암까지 가는 사람, 설악산 꼭대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잠시 들러 제대로 길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죽기 전에 봉정암 가고 싶어 왔다는 백발의 할머니, 할머니 따라온 며느리, 며느리 따라온 아저씨. 모두는 다시 길을 떠났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다시 낙엽이 떨어져 뒹굴고, 되돌아온 풍경소리가 또 풍경을 울렸다. 대답할 수 없는 물음들만 쌓여갔다. 그 가을이 다시 눈앞에 와 있다.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제15도 남방제상호설성등장엄

불설아미타경에 나오는 이 삽화는 남방세계의 한이 없는 부처님들이 아미타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믿을 것을 권하는 내용이다. 제15도는 제14도와 거의 같은 도상이나, 제14도와 같이 그림이 책의 체재로 인해 두 면으로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면에 다섯 부처님이 모두 표현되어 있어 완성도가 한결 높아 보인다. 또한 14도에서의 구름 문양은 중앙의 부처님을 향해 좌우에서 모아지는 형태이나 제15도의 구름문양은 좌에서 우로 향하는 구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동방세계의 부처님들과 마찬가지로 남방세계의 부처님들은 모두 약간 우측으로 향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 도상은 9번째 목판 원판의 전반부 일부에서 9번째의 목판 원판 후반부 1/3까지 이어진다.

"사리불아, 남방세계에 있는 일월등불, 명문광불, 대염견불, 수미등불, 무량정진불 등 항하수의 제불이 각각 그 나라에서 광장설상(부처님 상호의 특징 중 하나로 길고 넓은 혀: 보통 사람이 삼생에 걸쳐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그의 혀는 코에 닿을 만큼 길어진다고 한다.)을 내시고, 삼천대천세계를 덮으시어 성실한 말씀을 이르셨느니라.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믿을지니,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찬탄하고 호념하시는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는 이 경을 진심으로 믿으라고' 하시느니라."

(舍利弗 南方世界 有日月燈佛名聞光佛大燄肩佛須彌燈佛無量精進佛如是等恒河沙數諸佛 各於其國 出廣長舌相 徧復三千大千世界 說誠實言 汝等衆生 當信是稱讚不可思議功德 一切諸佛所護念經)

이 본문을 간추려보면 아미타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공덕이익을 남방에 있는 여러 부처님들이 찬탄하고 그 공덕을 믿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우리는 아미타부처님의 공덕이 어디에서 왔는지 다시 새겨 볼 필요가 있다. 무량수경에서 아미타부처님은 대왕의 자리와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한 법장 스님으로 보살이 닦는 온갖 행을 닦아 중생을 제도하여 극락세계로 구원하겠다는 원을 세웠다.

이러한 대원으로 법장 스님은 부처님이 되셨다. 결국 부처님이 된 원동력은 중생을 행복의 세계인 극락세계로 구원해 주겠다는 간절하고 한결같은 마음인 것이다. 이 마음이 바로 아미타부처님의 공덕이요, 우리가 아미타부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불설아미타경〉 중 제15도 남방제상호설성등장엄(南東諸相好說成等莊嚴). 덕주사판, 1572년 간행, 반곽(半郭) 28.2×21.0㎝.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신행요전 (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한글/영어)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구입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 스님

한생각 잘하면 오간지옥이 무너지고 전체가 무너진다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어 보세요. 항상 그렇게 가다듬고 관하는 겁니다. 조상이니 부처니 따로따로 두지 말고 마음으로 우주 삼천대천 세계, 사생과 더불어 우리 모든 생활 자체를 한마음으로 둥글려서 내면세계 내 마음 깊은 속에 무겁게 놓고 관하세요. 그러면 잡념이 없습니다. 잡념도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주기 위해서 나는 거지 그것이 괜히 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묘한 잡념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묘법이라고도 합니다. 그걸 끊으려 한다고 끊어지나요? 다들 잘 가다듬었어요? 허허허…. 난 웃으면서도, 좋아서 웃을 것도 별로 없고요, 그렇다고 또 울 것도 없고요.

우리가 한자리를 했는데 오늘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최초에 설하신 사제법, 사성제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고집멸도(苦集滅道) 사성제 중에 고 하나만 없앤다면 집도, 멸도, 도도 없습니다. 왜 반야심경에 '색(色)이 공(空)이요, 공이 색이니라.' 이런 뜻을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고는, 고덩어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 고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길어요. 그런데 고 하나만 없앤다면, 그 도리를 안다면 집도 없고 멸도 없고 도도 없어요. 이 도리를 아셔야 돼요.

절에 다니면서 밥 놓고 떡 놓고 빌면서 도깨비장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소꿉장난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도리를 아신다면 땅을 두드리고 울어도 시원치 않아요! 그리고 일 초가 따로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 살림살이를 찰나찰나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걸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온 것이 고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사생이 다 그렇죠. 사생이다 하면 벌레까지도 들어가죠. 저 무정물도 다 들어가고요. 그러니 그것을 모두 따진다면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차원이 있다 없다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요것부터 얘기하고 그 고덩어리에 대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수억겁을 거쳐서 인간까지 되어 온 과정을 보면,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서 돌아가니까 거기에서 생명이 생겼고, 그 생명이 생김으로써 수없이 거듭거듭 모습을 바꿔 가면서 진화된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살던 의식 자체에 습과 욕심이 인과로서 박혀 있는 거죠. 원수를 졌든 안 졌든, 선이든 악이든, 수없는 나날을 거듭거듭 살아오면서 인연 지은 게 바로 이 몸뚱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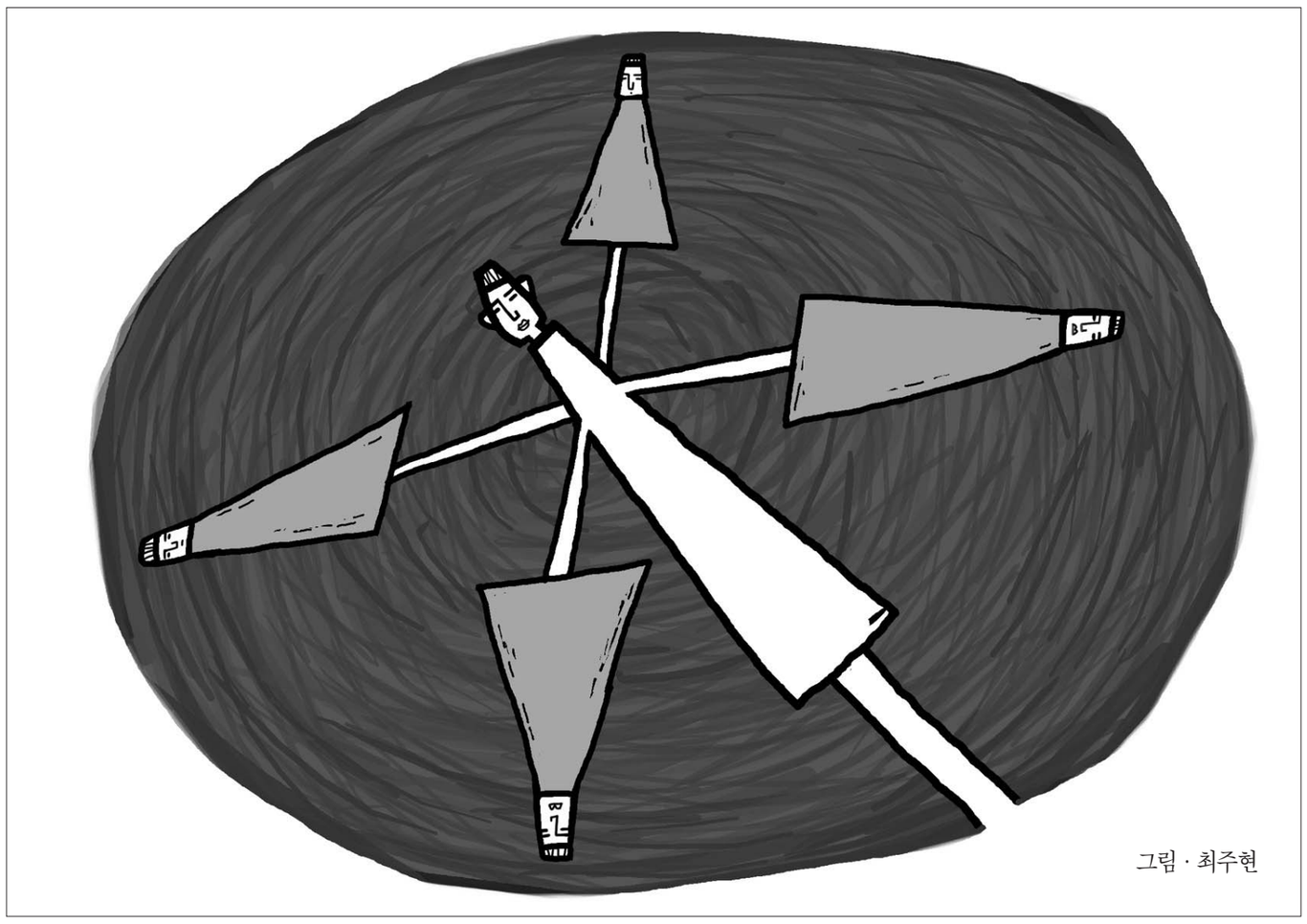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런데 말 못할 일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여러분한테 전해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하고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자기가 마음으로 관할 때에 진실로 관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서 진정 뭐가 뭔지 모른다면 절실하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세포에, 오장 육부에 정맥 동맥을 통해서 두뇌를 통해서 모든 게 돌아가는 이치가 하나의…, 이것을 이야기하려면 그 뒷받침으로 이 이야기를 해야겠군요.

임신을 하려면 엄마 아빠가 들어가야 되는데, 음과 양이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인연 따라서 혼백이 거기에 접근을 하게 되지요. 이 세상은 과일도 그렇고 상인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인연 따라 모두 모이죠? 그와 같이 인연 따라서 혼백도 거기에 접근을 하면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삼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음과 양, 그리고 나의 근본에 부합된 마음의 영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본래 근본을 가지고 거기에 접근한 그 사람의 인과에 의해서 수십억 마리가 거기 모입니다. 그럼 수십억 마리가 인과에 의해서, 유전에 의해서, 업보에 의해서 수없이 거기 모이는데 그 하나하나가 자기 인연 따라서 만난 바로 자기 중생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자기 인과로 온 겁니다. 업보로 온 거고 유전으로 온 거고, 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몸뚱이 속의 그것들은 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아서 이렇게 인간 한 덩어리를 이룬 겁니다. 이걸 가지고 왜 고덩어리라고 하는가? 일 초 일 초 바뀌지면서 병도 나게 하고 수없이 나오게 합니다. 악의 업보로 인연이 된 거는 거기에서 수없이 돌아가면서 '내가 원수 갚아야지.' 하고 때로는 아프게도 만들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만들고, 때로는 우환이 오게도 만들고 때로는 웃게도 만들고, 어떤 때에는 싸움을 하게도 만들고 어떤 때에는 선의 인연이 거기에 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게도 만듭니다. 이렇게도 돌아가고 저렇게도 돌아가고 그러는 원인이 여러분 몸뚱이 속에 수십억 마리가 지금 천차만별의 모습으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에서만 그러냐? 마음은 체가 없어서 바깥으로도 나오는 겁니다. 연방 털구멍을 통해서 나고 듭니다. 그런다면 바깥의 일이 될 것도 안돼요, 또. 이게 인과고 업보예요. 그런데 그것이 딴 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전부 나에게서 직접적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입을 통해서 말도 그놈들한테서 나오는 거, 생각하게 하는 것도 그놈들한테, 전부 그놈들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또 그놈들이 아니라면 이 육체를 쓰고 있을 수도 없고 그놈들이 아니라면 부처가 될 수도 없습니다. 참 묘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 나오는 것이, 거듭거듭 찰나찰나 돌아가면서 나오는 것이 고정됨이 없죠.

그래서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육조 스님께서는 또 '본래 자성은 움죽거리지 않으면서도 만법을 들이고 내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하셨습니다. 요걸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팔랑개비는 대를 쥐니까 팔랑개비가 돌아가고 대가 아니라면 팔랑개비가 있을 수가 없죠. 그와 같이 본래자성불의 그 중심은, 주장자는 바로 팔랑개비대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주인공입니다. 주인을 막대기라고 한다면 팔랑개비는 육신입니다. 이 모두가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돌아가는데, 바람과 팔랑개비와 대가 자꾸 돌아가는데, 이게 삼위일체로 공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는 하나로 돌아간다. 그 하나로 돌아가는 건 어디로 돌아가느냐? 그러니 그 하나마저도 이름지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부처니라. 그리고 공했느니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살림살이를 하시면서 공해서 돌아가는 것을 그대로 아시죠?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남편 만나면 금방 마음, 행, 말이 동시에 자동적으로 "여보!" 이렇게 나오죠? 허허

☞26면으로 계속

불교 전통의식 3기 수강생 모집

단기 속성 - 3개월 과정
(범음 범패 - 1년 과정)

불광불교대학에서는 예불, 불공, 천도재 등 각 사찰에서 행해지는
불교의식을 교육하고자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 안내
- 입학자격 : 스님, 남 • 녀 재가 불자 및 불교의식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사찰 및 포교원 개원 하실 분(종단 등록 가능), 수료 후 법사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분
  《초심자 및 재가 불자 환영》
- 개강일시 : **2010년 10월 6일(수요일) 오후 2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 토요일 오후 2시 ~ 5시**
- 강의장소 : 도동 불광불교대학

2. 교육내용
- ▸단기 속성(3개월)과정 : 도량석, 조석종성, 상단예불, 각단예불, 신중청, 관음청, 지장청 등
  천도재, 49재, 시달림, 관음시식, 화엄시식 (사물 - 북, 요령, 목탁)
- ▸1년(법사과정) 과정 : 천도의식(범음범패) -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 옹호게, 상단권공 및 천수바라, 사다라니, 도량게

특강 : 승무, 살풀이(무형문화제 제7호 전수자 류희연 개인지도)

※ 초심자에게 불교전통의식 방법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함

3. 접 수 처 : 불광불교대학 종무소 (053-986-1080)

4.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도동 불광불교대학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44(팔공IC 5분거리) ☎ 053)986-1080 / 010-5470-8730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 석가모니 부처님 |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2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순간순간 생각이 나오는 대로 속으면 어떡합니까!

☞25면에서 계속

허…. 그리고 마음도, 거기다 의지하는 마음이, 애정이 스스로 나오죠? 행동도 "여보 당신, 뭐 잡숴소?" 하고 나오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묘하게 나올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금방 일 초 전에 그랬는데 저기서 "엄마!" 그러고 아이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금방 어머니가 돼요. 어머니가 돼서 "그래, 너 밥 먹었니?" 벌써 말과 행과 뜻이, 이렇게 삼합이 그냥 그냥 바뀌면서 넘어선 겁니다. 벌써 일초를 넘어선 거예요. 찰나의 살림살이로 또 온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도 바뀌지고 행도 바뀌지고 생각도 모두 바뀌지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바뀌지고 먹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모두가 바뀌지니까, 어떤 거 먹을 때 내가 먹었다고 할 수 없고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말했다고 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만났다고 할 수 없거든요. 하도 찰나찰나 바뀌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無)'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뜻을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라.' 하는 뜻을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해서 돌아가는 그 이치를 알아야 하고, 또 사생을 거치면서 모습을 바꿔가면서 진화된 이 자체가 인과 업으로서, 유전으로서 그 업보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은 바로 욕심이 거기에 붙어 있고 내 생명을 아끼는 '나'라는 조건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라는 조건으로 인해서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세계에 끄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의 몸뚱이 속에서 그렇게 독 안에 들어도 면할 수 없는 그러한 인과로서의 업이 자꾸 나오는데, 그거를 거기다가 되놔야 없어집니다. 거기서 나오는 건 어떤 거든지, 내게 원수 갚으려고 나오든 또 좋은 인연을 맺어서 갚으려고 나오든, 악과 선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다 놓는다, 너희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로 돌아가는 거니까 하나에다 다 놓는다 이겁니다. 팔랑개비가 돌아가면서 색깔을 내는 그 자체는 그 대에 의존해서 나오는 거니까 대에다 놔라 이겁니다. 대! 막대기. 그것을 종합해서 주인공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그러니 거기다 그냥 되놔라 이겁니다. 그것을 하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미 담겨 있는 카세트에다가 되넣으면 앞서 넣은 거는 없어진다고 지난번에 그랬죠? 앞서 넣은 거는 없어지고 새로 넣는 것이 들어간다. 새로 또 넣는다면 앞서 넣은 거는 또 없어진다. 그러니 연방 그릇은 비면서 새 샘물이 나오는 거를 연방 떠먹어 가면서…, 그릇은 항상 비어 있으니 항상 새 물이 담기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한생각을 잘하면 오간지옥이 무너지고 독사지옥이 무너지고 전체가 무너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 묘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믿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거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걸 잘 생각하셔서, 믿는 거는 대 막대기를 믿고 팔랑개비가 돌아가는 것에 속지 말고 거기에다 다 놔라 이겁니다. 순간순간 생각이 나오는 대로 속으면 어떡하느냐 이겁니다. 꿈을 잘못 꿨다고 속아서 '아이구, 내가 이거 꿈을 잘못 꾸었으니까 가정에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렵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고 '이 부적을 가지고 다녀야 내가 편안하고 내 몸이 건강하겠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동서남북이 다 터졌으니, 누가 서쪽이 막혔으니 서쪽으로 이사 가지 말래도 거기에 속지 마세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싶은 날 가는 게 법이에요!

여러분이 부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100% 가졌다 하는 거는 그렇게 자유로운 무심, 중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처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며 고등 동물이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하루하루 그저 모가지 쩍 잘려서 죽고 잡아먹히는 하천세계 짐승들과 다름이 없죠. 인간 수명이 70, 80, 90, 100, 보통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사생 가운데 하천세계에 사는 짐승들은 수명이 6개월도 되고 3개월도 되고 짧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인간 이 몸뚱이 속에 수많은 생명들의 인과가 나한테 자꾸 말로도 나오고 생각으로도 나오고 그래 가지고 싸움도 붙이고 그러는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싱그럽게 벗어나야 합니다. 바로 한마음으로 돌리는 것이 녹이는 거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맡겨 놓는 것이 속지 않는 것이며 보임을 하는 것이고, 보임을 잘하면 거기에서 부활이 돼서 하나가 툭 터져 나오면 그것이 바로 증득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마음속에 들어 있는 마음내기 이전은 나의 부(父)요 마음내는 것은 자(子)다 이럴 때, 자와 부가 따로 있느냐 이겁니다. 네? 그러면 자는 부를 의지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믿어야 된다. 또는 자의 생각에 의해서 모든 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생각과 돌아가는 것을 부에게 다 놔라 이겁니다. 맡겨 놔라 이겁니다. 그러면 내 몸속에 구성돼서 있던 하나하나의 인과라든가 유전이라든가 또는 원수, 업보 이런 것들이 다 보임이 된다 이겁니다.

유마힐 거사가 그래서 그랬죠. "중생이 다 편안하게 나아야 나도 편안하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뚱이 속에 수십억 마리가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이니 위니 식도니 또는 콩팥이니 간장이니 다 소임을 맡아 가지고 공장장 노릇을 하죠? 공장장이 편안해야 직원들이 편안하고 직원들이 편안해야 부처가 편안하죠. 여러분 몸뚱이 속의 모든 중생들이 편안해야 여러분 몸뚱이가 편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 중생은 둘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부처님 법이 여러분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부처님이라고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느냐? 부처는 없기 때문에 부처라고 한 겁니다. 부처는 없습니다. 왜 없느냐? 아까 얘기했죠. 부처님이라면 때에 따라 삼십이응신(三十二應身)으로서 나투시는데, 삼십이응신이라면 숫자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삼십(三十)! 하면 여러분은 아주 달랑 숫자로만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세심(三世心)을 상응하면서 혼연일체가 돼서 사생을 건지고 오온의 진리를, 모든 것을 파악하고 칠보를 가득 쥐고 여러분한테 달라는 대로 모든 걸 줄 수 있는 여건을 자유롭게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도리만 아실 것 같으면 털구멍을 통해서 수호신이나 호법신이나 법신이나 화신이나, 또는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용신 지신, 이런 헤아릴 수 없는 마음들이 모두 상응하면서 혼연일체가 돼서 천지인으로서 전부, 사생이 다 혼연일체가 돼서 돌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스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 내가 "알았소." 한다면 그 한마디 할 때 우주간 삼천대천세계 법계가 들썩 들려요. 다 알아요. 통신이 돼요. 그러니 그 도리를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몸과, 내 몸에 들어 있는 중생들을 다 질서 있게 이끌어 나가면서 한생각에 수십억 마리가 전부 한마음으로 따라 주는 그런 호법신이 되고 수호신이 되는 거죠. 그것뿐인가요?

우리 모든 생활 자체를 한마음으로 둥글려서
내면세계 내 마음 깊은 속에 무겁게 놓고 관하세요

예를 들어서 벌레 소굴에 들어갈 때는 벌레가 되니 부처는 벌레가 될 때도 있고 날아다니는 새가 될 때도 있고, 술 파는 작부가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참, 지위가 높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게 될 수 있으니 어떤 거 될 때 부처라고 하겠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름을 지어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악과 선을 다 놔라!' 하는 이치가 바로 그래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좌선을 한다고 앉았는데 자꾸 잡념이 생긴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관하는 게 똑바로 관하는 겁니까?" 이러거든요. 지금 이렇게 빠른 세상에 요것조것 생각하다 보면 뭐 좌선한 게 있겠소?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똥 누나 밥을 먹으나 좌선이지요. 그리고 또 배우는 사람들은 앉고 싶으면 저녁에 조용한 때 30분이라도, 시간을 1시간 2시간 이렇게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단 30분이라도 앉았을 때, 모든 것을 둥글려서 다 하나로 만들어서, 둥글게 만들어서 무겁게 놓고 관해 봐라 이거예요. 잡념이 거기 어디 있나?

제사 지낼 때도 수없이 차려 놓고 해 봐도 그게 그거예요, 네? 조상들이 여러분처럼 또 나와서 고생을 해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모찌떡처럼 크게 찹쌀떡 하나 해 놓고선 물 떠 놓고 향 피워 놓고 과일이나 서너 가지 한데 합쳐서 갖다 놓고 해도 삼천대천세계의 사생이 다 먹고도 그 떡은 되남아요. 어때요? 그 떡 하나 속에는 칠보가 가득하니까요. 여러분은 꼭 뭘 차려 놓고 '해 줍쇼' 하거든요. 스님들을 그렇게 성가시게 하고 귀신 만들면 여러분도 귀신 되고 같이 귀신 돼요. 사람이 귀신 노릇을 하니까 귀신이 있는 거지 귀신 노릇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귀신이 있남? 마음은 그렇게 체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모두 이 도리를 아실 것 같으면 털구멍을 통해서 보살들이 수없이…, 만 개로 쓰려면 만 개로 쓰고 천 개로 쓰려면 천 개로 쓰고, 이러기 때문에 내 몸뚱이에 있는 것만 수호신으로, 화신으로, 약사로, 보살로 쓰는 게 아니고 나중에 나라를 위해서 쓰거나 뭘 위해서 쓰는데 더 많이 필요하다면 저런 가랑잎 하나까지도 전부 수호신으로 쓸 수 있어요. 왜? 거기도 그렇게 있으니까요. 딴 사람 한테도 그렇게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자기를 언제나 빼놓고 다녀요. 극장에 들어가면서 극장표 살 때 자기 표는 빼놓고 언제나 남의 표만 사 가지고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왜 타의에서 구해요? 나로 인해서 태초도 있는 거고 나로 인해서 바로 문이 생기는 건데, 그리고 나로 인해서 상대가 있는 것이지 나 없고 뭐가 있어요? 모두 부처님 법을 믿으러 다닌다면서 도깨비들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말을 틀리다고만 하지 말고 잘 생각들을 해 봐요. 부처님이나 조상이나, 부모나 돌아가신 분들이나 똑같이 하나로 생각을 해요. 이 바쁜 세상에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것저것 빼고 뭐 남는 게 있다고 무슨 내 마음을 깨닫고 그러겠소?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88년 10월 2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자 혜봉-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64형으로 나누어서 본
나의 체질을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사람을 보면 부모로부터 받고 태어난
체질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병의 원인을 시원하게 가르쳐주고 병증이
있으면 체질에 맞게 체질한약차를
드시면 5일안에 본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의 체질은 무얼까?
나에 맞는음식.맞는과일.맞는차.등을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전화주세요!

스님들께는 모든 특혜를 드립니다

상담연락처 010-9373-3778

강릉 인월사 담마선원
위빠사나 집중수행 안내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불교명상법인
위빠사나 집중수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불교인 뿐 아니라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푸른 솔숲 향기와 목조 황토방 선원에서
깨달음의 휴식을 가져 보십시오"

일 정	지 도	인 원	대 상
2010년 10월 23일 - 10월 29일 [6박 7일]	우또다나 사야도	15명 (선착순)	일반인

■ 수행장소 : 강원도 강릉시 경포 저동 6-2번지 인월사 담마선원 (황토방에 욕실과 화장실 완비)
■ 수행내용 : 좌선, 행선, 일상생활수행 매일 수행 점검을 위한 사야도(큰스님)의 면담과 법문이 있음
■ 입제 및 회향 :
• 시 작 날 - 10월 23일 오후 5시
• 끝나는 날 - 10월 29일 오전 12시
■ 참 가 비 : 20만원 (우체국 201780-01-001463 예금주 : 담마선원)
■ 준 비 물 : 수행에 편한 복장, 세면도구, 필기도구, 방한쇼올
■ 문의 및 접수 : ☎ 담마선원 033)644-1686
email: dhamma53@hanmail.net



불자 세상보기

이강렬
극작가 · 한국문인협회상임이사

차이와 다름의 벽 넘어서기

새벽에 습관적으로 신문을 들었는데 유난히 눈에 들어온 것은 '묻지마 살인'이란 제목의 머릿글이었다. 얼마 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서 자녀와 함께 TV를 보던 40대 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사건이었다. 공사장 일용직을 하던 범인은 사건 당일 일거리가 없자 오전부터 망치 따위의 도구들이 든 배낭을 메고 동네를 배회하다 저녁 무렵 놀이터에 앉아 술을 마셨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피의자의 동기였다. 때마침 맞은편에서 들려오는 즐거운 웃음소리에 화가 치밀었다는 것이다. 30대 초반의 그는 자신의 불행한 처지와 너무 비교돼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저질렀다고 한다.

요즘 정부 일각에서 촉발된 화두가 소통을 넘어 공정한 사회이다. 짧은 기간 압축 성장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은 다양한 형태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복지든 무엇이던 간에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사회 전체는 집단적 분노와 적개심에 시달리게 된다. 그 속에서는 차이와 다름에 대한 이해조차도 무색하다. 논리적 공감보다는 오로지 감정적으로 옳고 그름만을 따지게 되는 까닭이다. 내 생각과 다르면 바로 적이다. 나와 다른 것은 모두 틀린 것이라고 부정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곳곳에 떠다니는 이 부정과 적개심의 실체는 바로 평상심의 해체 때문이다. 모두들 뭔가 잘못된 것이란 걸 안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이 정서적 불안은 질곡의 지난 시절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다.

개인은 어떻든 역사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 험난했던 과거가 소외된 서민의 마음에 뿌리 깊은 상처를 남겨놓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쁨이나 어두운 감정 모두 어쩔 수 없는 산물인 셈이다.

한편으로 돌러보면 중산층이란 이름도 겉보기만으로는 멀쩡하다. 작은 아파트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은 물론 승용차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분노하고,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에 목소리를 높인다. 한동안 가족을 위해 정신없이 일하다가 조금 나이가 들면 어느새 집에 들어와도 혼자다. 그렇다고 아내나 아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도 없다. 그 사이를 비집고 자리 잡은 것이 휴대전화기다.

'항상' 이라기보다 이메일이나 정보서비스와 재미있는 오락기능 까지도 갖춰져 있기에 '함께' 라는 단어가 더 어울린다. 최근에는 기능이 훨씬 진보한 스마트폰이 나와 세상의 변화를 더욱 실감하게 한다. 전 세계에서도 스마트(Smart)열풍이 일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으로 촉발된 스마트 바람은 개인의 일상생활을 넘어 국가와 기업의 운영체계를 바꿀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분명 모바일 앱시대는 가고 웹의 시대가 도래 했지만 다양한 정보통신 관련 용어들은 언듯 이해조차 쉽지 않다.

몇 일 전 스마트폰을 구입해볼까 하여 대리점에 들렀는데 점원의 표정이 그닥 반가워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아마도 귀찮게 이것저것 귀찮게 묻기만 할 것 같은 인상이 들었는지 궁금해 하는 몇 마디를 근성으로 대답해주었다. 그리고는 친절하게 사용하시기에 불편하니 그냥 지금 써는 것이 나을 거라고 조언까지 해 주었다.

물론 그 말이 맞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섭섭했다. 처음부터 세대 차이를 짐작했기 때문이었겠지만, 새로운 세계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이 시도도 해 보기 전에 다름의 벽 앞에서 갇혀버리는 기분이었다.

마조(馬祖道一) 스님의 즉심시불(卽心是佛)은 한마디로 잡다한 망상과 이기심을 버리고 때 묻지 않은 고요한 마음을 일컫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행동들은 마음이 일어나 생각이 움직이는 행위이다. 강물은 천만갈래로 나눠 흐르지만 결국 바다에서 모두 만나지 않은가.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개인주의적이 되면서 누구나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갖기 쉽다. 이럴 때일수록 차이와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 그것이 진정한 소통이고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닐까.



사부대중 칼럼

안수경
고창군종합복지관 과장

네 잘못이 아니야

열어 놓은 창문으로 드는 맑은 바람이 약간은 싸늘하게 느껴진다. 쨍하고 쏟아지는 햇살에 느껴지는 터질 듯한 청량감이 가을을 알린다. 이제 가을이다.

지루하게 내리던 그 많던 비와 그치지 않을 것 같던 무더위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린 날, 가을의 문턱에서 가슴시린 아련한 느낌은 이때의 이 계절만이 주는 덤인 것 같다. 결실이 가득한 계절임에도 가을은 내게 서운함을 준다.

산에도 들녘에도 길가에서 조차도 힘들여 결실을 맺느라 누렇게 퇴색해가는 모습이 풍요로우면서도 쓸쓸하여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야 할 것만 같다. 너른 들녘을 거닐고도 싶고 가을 바다도 보고 싶다. 산길을 혼자 고즈넉하게 걸어보고도 싶은 뭔가 그냥 지나치기엔 아쉬운 계절이다. 이리저리 지인들과 나들이 약속을 하기도 하지만 실행되어 본적은 거의 없다. 아마도 길었던 추석연휴가 있어준 덕분에 가능했던 고향 들녘과 성묘나들이가 아쉽지만 나름 시간과 마음을 달래준 것이리라.

이렇듯 약간은 빛바랜 낙엽색이 나는 가을을 즐기는 나이지만 최근에는 선운사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근무하다보니 자연스레 산사를 접할 기회가 있어 화사한 가을을 만끽하고 있다. 선운사 계곡 옆 당단풍은 말할 것도 없고 남쪽지방에서 많이 핀다는 꽃무릇-일명 상사화 또는 석상화라고도 함-이 선운사 입구부터 도솔산 가득 무더기로 피어있어 눈이 즐겁다. 선운사에서 맞는 이른 새벽이나 저녁 무렵은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선선함으로 가슴이 꽉 차오른다. 어줍지 않게 핸드폰의 카메라를 켜고 꽃들에게 들이대기도 하지만 어림없는 짓이다. 자연이 그리 녹록하게 허락하지는 않는다.

쉽게 담을 수 없는 풍경을 차곡차곡 마음에 담으며 계곡과 산길을 따라 걷노라면 온 산이 새빨갛게 물든 모습은 정말 대단하다. 찬란하다는 표현 외에 다른 표현은 없을까? 눈부시도록 아름답다는 느낌이 이런 걸까.

가을은 풍요로움과 화려함이 가득해서 결실의 계절일 수밖에 없다. 자연스레 또 다른 미지의 세계를 지향하는 열매가 맺어지고 든든한 물질적 지원을 바탕으로 정신적 유희가 시작되는 계절이다. 주저리주저리 이렇게 읊어대면 지나친 망상일까?

그렇다고는 해도 내게 가을은 사계절 중에 가장 착해지고 싶고 순수해지고 싶은 계절이다. 누구라도 스스로가 갈수록 각박해져가고 메말라 가는 감정의 소유자라고 자각한다면 가을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본다.

개인적으로 권장하는 영화 중에 '굿윌헌팅(Good Will Hunting)' 이 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버림 받은 뒤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천재 청년 윌을 치유하면서 자신도 자유로워지는 숀 맥과 이어 교수의 이야기이다.

나는 이 영화를 요양보호사 강의 때마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누구나 아픔은 있게 마련이다. 그 상처받은 마음을 녹여내는 말을 나는 그 영화에서 찾았다.

"네 잘못이 아니야(It's not your fault)."

이 말은 잘잘못의 여부를 떠나 상담의 과정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극치를 보여줬다. 그 누구말대로 "상처받지 않은 영혼이 어디 있으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수강생들의 반응도 좋은 덕분에 나 역시도 이 영화를 많이 볼 수 있었다. 영화는 볼 때마다 다른 느낌을 줬고, 느낌에 따라 다른 감동을 선사했다.

이 가을, 삶이 고단하고 아프다고 느끼는 나를 위하여 그 상처를 찬찬하게 들여다봐야겠다. 그 상처를 보고 또 들여다보며, 받아들이고 감싸 안으며 살아가도록 차분하고 따뜻한 감동이 있는 성찰을 해야겠다.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을 통해 고통 등 감정의 근원을 밝혀 무쳑이나 아팠던 상처를 치유할 힘을 얻을 것이다.

올 가을, 힘들고 외로운 이가 있다면 선운사를 찾을 것을 권하고 싶다. 울긋불긋한 단풍과 계곡을 수놓은 꽃무릇이 그대의 외로움을 씻어 주리라. 공활한 가을 하늘은 꽉 눌린 당신의 답답함을 뻥 뚫리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선운사의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그대를 보듬어주리라.

올 가을, 당신과 내가,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 무엇이 됐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사 설

돈선거 아닌 종책선거여야 한다

선거를 흔히 '민주주의 꽃 혹은 축제'라고 화사한 수식어를 붙여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현실은 축제와는 거리가 멀다. 금권 · 관권 · 음해 등이 난무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래서 선거무용론이 고개를 쳐들기도 한다.

조계종이 곧 제15대 중앙종회의원선거를 치른다. 이달 25일 직능대표 및 비구니 종회의원을 뽑는데 이어, 28일에는 각 교구별로 직선직 종회의원을 뽑는다. 종회의원선거가 축제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종책선거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축제로 불릴 수 있다. 지난 4년의 종단 안팎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회고하고 이후 4년의 전망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때 선거는 비로소 축제가 된다. 중앙종회의원선거에서 종책을 발표하고 토론을 벌인 예는 아쉽게도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호법부 등 유관기관은 금권 등에 의한 혼탁함을 막는 것과 함께 종책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도록 해야 한다. 종책 발표회는 중앙 및 교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해 치를 수 있다고 본다. 종회의원이 되어 종단 운영에 참여하겠다는 스님들 또한 어떻게 활동을 하고, 무엇을 이루려는지 자료화하여 종도들 앞에 공식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종책선거로 나아갈 수 있다.

돈을 뿌리는 선거여서는 안 된다. 호법부가 선거를 앞두고 담화문을 발표해 깨끗한 선거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익명의 제보일지라도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돈 선거는 종단을 부패하게 만든다. 돈을 들여 당선되었으면 권한을 이용해 그만큼 거두려 할 것이고, 그리 되어 종단은 돈의 구렁텅이에 더욱 깊숙이 빠지고 만다. 후보자들은 당선을 목표로 출마하는 만큼 어떻게 하든 당선되려고 노력한다.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락을 좌우하는 상황에서는 준법의식이 둔감해질 수 있다. 돈 안 드는 선거 정착 여부는 팔할이 투표권자에 달렸다. 요구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한다.

국제선센터, 특성화되어야 한다

조계종의 국제선센터가 다음 달 15일 문을 연다. 개원에 앞서 국제선센터 주지인 현조 스님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불교 세계화의 중심도량 △서울 서남권 포교의 중심도량 △교육과 문화, 수행의 정법도량을 3대 운영 지표로 제시하고 "한국불교 정수인 간화선의 생활화 · 대중화 · 세계화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선센터는 개원하기까지 여러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 부지 사용권을 놓고 조계사 신도회와 총무원이 갈등을 빚었으며, 종교용지로 불하받은 이후오래도록 나대지로 두어 삼보정재를 세금으로 내기도 했다. 도심 속에 웬 외국인을 위한 선센터냐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쳤던 만큼 관심과 기대가 크다.

국제선센터라는 이름에 걸맞는 운영이 요청된다. 도심의 여느 사찰과 비슷해서는 건립의 의미가 반감된다. 국제선센터도 사찰이므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귀의처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운영 지표의 하나로 '서남권 포교의 중심도량'에 착안하는 것은 국제선센터라는 이름에 담긴 특성화 지향과는 거리가 있다. 간화선의 국제화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우주의 큰 빛으로 오신 관세음보살님의 메시지

몸과 마음과 영혼을 빛으로 치유한다

이 빛을 받는 자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로울 지어다.
너와 내가 따로가 아니며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느니라.
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이며 또한 무한한 힘을 가진 자이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는 힘이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바르고 곧게 자라게 하는 힘이며 인간들의 마음과 정신을 정화하여 건강하게 만들며 육체 또한 건강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힘이니라.
개인은 물론 가정과 나라와 지구촌의 모든 인간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평화를 주는 힘이니라.
나의 힘을 光大力이라 할 것이며 이 힘을 받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되고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들에 앞장서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또한 이 빛을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 마음과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여 기쁨과 행복과 평화로움 속에서 살지어다.
이 빛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고자하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하며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빛을 받는 자 영원히 행복하고 평화로울 지어다.
산 자나 죽은 자나 영혼이 살아 있음은 분명하니 모든 인간들이 그것을 깨달아 산 자와 죽은 자의 모든 영혼들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여 평화로운 이 세상을 만들어야 할 지어다.
나는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만든 빛이며 또한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빛이고 힘이다.
넓고 높은 깊은 마음 나와 비교할 것이 없으며 모든 인간들은 늘 항상 나와 함께하며 나와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하느니라. 사랑과 자비를 인간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빛이고 힘이니라.

※ 우주의 빛과 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해 드립니다.

현교빛치유센터 원장 김건희
예약문의 : 02)568-3778 / 010-2648-3778 (오전 9시~오후 8시)

세계평화 인류화합 "G20 세계정상회의 개최 성공기원"

"국민한마음잇기운동" 세계불교법왕의날 선포 기원 대법회



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평화재단 담화 이존영 이사장은 세계불교초대법왕 일붕 서경보존자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일붕법왕문도의 날을 세계불교법왕의날로 재정 선포하기 위하여 오는 10월 9일~10일까지 2일간 세계평화 인류화합을 기원하는 G20 세계정상회의 개최 성공을 기원하는 3000배 철야기도 정진 및 평화통일 "국민한마음잇기운동" 범불교도인 동참 결의문 채택 기원 대법회를 봉행 한다고 밝혔다.

1. 세계불교초대법왕을 역임하신 일붕 서경보존자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세계불교법왕의날 행사가 오는 2010년 10월 9~10일까지 충북 청원군 미원면 쌍이리 산 7-1번지 법왕청 제2청사에서"G20 세계정상회의 개최 성공을 기원"하는 3000배 철야 기도정진 및 세계평화 인류화합을 기원하는 대법회를 봉행한다.

2. 이번 9일에 열리는 철야 3000배 기도정진을 통하여 의장국으로서의 G20 정상회의 개최를 성공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개최한 역대 국제회의 중에서 최대 규모이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우리나라의 국격 및 국가브랜드를 홍보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본 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3. 또한 10일 당일 우리의 큰 스승이신 일붕존자님의 동상제막식을 봉행하고 2부 법회에서는 고승대덕큰스님 문도 및 신도, 내외귀빈 등 총 3000여명이 참가하여 세계인류 평화와 인류 화합을 기원하고 G20 정상회의 개최 성공을 기원하는 세계불교 법왕의 날 선포식과 함께 법회를 봉행한다.

4. 당일 법회에 동참하시는 불자님들께는 무료로 중식제공 및 T셔츠를 지급 하고 추첨을 통해 TV와 냉장고, 기타 전자제품 및 생활필수품 제공은 물론 가수초청 공연도 함께 할 예정이다.

5. 9일 전야제에 참석하여 3000배 철야 정진기도를 마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상장 및 3000배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6. 본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시는 사찰 및 문.형제들은 02-3216-3216(법왕청) 또는 02-3417-1010(일붕법왕문도회), 국번없이 1644-3668(일붕법왕종 총무원)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7. 또한 일붕법왕 동상 제작에 있어 동상에 이름을 새길 경우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사찰에서 명단을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비는 1인당 1구좌 5만원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첫째날

- 일 시 : **2010년 10월 9일**
- 전 시 : **오전 9시** 6.25전쟁 60주년기념 UN에 보관중인 6,25 사진전 및 일붕법왕의 발길 따라 사진전 및 백두산 풍경 사진 전시회 (1개월간)
- 기 도 : **오후 3시부터** G20 세계정상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3000배 철야정진기도 봉행

둘째날

- 일 시 : **2010년 10월 10일** (일붕법왕문도회)
  - · 1부 행사 : **오전 10시 30분** 세계평화 인류화합을 위한 G20 정상회의 개최 성공 기원 및 평화통일 "국민한마음잇기운동" 범불교도인 동참결의문 채택을 위한 세계불교법왕의날 선포식 대법회 봉행
  - · 2부 법회 : **오전 10시 30분** 초대법왕 일붕 큰스님 동상 제막식 · 3부 행사 : 시상식 및 어르신 초청 가수공연 및 경연대회
  - · 4부 행사 : 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님의 초상화 전달식은 담화이사장에 의해 현재 옻칠 문화재 청목 선생님이 천연 옻칠을 사용하여 제작한 다음 판화를 제작하여 필요한 사찰에 무료로 보급하는 시간입니다.

= 행사안내 =

행사명 : 세계평화 인류화합을 기원하는 대법회
주 최 : (재)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담화문화재단
주 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왕청 승가단, 일붕법왕종, 불교통합종단협의회
장 소 : 청원 법왕청 제2청사
특별후원 : (사)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후 원 : 법왕청신문, 불교TV, 현대불교신문, 경기매일, 월간 노인건강복지, 영문 외교저널, 연합불교방송, 불교일보, 교계신문



특별초청 : 티벳트 성 페마초겔 린포체

❖ 행사장 : 충북 청원군 미원면 쌍이리 산 7-1번지
법왕청 제2청사
행사문의 : 02) 3216-3216 / 043) 296-1081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가단체

대승불교여래종 세계승왕 인왕, 일붕법왕종 총무원장 원각, 세계불교 세심종 총무원장 범홍, 세계불교 법사종 종정 청하, 국제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도천, 세계불교 일화종 종정 황정, 한국불교 전법조계종 총무원장 일웅, 대한불교 대원종 종정 신풍, 호국불교 효예종 종정 법진, 대승불교 달마종 총무원장 해광, 총남불교 조계종 종정 청암, 대한불교 서각종 총무원장 원각, 한국불교 정토종 종정 월호, 대한불교 자비종 총무원장 도경, 대한불교 소림선종 총무원장 연화, 세계불교 지장선종 종정 혜봉, 대한불교 대원종 비구니회장 대광, 전통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태함, 사단법인 국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천, 대한불교 조계종성불회 회장 만공, 용화세계미륵종 종정 월단, (사)세계불교평화연맹 이사장 정철, 사단법인 세계평화연합법인회 법왕자, (사)대한불교율사조계종 총무원장 청파, 종단세계선불교 총무원장 안심, 현대불교미륵종 총무원장 원공, 한국불교자비종 총무원장 해광, 대한불교여래조계종 총무원장 해덕 월명,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법정, 대한불교천인종 종정대행 청산, 대한불교 도생 조계종 종정 청오 사불, 한국불교지장조계종 총무원장 대천, 대한불교불광종 종정 청원, 대한불교 활법종 총사 활인, 대한불교 용화조계종 총무원장 해운, (사)한국노인복지봉사회 회장 정치호, (사)세계평화미술대전조직위원회 이사장 구미숙, (사)한국옻나무협회 회장 청목, (사)한국옻칠공예협회 회장 김인섭, (사) 신세대문화예술교류단, 단장 김주동, (사)나라사랑 이사장 민기붕, (사)한국공예예술가협회 회장 이칠용, (사)한국자애인유권자연맹 이사장 최봉실,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봉, 통합불교아미타종 이기욱,(사)한국교육문화원 원장 조규호, 한국불교대승조계종 총무원장 법광,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장 능인, 대한불교유가종 총무원장 혜수,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불, 대한불교 대성종 종정 대성, 세계선불교조동종 총무원장 청산, 한국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법민, 대한불교약불종 총무원장 보각, 해동불교무량종 총무원장 학성, 한국불교원각종 총무원장 자오, 대한불교천지종 총무원장 대명,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대한불교도천종 총무원장 원광, 대한불교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대한불교조동종 총무원장 대은, 한국불교원광종 총무원장 법륜, 금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명, 한국불교정토종 총무원장 무각, 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장 해월, 대한불교구화종 총무원장 혜성, 호국불교선미륵종 총무원장 효진, 한국불교석가종 총무원장 원통, 정법불교임제조계종 총무원장 석지, 대한불교위앙종 총무원장 위산, (사)민족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당, 세계불교화엄종 종정 성인, 대한불교 불 조계종 총무원장 해원, 고려불상조각원 원장 일연, (사)대한무술경호총연합회 김원주,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위원회 총재 서영훈, (사)한국운동재활협회 대표 서장우, 국제불교교류협회 총재 상산, (재)국기원 원장 박금실, (사)한국조류보호협회 회장 김성만, (사)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회장 학운, 대한불교 불 조계종 총무원장 해원, 고려불상조각원 원장 일연, (사)대한무술경호총연합회 김원주,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위원회 총재 서영훈, (사)한국운동재활협회 대표 서장우, 국제불교교류협회 총재 상산, (재)국기원 원장 박금실, (사)한국조류보호협회 회장 김성만, (사)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회장 학운

참가 단체는 무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 총재 김정각 대종사, 총장 송법장, 종정 해운, 총무원장 원각, 이사장 담화, 법왕청 승가단 회장 운송 대종사, 단장 법상, 유심

■ 가입문의 - 통합불교종단협의회 011-829-9120 / 법왕청 승가단 010-5057-8833